

대한영어영문학회 2018 봄 학술대회

<21세기 영어영문학 및 영어교육의 전망>

발 표 논 문 집

- ◎ 일시: 2018년 6월 2일 (토)
- ◎ 장소: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 ◎ 주최: 대한영어영문학회
- ◎ 후원: 전북대학교



대한영어영문학회 2018 봄 학술대회 일정표

“21세기 영어영문학 및 영어교육의 전망”

행사일정표					
장소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1, 204, 205, 208				
일시	2018년 6월 2일(토)				
등록	13:00-14:00				
학술발표	14:00-16:55				
총회 및 연구윤리교육	17:00-17:40				
학술발표					
장소 시간		문학1 (201호)	문학2 (204호)	어학1 (205호)	어학2 (208호)
제 1 발표 14:00-14:40	제목	이시구로의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참회와 용서의 문제	신데렐라의 사악한 계모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담론	영화 오만과 편견을 활용한 영어 수업 방안	조기영어교육 연구 동향
	발표자	이복기(전북대)	이건근(조선대)	서은미(호원대)	김정렬(교원대)·이제영(전주대)
	사회자	김화정(전북대)	황치복(전주대)	김창수(건양대)	김종혁(전북대)
	토론자	윤천기(원광보건대)	박재영(전북대)	황요한(건양대)	이혜진(원광대)
제 2 발표 14:45-15:25	제목	「틴틴 사원」과 로맨티시즘 지리의 어려움	안티고네 되살리기: 『안티고네 프로젝트』 속의 민주주의	Condition C in the comprehension of wh-interrogatives in L1 Korean- L2 English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초등영어과 플립러닝 방안
	발표자	주혁규(경상대)	우승정(조선대)	안영재(전주대)	도미나(세종가락초)
	사회자	서혜련(우석대)	손경환(원광보건대)	서은미(호원대)	신동진(전주대)
	토론자	임보라(전북대)	이재은(충남대)	김재민(전북대)	안정근(전북대)
제 3 발표 15:30-16:10	제목	디킨스의 히스토리화 허스토리: 『두 도시 이야기』에 나타난 근대성과 멜로드라마	나르시시즘으로 읽어본 “유산”	Different Intensity of Emotions in Bilingualism	주제중심 통합영어교육을 위한 요구조사
	발표자	조현준(경희대)	박부순(원광대)	황요한·김창수(건양대)	서귀원(청주강내초)
	사회자	이삼태(조선대)	임성숙(전북대)	김대영(전주대)	이상오(호원대)
	토론자	이복기(전북대)	박윤기(배재대)	이희철(전북대)	박혜숙(군산대)
제 4 발표 16:15-16:55	제목	정신분석의 불안담론을 넘어서	Reactions from "a Swinish Multitude"	COLT를 활용한 EBS 우수 영어수업 동영상에 나타난 읽기 후 의사소통 활동분석	21세기 4C 능력 신장을 위한 표현 중심의 수업 사례
	발표자	정혜욱(부경대)	임보라(전북대)	신은솔(한국교원대)	김지영(인천도담초)
	사회자	김혜진(전북대)	문영수(호원대)	정진완(전북대)	김영룡(우석대)
	토론자	이일수(군산대)	장근영(군산대)	이제영(전주대)	강승만(충북대)
총회 및 연구윤리교육					
17:00-17:40 (인문사회관 201호)					
저녁식사: 17:50-19:00					

- 목 차 -

○ 제 1 발표 14:00 ~ 14:40

발표자	제목	강의실	페이지
이복기 (전북대)	이시구로의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참회와 용서의 문제	201	6
이건근 (조선대)	신데렐라의 사악한 계모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담론	204	14
서은미 (호원대)	영화 오만과 편견을 활용한 영어 수업 방안	205	21
김정렬 (교원대) 이제영 (전주대)	조기영어교육 연구 동향	208	24

● 제 2 발표 14:45 ~ 15:25

발표자	제목	강의실	페이지
주혁규 (경상대)	「틴턴 사원」과 로맨티시즘 지리의 어려움	201	29
우승정 (조선대)	안티고네 되살리기: 『안티고네 프로젝트』속의 민주주의	204	34
안영재 (전주대)	Condition C in the comprehension of wh-interrogatives in L1 Korean- L2 English	205	39
도미나 (세종가 락초)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초등영어과 플립러닝 방안	208	46

○ 제 3 발표 15:30 ~ 16:10

발표자	제목	강의실	페이지
조현준 (경희대)	디킨스의 히스토리과 허스토리: 『두 도시 이야기』에 나타난 근대성과 멜로드라마	201	51
박부순 (원광대)	나르시시즘으로 읽어본 “유산”	204	61
황요한· 김창수 (건양대)	Different Intensity of Emotions in Bilingualism	205	65
서귀원 (청주강 내초)	주제중심 통합영어교육을 위한 요구조사	208	71

● 제 4 발표 16:15 ~ 16:55

발표자	제목	강의실	페이지
정혜옥 (부경대)	정신분석의 불안담론을 넘어서	201	82
임보라 (전북대)	Reactions from "a Swinish Multitude"	204	87
신은솔 (한국교 원대)	COLT를 활용한 EBS우수 영어수업 동영상에 나타난 읽기 후 의사소통 활동분석	205	91
김지영 (인천도 담초)	21세기 4C 능력 신장을 위한 표현 중심의 수업 사례	208	96

○ 제 1 발표 ○

14:00 ~ 14:40 발표 및 토론

일정표

문학 1 (201호)	이시구로의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참회와 용서의 문제				
발표	이복기 (전북대)	사회	김화정 (전북대)	토론	윤천기 (원광보건대)
문학 2 (204호)	신데렐라의 사악한 계모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담론				
발표	이건근 (조선대)	사회	황치복 (전주대)	토론	박재영 (전북대)
어학 1 (205호)	영화 오만과 편견을 활용한 영어 수업 방안				
발표	서은미 (호원대)	사회	김창수 (건양대)	토론	황요한 (건양대)
어학 2 (208호)	조기영어교육 연구 동향				
발표	김정렬(교원대) · 이제영(전주대)	사회	김종혁 (전북대)	토론	이혜진 (원광대)

이시구로의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참회와 용서의 문제

이 복 기(전북대학교)

피해자는 너무나 많이 기억하는 반면에, 가해자는 너무나 적게 기억한다. 나는 1992년에 일본에 갔을 때 유용한 일본사 연표가 담긴 관광책자를 샀다. 그런데 1912~1926년까지의 다이쇼 민주주의 시대 다음은 곧장 1970년의 오사카 만국 박람회였다. 그 사이에 일본에서는 흥미로운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나 보다. (스티븐 핑커 837-8)

I. 서론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이시구로(Kazuo Ishiguro)는 매 작품을 쓸 때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영향을 주었던 사건들을 언급한다. 그의 두 번째 작품인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의 집필에 영향을 미친 경험으로 그는, 감기에 걸려 소파에 누워 읽었던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Remembrance of Things Past*)에서 직선적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사건과 장면을 배치한 서사전개 방식의 발견을 든다. 이 영향은 그의 첫 번째 소설에서 그가 경험부족으로 실패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던 서사전개 방식을 기교면에서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기술적인 시도는 서사의 형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희미한 언덕의 풍경』(*A Pale View of the Hill*)에서는 서술자이며 주인공인 에츠크(Etsuko)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자기 이야기를 섞어서 서사를 전개하는 바람에 경험 주체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독자를 혼란스럽게 했다면, 두 번째 작품에서는 서사를 통해 기억을 왜곡하려는 서술자의 의지가 분명하게 표현된다. 이 새로운 서술방식을 통해 “자신과 그들의 과거에 대한 한 인물의 견해를 덮고 있는 많은 층위의 자기기만과 부정”을 표현해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Ishiguro, “Nobel Lecture”). 일본을 배경으로 한 두 편의 소설에서 표현하고자 시도했던 기억의 왜곡과 자기기만의 문제를 성숙한 서술기법과 결합시켜 매우 원숙하게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는 첫 번째 작품보다 발전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 작품은 영국 문학계에 새롭게 등장하는 비유럽 출신 작가들의 이국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들 대열에 서서 찬사를 받기에 충분한 기술적이고 내용적인 완숙함을 지녔지만, 루시디(Salman Rushdie)를 위시한 식민지 출신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하면 정치성에 있어서 빈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만하다. 이시구로는 자신의 작품에서 정치적인 내용을 찾아 비평하는 태도에 거부감을 표현하고 그의 작품은 개인의 감정 문제를 파헤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배경의 두 작품이 모두 이차세계대전 직후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맥락을 고려한 독해는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세 번째 작품에서는 공간배경을 영국으로 옮겼지만 시간배경은 제이차세계대전 전후로 삼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범위를 뛰어넘는 성취를 위해 권력을 가진 주인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바친 집사가 과거 행위의 오류를 인식한 후 회한에 빠진다는 개인 감정적 차원의 독해를 넘어서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독해의 유혹은 더 강해진다. 정치, 사회적 독해와 질문이 많아지는 데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던 이시구로가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는 자신의 사고가 바뀌었다는 점을 은연중 드러낸다. 도쿄 강연에서 여성 청자가 향후 작품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거대한 격변의 시기를 살아내고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둡고 부끄러운 기억과 타협하려 애쓰는 개인들”에 대한 내용이나는 질문에 답했던 대목을 언급함으로써 그의 변화를 내비친다.

네, 저는 망각과 기억 사이에서 갈등하는 개인들에 대해 자주 쓰고는 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제가 진짜 쓰고 싶은 것은 국가나 공동체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대면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도 개인과 같은 방식으로 기억하고 망각할까?... 폭력의 순환을 멈추게 하거나, 사회가 혼란이나 전쟁을 향해 분열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망각일 경우도 있을까? 다시 말해, 안정되고 자유로운 국가들이 진정으로 의지적인 망각과 좌절된 정의를 기초로 세워질 수 있을까? 저는 질문자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 쓸 방법을 찾고 싶지만, 불행히도 아직

은 그렇게 할 방법은 모르겠다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설을 발표하고 꽤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을 회상하고 『파묻힌 거인』(*Buried Giant*)의 탄생을 설명하는 대목이지만, 이 내용에서 우리는 이시구로가 초기 작품에서 개인의 감정적 차원에 전착했다는 주장이 그가 서사전개에서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 대해 무관심했음을 보여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개인 심리의 차원으로 축소시키려고 시도했음을 알게 해준다.

라이트(Timothy Wright) 같은 학자는 이시구로가 초기 작품에서 역사적 사건과 맥락이 그의 서사에 미치는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 했다는 점을 간파하고서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는 “현재의 변영을 위해 역사가 억압되거나, 감춰지거나, 조작되거나, 정상화되거나, 왜곡되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61). 라이트의 눈에 “역사적 격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 격변에 *의해* 구조화된 서사 속에서, 역사는 부재하는 현전”으로 보인다(61, 강조는 원문). 잔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사는 서술자가 전달하는 서사에서 배경이 되는 역사적 격변이 현저하게 주변화되기 때문에 독자는 그 이유에 대해 더욱 강렬한 호기심을 품게 된다. 이 논문은 현재의 변영을 위해 과거를 기억할 것인가와 망각할 것인가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에 대한 사죄와 용서라는 문제의 틀을 통해 작품을 분석한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사죄와 용서의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서술자의 개인 심리적 층위와 사회적, 정치적 층위를 분리하지 않고 논의를 전개할 수 있고, 사회적, 정치적 층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저자의 의도에 대한 설명도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은 또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 구성원의 입장에서 작품을 분석하여 하나의 텍스트가 경험의 내용이 다른 독자에 의해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II. 사죄의 요소: 과거의 진실한 서사화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는 서술자 오노(Masuji Ono)가 폐전 후 격변한 일본사회에서 자신의 과거행적 때문에 느끼게 되는 심리적 압박을 자신의 서사를 통해 과거를 정당화하면서 해소하려는 시도를 그려낸다. 오노가 느끼는 압박이 단지 심리적 차원에서만 전개되었다면 그는 사건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터이다. 하지만, 둘째 딸 노리코(Noriko)의 결혼협상이 그의 과거행적 때문에 방해받고 있어서 그가 더 이상 자신의 과거와의 대면을 부정하고 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오노는 상견례장에서 사돈이 될 가족 앞에 갑작스럽게 무릎을 꿇고 그의 과거행적에 대해 사죄하는 방식으로 그의 앞에 놓인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그는 자존감을 잃지 않고 그의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 소설의 서사에서 독자를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은 오노가 과거의 과오를 딸의 결혼상대의 가족 앞에서 사죄하고 그 가족이 그 사과를 받아들여 결혼을 승낙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이다. 오노의 과오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집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행위이고 피해를 입은 집단은 이 소설이 경계 짓는 것처럼 일본인들만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가 느끼는 의아함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

우선 오노의 사죄가 적절한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봐야 한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느끼는 분노를 제거하고 가해자를 수용하는 행위로, 가해자의 변화에서 분노를 제거할 이유를 발견했을 때 가능해진다. 그리스월드(Charles L. Griswold)가 제시하는 피해자가 분노를 포기하기 위해 기대하는 가해자의 변화를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자신이 문제가 되는 특정 행위의 책임 있는 행위자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 ② 자신의 행위를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함으로써) 거부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의 주체가 된다는 생각을 거부해야만 한다.
- ③ 부정행위자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해를 입힌 점에 대한 *참회*를 경험하고 표현해야 한다.
- ④ 가해자는 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약속하고, 그 약속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⑤ 가해자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처가 남긴 피해를 이해해야 한다. 피해자의 설명을 듣고 공감해야 한다.

⑥ 가해자는 허구나 핑계가 아니고 과실을 저지른 자아와 과실을 맥락화한 설명을 서사형식으로 제공하여 자신을 이해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해자가 품을 만한 질문에 답하는 행위이다.

그리스월은 여섯 가지 조건 중에서 앞의 세 가지는 “기억이 용서에 있어 본질적임을 함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50).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 뿐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서 “적절하고 정확한 기억은 사건의 진실에 충실하기와 불가분의 관계이다”(50). 오노가 자기의 서사를 전개하는 방식이 “적절하고 정확한 기억”을 정리하려는 행위이고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인지 분석하고 그의 사죄가 그리스월의 조건에 맞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오노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분노의 원인과 그들이 오노에게 원하는 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의 기억에 대한 평가와 기억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의 양상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오노는 폐전 후에 일본사회가 겪는 변화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자주 표현한다. 손자 이치로(Ichiro)가 일본의 전통적 영웅을 흉내내지 않고 카우보이를 모방할 때 오노가 보인 반응은 히스테릭해 보인다. 그의 반응에 손자는 행동을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오노는 자신이 “의도보다 목소리를 더 높였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 장면은 일본을 폐망시킨 미국에 대해 오노가 감정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30). 이 장면은 앞서 표현되었던 제자 신타로(Shintaro)에 대한 평가와 대비를 이루어 오노가 전후 일본사회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신타로는 오노의 제자들 중 뛰어난 집단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냉소주의와 신랄함에 물들지 않은” 사람으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만 같아” 보인다(21). 신타로를 평가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냉소주의와 신랄함”이 유행한다고 말하는 데에는 오노가 폐전후의 변화보다 변화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선호하고 과거에 대해 냉소적이고 신랄하게 반응하는 세대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변하지 않는 가치는 그가 신념으로 받아들였던 “신일본 정신”이고, 젊은 세대가 그에게 보이는 냉소적이고 신랄한 반응은 그가 신념의 구현을 위해 했던 과거의 행적이 전후 일본사회가 미래로 나가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젊은 세대의 비난이다. 작품에 표현된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인 “신일본 정신”의 무변성과 오노의 성품의 관계, 그리고 젊은 세대가 그의 사상과 행적에 대해 냉소적이고 신랄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작품 안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오노가 생각한 신일본 정신은 시간과 세대에 따른 흔들림을 넘어서, 변하지 않는 순수한 정신이다. 그래서 오노가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쳤던 점이 “세대의 흔들림을 넘어서 솟아올라야” 한다였다(73). 이 교훈은 국가주의와 결합해서 “우리를 삼켜버리고, 과거 십, 십오 년간 우리나라의 곁을 약화시켰던 바람직하지 못하고 타락한 영향 너머로 솟아오르라”는 설명으로 구체화한다(73). 그리고 그는 신일본 정신이 “기괴하고 하찮은 것”을 대체하고 등장하는 “더욱 남성다운 정신”이라고 열변을 토한다(73). 여기서 신일본 정신으로 표현된 군국주의는 가볍게 변하지 않고 진중한 남성성으로 등치된다. 오노는 그의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일본이 행동해야 한다는 선동용 그림을 그렸고 일본은 오노의 아들을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을 만주국에 보내 대륙진출을 실행하였다. 이렇게 윗세대의 신념 때문에 희생된 젊은이들은 폐전 후 그들에게 냉소적이고 신랄한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해 보인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고 싶은 젊은 세대에게 오노 같은 윗세대는 방해꾼처럼 보이고 그들의 마음에 분노감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존재들이다. 이들의 공격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압박을 피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이 오노 서사의 목적이다.

젊은 세대의 불만과 분노는 둘째 딸 노리코(Noriko)와 첫 번째 혼담이 오갔던 미야기(Miyake), 큰딸 세츠코(Setsuko)의 남편인 수이치(Suichi), 과거 제자였던 쿠로다(Kuroda)의 제자 엔치(Enchi) 등에 의해 표현된다. 미야기는 자기 회사 사장의 자살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에게 [사원들을] 대신해 사과한 행위”로 자신들이 “과거의 죄를 잊고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찬사를 보낸다(55). 이 말은 오노에게 의도적으로 한 말이고 미야기와 세츠코의 결혼이 성사되지 못한 원인을 담고 있지만, 오노는 사장의 행위가 “거대한 낭비”(55)이고 “전시에 우리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싸우고 일한 사람들을 전범”(56)이라 불러서는 안된다고 응수한다. 오노의 아들 켄지(Kenji)가 만주국에서 새로 돌아와 장례식을 치르던 날 사위 수이치가 분노하고 있다는 말을 딸에게

들은 오노는 분노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그는 세태가 변해 “젊은 세대의 성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59). 젊은이들은 침략전쟁을 주도해 생명을 잃게 하고 국가를 파멸하게 만든 기성세대의 행동에 불만을 갖고 있고 미야기의 말처럼 그런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 다수가 “전쟁 동안 차지하고 있던 지위에 벌써 되돌아온”(56) 상황에 분노를 표하지만, 오노는 이런 세태의 변화가 “염려스럽다”(59)고 생각한다. 오노가 변하지 않는 인격과 가치에 대해 상찬한 이유 중 하나가 젊은 세대가 분출하는 분노를 외면하고 자기의 입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 때문임이 읽히는 대목이다.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노의 태도는 국가와 개인을 일치시키고 국가가 완전한 것처럼 충성스러운 개인도 완전하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그리스월은 고대 그리스에서 용서가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이유를 도덕적 완벽주의에서 찾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를 논하면서 그리스월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행위는 “과오가 실제로 저질러졌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도덕적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표현한다”고 설명한다(7). 이 설명처럼 용서는 행위자가 과오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함의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체계에서는 용서가 미덕으로 논의될 가치가 없는 이유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향하는 완벽주의적 윤리는 “완벽한 미덕을 지닌 인물”(8)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인물은 용서받을 과오를 범하지 않을 테고, 또한 과오를 범하는 사람과 사귀지 않을 것이니 용서를 할 일도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용서 자체를 미덕으로 분류해 상찬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용서의 자리가 존재하는 비-완벽주의 구도는 사람들이 서로를 설명하도록 청구권을 행사할 상호적인 도덕적 주장과 요구를 인정한다”(9). 비-완벽주의적 윤리는 세계와 인간의 성품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근거를 둔 체계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불완전성이 우리의 운명임을 수용하는 인간의 성품과 염원에 대한 서사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미덕이다”(14). 이시구로 소설의 서술자 오노는 완벽주의 윤리를 자신의 이상으로 삼고 생활하는 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오노의 윤리적 입장은 소설 시작부터 표현된다. 오노는 그의 서사를 포격을 입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기품 있는 고택의 면모를 자랑하는 자신의 집을 묘사하면서 시작한다. 오노가 무엇보다 자신이 집을 소유하게 된 과정을 말하고 싶어서 집에 대한 묘사를 서사의 시작점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천천히 드러난다. 저택의 전 소유주 아키라 수기무라(Akira Sugimura)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 도시의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7). 그가 사망한 뒤 가족들은 저택을 팔면서 “명망 경매”를 진행하였다(9). 이는 후보들 중에서 “좋은 인격과 성취”를 기준으로 매수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8).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수기무라 저택의 소유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서사 초기에 밝혀서 그의 인격과 성취가 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전달하려고 한다. 그리고서 미야기와 노리코의 혼담이 깨졌다는 사실이 공개된다. 혼담이 오가는 과정에는 상대방 집안의 평판을 조사하는 과정이 마치 그가 수기무라 저택의 매수인으로 선발되었던 과정처럼 진행된다. 그래서 수기무라 저택 구매과정과 결혼 협상을 비교하여 그것이 “결혼 협상에 관계된 것과 거의 같다”고 평가한 것이다(9). 결과적으로 오노는 노리코의 결혼 협상이 깨진 이유는 자신의 평판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자기 집을 언급하면서 서사를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서사의 초입부터 그의 인격과 성취가 공적으로 인정받을 정도임을 내세우는 대목에서 그의 완벽주의적인 윤리관을 엿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인물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오노의 완벽주의적 윤리관은 군국주의와 결합하여 더욱 단단해졌다. 국가의 결정을 따르고 국가의 정신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개인이 자기가 한 일을 범죄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신념의 틀로 무장한 오노는 외부의 시선과 압박에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서사를 만들려고 하지만, 한 번 실패한 둘째 딸의 결혼을 성사 시켜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태도를 바꾸게 된다. 오노는 사이토(Dr. Saito)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큰 딸 세츠코(Setsuko)의 부탁에도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사이토와의 우연한 만남에서 쿠로다(Kuroda)에 대한 언급이 있는 뒤로 태도가 돌변한다. 오노는 먼저 과거 군국주의 예술단체에서 같이 활동했던 마츠다를 만나 사이토가에서 보낸 사람과 면담하게 되면 “섬세하게”(with delicacy) 대답해달라 부탁한다(94). 마츠다가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신경 쓰지 말게. 몇 년 뒤, 곧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시도했던 일에 대해 고개를 꺾고 다닐 수 있게 될 걸세”(94)라고 말하자, 오노는 “나도 똑같이 느끼네. 하지만 결혼 협상의 경우에는...”(94-5)이라며 말끝을 흐린다. 결국 오노는 딸의 결혼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구부리고 있다. 마츠다에게 확약을 받은 뒤, 오노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기에 절실하게 만날 필요가 있는 쿠로다에게도 같은 목적으로 찾아간다. 결국 현실적인 목적의 달성을 목적으로 오노는 과거 행위의 정당성을 위해 구축한 서사를 배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오노가 이처럼 완벽주의적 윤리관으로 정당화하던 서사를 현실적 목적을 위해 배반하는 경우는 여러 번 노출된다.

우선 오노가 “신일본 정신”에 경도되고 스승이었던 모리(Mori)를 떠나는 과정에서 두드러진다. 마츠다로부터 오카다-신겐회(Okada-Shingen Society)를 소개받고, 오노는 마츠다가 말하는 강하고 새로운 일본에 대한 이상을 수용하고 그 이상에 충실한 그림을 그리려다 스승과 불화한 것처럼 서사가 전개된다. 하지만 그의 서사가 종착점에 다다를 때, 오노가 스승과의 가상 만남을 그리는 장면에서 그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난다. 오노는 스승은 과거처럼 자신을 제자로 대할 테지만 그는 과거처럼 모리를 ‘센세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 말한다. 대신 그는 모리를 “동료인 것처럼 응대할 것이고,” 자신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면 웃으며, “모리상, 나는 당신이 한 때 걱정했던 것처럼 만화책에 그림을 그리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답니다”라는 투로 말했을 것이라 상상한다(203). 오노가 이런 장면을 상상한 이유는 모리가 변해버린 오노의 화풍에 대해 꾸짖을 때 오노가 그의 문하를 떠나면, “너는 분명히 잡지나 만화책에 삽화 넣는 일 찾는 데 성공할거야”라고 했던 말에 대한 응답이다(190). 오노가 스승에게 당한 무시를 성공해서 보기 좋게 양갓음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런 상상을 했던 날, 오노는 모리의 집을 내려다보며 자신 안에서 “깊은 승리감과 만족감이 솟구침”을 느꼈다(204). 이러한 오노의 감정으로부터 모리를 떠난 그의 목적이 “신일본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신념보다는 성취와 권력 추구였음을 읽어낼 수 있다.

오노가 신념보다는 권력추구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증거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그가 변하지 않은 신타로에 대해 처음 언급하는 지점은 과거 그의 영향력을 은근히 자랑하기 위해서였다. 신타로의 동생 요시오(Yoshio)를 위해 내무부(State Department)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추천장을 썼고, 요시오가 취업한 뒤 신타로와 함께 그를 찾아와 감사를 표했던 일이 언급된다. 그리고 오노는 “몇 년 전이라면,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겠지만 나는 내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로 그런 위치에 도달했다”라는 말을 추가하여 그가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지만 영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뉘앙스를 남긴다(21). 오노의 이런 태도가 의도하는 바는 신타로의 말에서 밝혀진다. 신타로는 오노의 영향력이 “이제 예술계를 넘어 사회 각계각층으로 퍼졌지만” 오노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겸손한 성품”을 지녔다고 상찬한다(25). 신타로와의 일화를 통해 오노는 과거 자신의 성취와 영향력을 알리면서도 겸손한 그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품위를 담보하려 한다. 하지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여전히 “이상주의적인 젊은 예술가”(22)처럼 보였던 신타로가 학교 미술교사가 되려는 현실적 이익을 위해 돌변하는 것처럼 오노도 딸의 결혼이라는 현실 문제해결을 위해 고집스런 과거 정당화를 포기하게 된다.

행위의 동인으로서 이상과 신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주장하려는 오노의 서사의 허구성은 스승과 제자의 구도가 파열하는 지점에서도 나타난다. 오노가 스승과의 관계를 파기하는 장면의 원형은 아버지과 아들 관계의 파열이다. 오노의 아버지는 오노가 그림 그리는 사실을 알고 어릴 적 떠돌이 스님이 오노에게 나타나는 성품의 오류가 그를 “게으름과 기만을 향한 경향성”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한 경고를 상기시킨다(45). 예술을 “나태”와 “의지박약”과 연결시켜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노의 아버지의 본질적인 염려는 화가들은 “누추함과 가난 속에 산다”는 점이었다(45). 예술을 본질적으로는 “경제적 궁핍”이 예상되는 삶을 이유로 거부하지만 “나태”와 “의지박약”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표현하는 그의 방식은 권력추구를 신일본 정신의 실현이란 명목으로 포장하고 스승을 떠난 오노의 방식과 같아 보인다. 첫 번째 스승이었던 타케다(Takeda)의 문하를 떠날 때 오노는 타케다가 충성할 만한 스승이 못된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충성을 말하며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주장해 자신을 차별화한다(72). 타케다와의 결별은 맹목적인 충성이 옳지 않다는 도덕적인 입장을 내세우며 이루어졌지만 실상은 더 권위 있는 스승을 찾아가려는 의도였고, 이 또한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고 싶어 했던 그의 의지의 반영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모리와의 결별 과정에서도 신일본 정신의 추구를 내세웠지만, 내막은 스승보다 더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싶었던 오노의 의지의 구현이었던 것이다. 특히 모리와

의 결별은 아버지와 파열을 일으킨 장면을 반복한다. 아버지와 모리가 똑같이 오노에게 숨긴 그림이 있으면 가져오라는 요구를 하고 오노는 끝까지 거부하는 과정이 그렇다. 이를 보면 오노의 일생은 아버지에게 당했던 경멸적 비난을 영향력 있는 성공한 화가가 됨으로써 부정하는 과정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승 모리를 만나면 그가 저주하듯 말했던 오노의 미래가 틀렸음을 상기시켜 주고 싶어 한 그의 상상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지금까지 오노가 과거를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욕을 향한 선택을 신념과 이념에 충실한 행동으로 서사화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오노의 과거 서사는 사죄의 요소로 필요한 진실한 과거의 서사화라는 덕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Ⅲ. 사죄와 용서의 조건: 과거의 적절한 맥락화

딸의 상견례(miai) 자리에서 벌어지는 오노의 사죄와 결혼성사로 증명되는 용서와 화해가 그리스월드가 제시한 과정을 따르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상견례 장면은 이 소설의 중간부분에 배치되어 오노가 이전까지 회피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공적인 고백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오노는 사위가 될 타로 사이토(Taro Saito)의 동생 미츠오(Mitsuo)에게서 엔치의 분위기를 느낀다. 엔치처럼 미츠오도 오노에게 노골적인 반감을 표현하고 딸은 어색한 분위기에 완전히 위축되어버렸다. 쿠로다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면서 오노는 급격하게 자기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오노는 자기의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모르고 있지 않다”고 고백한다(123). 이 때 오노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이토가 “학생이 학습내용 암기를 계속하기를 기다리는 선생” 같다고 묘사한다(123). 이는 이 소설이 다루는 주요한 관계 중 하나인 스승과 제자 관계를 고려한 표현이다. 오노는 지금 사돈이 될 사이토 앞에서 학생처럼 과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고 있다. 아버지, 마케다, 오노의 학생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관계를 청산했던 오노가 이 자리에서는 유순한 학생처럼 그토록 부정하려던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선택도 결국은 이전의 사제관계에서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다.

상견례 장에서 스승 앞에 선 학생처럼, 오노는 자기의 과거의 오류를 기꺼이 인정한다. 그리고 오노는 그 당시에 “내 동포들을 위한 선을 성취하고 있다”는 신념에서 진정성 있게 행동했다고 부연설명 한다(123-4). 과거 행동에 대한 오노의 갑작스런 사죄로 분위기가 급반전해서 상견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딸은 결혼에 성공한다. 딸의 결혼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뒤, 과거에 대한 오노의 서사는 방향을 전환하여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한다. 그는 과거의 “실수들”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만족과 위엄”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124-5). 그리고서 그는 “최선의 신념을 품고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크게 수치스러울 필요가 없다”고까지 주장한다(125). 거기에 더해 오노는 과거를 인정한 자기와 교사 자리를 얻기 위해 과거에 그와 의견충돌로 불화한 경험을 확인하려 한 신타로와 대비시키고 자기의 우월함을 내세운다. 오노는 신타로 같은 사람은 “어떤 것을 하기 싫을 때면, 그들이 그것을 어찌할 바 모르게 잊었다고 가장하고 모든 것을 용서 받는다”고 말하여 그의 용기있는 인정과 사죄를 강조한다(125). 여기서 신타로는 그의 제자였고 최근까지 오노가 찬사를 보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오노가 신타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지점이 다른 사람에게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점인데, 그 비난은 옳이 자신을 향해서도 유효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는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상견례 자리에서 연출된 사죄와 용서, 화해의 과정은 몇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일단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오노의 사죄가 진실한 참회를 동반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게 한다. 오노 자신이 신타로에 대해 비난한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입장을 변경한 행동으로 보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노는 자기 행동의 동기가 선의였다는 점을 들어 변명을 시도했다. 사죄의 첫 번째 실질적인 목적인 딸의 결혼을 성사시킨 뒤, 오노는 여전히 자신의 변화를 정당화하고, 도덕적 우월성을 잃지 않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서사 만들기를 시도한다. 이는 참회 이후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을 설명하며,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그리스월드의 용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태도이다. 무엇보다 오노의 사죄는 직접적 피해자 앞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된

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서사화하면서 가장 감추고 싶었던 사건은 쿠로다를 경찰에 밀고해 옥살이를 하게 만든 일이다. 하지만 오노는 쿠로다를 직접 만나서 사죄하지도 않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러 찾아갔을 때 쿠로다의 제자 엔치가 표출하는 분노에 대해서는 그가 너무 어려서 "보기보다 훨씬 복잡한"(113) 사건을 단순화하고 감정을 표출한다고 자기 변론을 시도했다. 쿠로다를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되었을 경우 오노가 어떤 태도를 보였을지는 알 수 없지만, 엔치에게 대응한 방식을 보면 쿠로다에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오노는 그의 행동으로 직접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쿠로다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딸의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만 사과를 한 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서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신타로가 교사 자리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고 그에게 찾아와서 둘 사이에 있었던 불화에 대해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방문이 노리코의 상견례 바로 며칠 뒤에" 일어났다는 점이다.(105) 결국 오노는 그의 반성과 변신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신타로의 행동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강변한 것이다. 이러한 그에게 그가 선전했던 군국주의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식민지와 점령지 백성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죄의식과 책임감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 소설이 과거에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한 노인의 고집스런 자기 정당화를 재현한다고 하지만, 서사가 전개되는 시간과 다루는 소재가 여러모로 민감하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서사의 전개과정과 결말은 큰 문제성을 드러낸다. 미우라(Masashi Miura)의 말처럼, "이 소설은 우리에게 혼란과 이질감을 남긴다. [...] 이야기는 노리코의 결혼으로 마무리 되지만 서사는 그것이 제시하는 문제들에 대한 어떤 답변도 제공하지 않고서 끝난다. 책이 끝날 무렵에, 오노는 '우리[오노와 그의 멘토 마츠다]는 우리가 무엇을 했던 당시에는 최상의 신념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만족한다'고 말하면서 과거를 회상한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그들은 무슨 신념을 소유했냐이다"(Shibata 28, 재인용). 이 소설에서는 오노가 지지한 군국주의가 여러 신념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너무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코스티건의 주장처럼 "이시구로가 '선택과 책임'이라는 핵심문제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한 잘못이 있다"는 비난은 정당해 보인다(Shibata 29, 재인용).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소설의 주인공 오노의 태도는 전후 일본인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알레고리 볼 수 있다. 핑커가 경험한 것처럼 군국주의 광풍이 휩쓸던 시기를 적극적으로 망각하거나, 새로운 대체서사를 만들어내려 하는 현대 일본의 태도가 오노의 그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쿠로사와 아키라(Akira Kurosawa)가 팔월의 랩소디(*Rhapsody in August* 1991)를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는 지운 채 핵폭탄 투하의 잔인성을 강조한 서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전후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피해자로서 일본이란 서사의 변주로 이 소설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

이 소설에서 일본 외부와의 관계는 점령군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두드러진다. 일본이 점령한 만주국에서 전사한 젊은이들에 대해 간간히 언급되지만 주된 외부의 존재는 미국이고 일본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미국의 영향에 대응하는 방식이 주된 외부와의 관계로 그려진다. 이런 면모는 오노가 손자 이치로의 미국문화 선호에 대해 거부감을 표한 대목에서 드러났다. 또한 그가 젊은이들이 미국식 기업문화와 경영을 더 선호하는 데에 이질감을 갖는 데에서도 표현된다. 기업경영에서 과거의 관행을 제거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이 오노의 눈에는 "일본이 낯선 어른한테 배우는 작은 아이처럼" 보인다(185). 하지만 세치코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와 같은 예를 포함하여 "미국인들은 [일본을] 가르칠 것이 엄청 많다"고 답변을 하여 젊은 사람들의 견해를 표현한다(185). 그리고 그녀는 일본이 "4년 동안의 혼란 후에 드디어 미래를 향해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한 남편 수이치의 말을 전한다(186). 딸의 결혼을 계기로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려고만 했던 태도를 수정한 오노는 젊은 세대가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

그의 관점 변화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공원에 앉아 점심시간에 회사를 나서는 젊은이들이 보이는 "낙관주의와 열정"을 보고 미소를 짓는 것으로 표현된다(205). 그는 몇 년 사이에 도시가 재건되고 많은 것들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찬다"(206). 그리고 오노는 "우리나라는 과거에 무슨 실수를 했을지언정, 현재 상황을 더 낫게 만들 다른 기회를 갖고 있어 보인다. 우리는 이 젊은이들이 잘 되기를 빌 뿐이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기록한다(206). 이 마지막 장면은 오노의 과거와 일본의 과거를 겹쳐놓는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서 개인으로서 오노가 자신의 과거를 은폐하고 왜곡하려 한 시도는 국가로서 일본의

그것과 연결된다. 젊은이들의 새로운 출발이 좋은 결과를 내기를 비는 염원에 일본제국에 피해를 입은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은 고려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빠른 회복과 재건에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이 큰 기여를 했다는 역사적 맥락을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지배에서 배우고 변화에 적응한 결과로만 축소시키고 있다. 과거의 과오를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바라보고 다시 안정된 번영의 길로 접어드는 국가의 미래를 기원하는 태도는 식민지배 피해국들에 대한 사죄가 없이 미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오노가 대표하는 군국주의 일본이 품고 있었던 강력한 국가에 대한 염원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읽힌다. 라이트가 쿠로다에 대한 오노의 태도에 대해 “[자신의] 행동이 일어난 폭넓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오노는 그 행동들의 파장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노골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고 한 주장은 국가로서 일본이 전후에 보였던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도 적절해 보인다(77). 오노가 품었던 신념의 영향은 수많은 일본 외부의 사람들에게 처참한 영향을 미쳤지만 이 소설에서는 그런 역사적 맥락은 고려되지 않아 일본 밖에 살면서 그 신념의 영향으로 고통 받은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 소속의 독자에게는 작품을 읽기가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고 만다.

IV. 결 론

시바타와 수가노(Motoyuki Shibata & Motoko Sugano)는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을 일본어로 번역한 토비타(Shigeo Tobita)가 이시구로와 협의하여 일본어 번역본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부분 중 수기무라가 공원을 개발하면서 그 곳에 세웠던 ‘타이쇼 천황’(Emperor Taisho)의 동상 대신에 ‘야마구치 시장’(Mayor Yamaguchi)의 동상으로 바꾸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이 수정이 수기무라가 개발하던 “카와베 공원”(Kawabe Park)의 역사적 맥락을 천황에 대한 기념에서 모호한 정치경력을 가진 전직 시장에 대한 기념과 연관된 장소로 변형한 효과”를 낸다고 지적한다(29). 한 걸을 더 나아가 그들은 이 수정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직접 다룰 가능성을 제거한다”고 주장한다(29). 오노가 자신의 서사의 시작을 수기무라의 집을 명망 경매를 통해 구입한 사실로 시작을 하고 카와베 공원을 만들던 수기무라를 “야망 때문에 재산을 잃고 실패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을 넘어서고, 보통보다 뛰어난 중요한 인물이 되려고 열망했다는 점에서 존경을 받을만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자신과 수기무라를 대등하게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134). 비극적 영웅인 수기무라처럼 자신도 평범함을 뛰어넘어 거대한 성취를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하고 실패했다는 서사를 자신의 과거에 덧씌우기 위한 시도이다. 그런데 그 영웅 수기무라가 군국주의를 위해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은 그 행위의 목표를 문체적으로 만든다. 이런 이유로 일본어 번역판에서는 수기무라의 행적의 일부를 지우려 했다는 것이다. 일본 독자들에게는 훨씬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어 번역판에서 역사적 맥락을 흐리게 만들어 정치적인 민감성을 제거한 방식은 소설 전체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은 국가에 대한 언급을 완벽히 제거한 방식의 반복이다. 이러한 서사의 전개가 군국주의자 오노의 개인적인 자기정당화 서사를 강조하기 위한 시도이고,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과거 미화와 부정을 알레고리로 표현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가해자의 사죄의 회피와 정당화만이 기술된 작품을 읽기가 피지배 국가의 구성원에게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고 만다. 그런 점에서 이시구로가 이 작품에서 작가로서 보인 윤리적 감수성은 2014년 맨 부커상(Man Booker Prize) 수상작 『북쪽 오지로 난 좁은 길』(*The Narrow Road to the Deep North*)에서 일본군 소속으로 포로들에게 잔혹행위를 한 한국인 최상민의 과거와 위안부로 끌려간 그의 누이까지 소개한 리처드 플레니건(Richard Flanagan)의 그것과 현저한 대비가 된다.

신데렐라의 사악한 계모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담론

이건근 · 김기영(조선대학교)

I. 신데렐라와 계모의 관계에 대한 의문점

신데렐라 부류의 픽션과 영화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작품들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에 나타난 신데렐라 콤플렉스 현상을 여성학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의붓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다룬 신데렐라 이펙트 개념은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다. 이 발표논문은 그림 형제의 전설을 비롯한 여러 문학작품들 그리고 영화에서 의붓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반목하는 가운데 계모가 유독, 그리고 거의 언제나 사악하게 묘사되는 현상과 그 이유 그리고 이론적 한계를 논한다.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그 이론적 범위를 신데렐라 이펙트의 용어를 만들어낸 진화심리학과 그림형제의 전설에 등장하는 사악한 계모에 대한 해외연구에 국한하기로 한다. 이 글은 필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의붓 가정 내 현상에 대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적 연구의 전단계로서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사악한 계모의 전설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서 논의하는데 취지가 있다.

한 가정 안에 친자식과 의붓 자식이 공존할 경우 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의붓자식이 차별을 받는 현상을 일명 신데렐라 이펙트라고 부른다. 왜 하필 '신데렐라 이펙트'가 전래동화들의 내용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낯익은 이야기들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독일의 그림 형제(Brothers Grimm, Jacob and Wilhelm Grimm, 1785-1863/1786-1859)가 유럽 전역에서 구전되는 민담을 수집하여 1812년 『아동과 가족 이야기들』(*Children's and Household Tales/Kinder und Hausmärchen*)이라는 동화집을 출간했는데 이 동화집에는 신데렐라,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등과 같이, 사악한 계모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계모를 마녀에 버금갈 만큼 사악한 존재로 묘사하고, 그 희생자가 되는 아이들을 상대적으로 그녀의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는 영웅들로 그리고 있다(Tatar 141).

혼합가족에서의 불행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작금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여성에 대한 선입견의 해소를 강조하는 현대 페미니즘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영미권 문학과 영상물 그리고 선행연구들의 경향이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비해서 이펙트 현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점이 흥미롭다. 동화가 아닌 현실세계와 다르게 문학작품에서 계모가 계부에 비해서 훨씬 더 사악한 존재로 비추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인문과 사회 그리고 자연과학적 심리학의 융합적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다음에서 필자들은 이 계열의 선행연구들의 대강을 소개하면서 계모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을 지적할 것이고, 계모가 가진 역할의 어려움을 영화 <스텝맘>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더하여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이 글의 논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II. 그림형제 동화의 사악한 계모에 대한 신데렐라 이펙트 담론

터커(Nicholas Tucker)는 그의 글 「그림의 사악한 계모들」("The Grimms' Wicked Stepmothers", 2000)에서 저술 당시까지 10년 동안 영국에서 유기아동의 수가 3배 증가했지만, 어머니의 가혹행위는 훨씬 감소된 상태라고 말한다(49). 이 통계치는 진화심리학자 델리(Martin Daly)와 윌슨(Margo Wilson) 부부가 계부와 계모를 특히 구별하지 않지만, 계모의 악행이 현저하다고 주장한 것과 충돌된다. 터커에 따르면 사악한 계모에 대한 편견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다만 문학작품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계부를 악역으로 할 때보다 더 흥미로운 픽션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사악한 계부의 폭력성은 동화의 독자인 아동들에게 아니면 동심을 버리지 않은 어른들에게도 너무나 큰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을 만큼 실제에 가까워 극적 요소를 잃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사실 친부모에 의한 아동폭행의 건수가 의붓부모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사회가 이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평가한 반면 유독 계모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의 견해는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문학작품에서 잔인한 행위를 일삼고 결국 댓가를 치르게 되는 사람은 항상 계모이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계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내의 행위에 대해 방관하거나 동조한 아버지 에 대한 처벌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다시 말해서 동화에 등장한 혼합가족의 일반적인 형태는 친부와 계모이며, 여성은 구체적인 악행을 범하고, 남성은 그것을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정도에 머문다. 이러한 경향은 특이하게도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누구에게나 친숙한 『장화홍련전』을 예로 들면, 장화와 홍련의 친모가 사망하자, 친부 배무룡은 후처의 말에 따라 친딸 장화의 살인에 가담한다. 나중에 그 죄가 드러나 단죄를 받게 되었을 때 후처와 그 아들 장쇠는 사형에 처해지나 아버지는 훈방 후 풀려난다. 아버지를 처벌하게 되면 가부장제의 틀이 와해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동서양 어느 사회에서나 아버지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대신 계모에 대한 단죄가 행해졌을 뿐이다. 그리고 그 처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라도 계모들의 잘못과 악행은 과장되어 묘사되고 서술되어 왔다고 본다.

계모의 사악함에 대한 이와 같은 일반적 편견은 어쩌면 하나의 문화적 유전자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친부모 가정이 아닌, 사별이나 이혼 그리고 재혼으로 인해 구성된 의붓가족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은 문학이나 영화에서 빈번히 다뤄지는 소재였다. 진정한 애정 없이 의무감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이라는, 계모에 대한 막연한 편견은 매우 강력하다. 필자들 중 한 명이 무기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계모라는 단어는 '믿을 수 없는', '욕심 많은', '잔인한', '음탕한' 등의 부정적인 형용사를 연상케 한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Oxford 사전에서 'stepmotherly'를 찾아보면 그 정의가 '냉혹하며 태만한'(harsh and neglectful)이라고 표기되어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흔히 쓰이는 욕설인 'bastard'의 사전적 정의에는 '개자식'이라는 의미와 함께 '서출'이라는 의미도 있다. 의붓자식은 가족의 핵심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결핍된 존재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현상에 관한 인접 학문으로서 진화심리학은 다윈의 성선택설 즉 모든 동물은 자신의 유전자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진화론에 기초한 생물학적 발견을 유전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사회과학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20세기 신생학문이다. 틴버건(Nikolaas Tinbergen)과 로렌츠(Konrad Lorenz) 그리고 프리쉬(Karl von Frisch) 등 생물학자들이 1930년대에 이 분야를 개척한 후 해밀턴(W. D. Hamilton)과 윌슨(Edward O. Wilson)이 1960/1970년대에 사회학적 맥락으로 발전시키더니 델리(Martin Daly)와 윌슨(Margo Wilson)이 1998년에 『신데렐라의 진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다윈의 관점』(*The Truth about Cinderella: A Darwinian View of Parental Love*)에서 '신데렐라 이펙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신데렐라 이펙트는 성선택설보다 12년 앞서 주장된 다윈의 명저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 1859)에 기초한 혈족선택설(kin selection)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혈족선택이란 부모가 자신이 누릴 혜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성향으로서 친형제나 사촌 형제를 포함한 모든 혈족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1930년에 피셔(R. A. Fisher)와 1932년에 할데인(J. B. S. Haldane)이 수학적인 통계를 통해 혈족선택이 인간의 삶에도 적용됨을 밝힌 후 이 개념은 전체 혈족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응도(inclusive fitness)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 혈족선택설은 자연번식은 물론이고, 함께 거주한 결과 생성된 친밀감을 포함함으로써 자연선택이 집단 단위로 행해지는 현상과 구별된다. 그런데, 이 개념은 흥미롭게 의붓부모가 자신의 혈족관계에 따라 자식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데렐라의 계모는 사악하다기보다 그저 그녀의 친자식을 더 사랑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델리와 윌슨은 혈족 선택의 범위에 입양과 의붓가족의 형태로 맺어진 친분관계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생물학적 유대감이 훨씬 더 우선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랑구르 원숭이와 사자, 곤충, 조류 등의 혼합가족 형태와 행동을 관찰한 수많은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미국인간협회"(American Humane Association)가 작성한 2만 건이 넘는 미국 내 아동폭행 보고서에서 얻은 통계자료와 일치함을 발견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의붓부모의 가학성이 친부모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물론 이 관찰은 동물들이 의붓자식을 돌보는 경우로서 그것이 인간에게 적용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로 남

지만, 델리와 윌슨은 다른 전문가들이 아직 “유전과 의붓가족관계의 연관성”에 대한 실마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질(David Gil)이 아동학대 가정 중 22 퍼센트가 혼합가족임을 발견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Daly and Wilson 21). 그들은 의붓 부모들이 “의붓 자식들을 진심으로 (친부모와 비교해서) 사랑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Ibid. 22)을 지적하면서, 친모가 재혼한 남편이 원하는 정도보다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그녀의 친자식에게 투자하기를 원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한다. 그들에 따르면, 원 부모 가정에서 자녀의 존재가 부모의 이혼율을 감소시킨 반면 재혼가정에서는 자녀의 존재가 이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진화론적 추론이 실제사실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Ibid. 24-25).

이와 관련하여 이경옥은 의붓부모 설정을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접근하여 “동화에서 계모나 계부의 존재는 친부모를 사랑하는 아이의 감정을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가 친부모에게 적대심을 느낄 때 수반되는 죄의식을 덜어주는 방편이다”(288)라고 주장한다. 비슷한 의견으로서 칼 융의 이론을 지지하는 폰 북홀츠(Von Buchholtz)는 동화는 집단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얘기한다. 백설공주와 계모왕비는 한 인간의 내면에 공존하는, 상호 대립적인 심리개념이라는 것이다: “개인적 또는 집단적 무의식에서 근원적인 메시지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 . . . 부정적인 여성성은 보편적인 인간감정의 한 요소인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Von Buchholtz 8).

하지만, 진화심리학이외에 다른 대부분 심리학 전문가들은 계모의 사악함에 대한 편견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를 아직도 명쾌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의붓부모에 대해 예외 없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고불변의 진리로 통하게 된 배경과 파급효과, 아울러 기존의 계모상에서 탈피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인물 유형을 제시하는 바는 단지 소설과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계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 이야기로서 『신데렐라』는 물론이고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와 『헨젤과 그레텔』과 같은 동화는 혼합가족이 원 가족보다 더 많아지는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사회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이 여전히 아이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이 부류의 동화들은 오랜 세월 서양에서 구전되어 오다가 19세기 독일의 언어학자이자 동화작가인 그림형제(Jacob Grimm and Wilhelm Grimm)에 의해서 『어린이와 가족 이야기』(*Kinder und Hausmaerchen*)로 발간되었다. 특히 200여 편의 방대한 이야기 속에 유독 계모로 인해 고통을 받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많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동화들 이외에 다른 사례들은 『진짜신부』(*The True Sweetheart*), 『노간주나무』(*The Juniper Tree*), 『여섯 마리 백조』(*The Six Swans*), 『하얀 신부와 까만 신부』(*The White Bride and the Black Bride*), 『어린양과 물고기』(*Little lamb and Little Fish*), 『열두 형제』(*The Twelve Brothers*), 『오누이』(*Little Brother and Little Sister*), 『숲 속의 세 난쟁이』(*The Three Little Men in the Forest*), 『홀레 부인』(*Mother Holle*), 『애인 롤란트』(*Sweetheart Roland*), 『외눈박이, 두눈박이, 세눈박이』(*One-Eye, Two-Eyes, and Three-Eyes*)와 같은 동화들이다.

그런데 1857년에 제7차 개정판으로 출간된 이 동화집은 총 211편의 동화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에 등장하는 왕비가 초판본에서는 백설공주의 친엄마였던 것이 제2차 개정판부터는 계모로 수정되었다. 『헨젤과 그레텔』도 또한 초판본에서는 아이들의 엄마가 친엄마였던 것이 개정 이후 계모로 변경되었다. 이외에 아이들과 부모가 가정에서 함께 동화집을 읽을 것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잔인한 부분이 온건하게 수정되었다. 이에 대해서 터커는 친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인류에 위배되기에 그러한 내용을 접하는 성인들과 아이들 모두가 느낄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그리고 반인륜적인 내용은 민족적인 자긍심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기에 그림 형제는 친모를 계모로 수정했다고 추론한다(43). 사실 『헨젤과 그레텔』의 원래 이야기에서는 친모가 주동하고 친부가 동조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궁핍을 극복하기 위해 친자식들인 헨젤과 그레텔을 숲속에 유기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그 친모가 계모로 둔갑한 것이다(Silver 11-12). 즉 사악한 계모는 불량한 친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새롭게 추가된 것이 된다.

그런데, 이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림동화집에 계부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한 편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의 유일한 예외로 일컬어지는 『당나귀 가족』에서 딸과 결혼하고자 했던 왕마져 친부이지 계부가 아닌 것을 감안하면, 그림형제 동화집에 사악한 의붓 부모로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계모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200여 년 동안 계속 되었다. 심지어 21세기 동화 픽션물들에서 나쁜 아버지 역으로 등장하는 경우마저도 사실 계부로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예를 들어 『해리포터』의 악역 더슬리 씨는

주인공의 삼촌이고, 레모니 스니킷(Lemony Snickett)의 올라프 백작은 보들레르 고아들의 보호자에 불과하다. 또한 필립 풀만(Philip Pullman) 삼부작에서 아스라엘(Asrael)은 피해자 리라(Lyra)의 삼촌이다. 17세기 프랑스의 동화 작가 페로(Perrault)까지 거슬러가지 않더라도 인류의 근현대 동화들에서 주인공의 어머니와 결혼한 사악한 계부가 등장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현상의 첫 번째 이유는 여성이 출산 중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근대 이전 열악한 의료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이 저술되던 시기까지 “유럽과 미국의 의붓가족은 부모의 이혼보다 친모의 죽음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많았다. . . . (그리고) 홀아비가 된 친부들은 그들의 친모를 대신할 수 있는 여성과 재혼해서 그들을 돌보도록 했다”(Martin 61). 그만큼 아이들에게 전혀 또는 얼마 보지 못했던 친모는 영원히 선한 여성으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즉 죽은 친모는 “성스럽고, 긍정적인 속성으로 19세기 모범적인 여성성에 부합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바람에 “그녀의 잘못 때문에 비난받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Schmiesing 347-48).

조기에 사망함으로써 이야기 속 비중이 낮은 친모에 비해 계모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그리고 의붓 자녀들을 학대하고 해치려는 계모의 의도와 행동으로 인해 사건이 진행되고 줄거리가 전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형적인 계모는 죄의식 없이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자신의 계락을 저돌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이에 반해 친부는 우유부단하고 아둔하여 그녀의 속내를 감지하지 못한다. ‘친모’ vs. ‘계모’ vs. ‘친부’로 구성된 삼각 구도 안에서 친부모와 각각 대조되는 언행을 일삼는 계모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극대화된다. 린던노어(Leslie J. Lindenauer)는 17세기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유행했던 ‘마녀’ 논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그러들고 이에 대한 대체적인 개념으로 ‘계모’가 등장한 만큼 계모의 이미지는 ‘마녀’의 이미지와 필연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1). 이렇듯이 문학에서 친모는 아이들에게 여러 경로와 계기를 통해 해로운 존재라는 보편적 인식의 대상이 되었다.

사악한 계모가 유행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계부로 등장하는 남성은 동화의 수준에 비해 너무나 커다란 공포감을 연상시킴에 따라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졌다는 것이다. 사실 현실세계에서는 계부가 계모보다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터커는 델리와 윌슨의 통계에 기초하여 “오늘날 의붓자식이 직면한 위험들은 계모들이 아니고 사악한 계부들로부터 발생하고, . . .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는 남성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행해진다”고 말한다(46). 이러한 놀라운 통계조사에도 불구하고 헤더링턴(Mavis Hetherington)이 30년간 1400여 의붓 가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자녀들이 계부를 고마운 존재로 여기는 반면 계모와의 관계는 일종의 시련으로 여긴다는 점을 파악하였다(Silver 24). 『햄릿』의 클라우디우스는 주인공의 삼촌이자 계부로서 무심한 아내 겔트루드와 공모함이 없이 악행을 범하지만,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이 이 이야기의 중심소재라는 점에서 이 부류 동화와 다르다.

세 번째 이유로서 계부는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설령 사악하더라도 주인공인 아이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존재인 반면, 계모는 의붓자녀와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친부의 재산을 심각하게 감소시키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신데렐라의 친부는 죽거나, 자식의 문제를 방관하는 무심한 어른으로 등장한 것에 보듯이 가족의 경제적인 주도권을 계모가 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신의 친자식들을 동반한 계모의 존재는 의붓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유산을 가로채는 무리들이 된다. 여기에 더하여 대부분 재혼녀들은 원래의 남편과 이혼을 했거나 사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신적 외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한편 의붓자식과 좀 더 떨어진 상태에서 느리게 친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계부와 반대로 계모는 새로운 자식과 친해보려는 급한 마음에서 자칫 과도한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친모가 있거나 최근에 사망한 경우 아이들은 계모에 대해 방어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여기에 이혼한 친모의 역할이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하다.

Ⅲ. 계모가 극복해야할 성별간 이미지의 불균형 해소 노력

범패스(Larry Bumpass)와 스위트(James Sweet)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 삼분의 일이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이며, 18세가 되기 전까지 절반이상의 아동들이 양부모 중 한 사람하고만 거주하고 있다(256). 미국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매년 1300 개의 혼합가족이 생겨나고 있

으며, 미국 가족의 절반 이상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 중 66%가 다시 이혼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자녀문제가 절대적이다. 더하여 13세 이하 아동의 절반이 의붓부모와 살고 있다(Step Family Foundation). 대한민국의 경우 재혼과 혼합가정에 대한 통계자료가 미미한 상태이고, 단지 “이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김경신 7)는 이론적인 논의가 있을 뿐이다. 다만 2017년 통계청자료에서 남녀 모두가 초혼인 경우가 전체 혼인의 77.9%인 것으로 발표한 바를 감안하면, 나머지 22.1%는 적어도 한 쪽이 재혼한 사람이고, 그만큼 적지 않은 가정에 계부모가 존재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계부모의 입장에서 계부보다 더 많은 비율의 계모들이 자신들의 역할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계모로서 요구되는 역할이나 기대치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상적인 롤모델도 찾아보기 힘들며 첫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보다 이상적인 가정으로 간주하는 사회의 편견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편견은 재혼가정에서 계모 역할을 맡게 된 여성들에게는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배우자의 감정적인 지원이나 배려가 부족할 경우 그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은 자명하다(Hoffman 4). 그리고 의붓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계모와의 유대가 깊어질수록 친모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친모와 결속을 유지할 위해 계모에게는 의도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기도 한다. 마틴은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과의 관계는 70 퍼센트 이상 실패로 끝난다는 조사내용을 밝힌 바 있다(1).

이와 같은 사회현실에서 두드러진 신데렐라 이펙트 현상은 그동안 동화에 기초한 영화에서 더욱 많이 보여진다. 1950년 디즈니사에서 제작된 『신데렐라』를 필두로 페로와 그림형제 동화를 내용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제작되기 시작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었으나 계모의 사악한 이미지는 어느 경우에서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어린이들은 애니메이션 영화 속 계모의 언행을 특정 개인이 아닌 일반적 특성으로 이해하는 바람에 엘리슨은 “사악한 계모에 대한 민담을 듣는 것이 아동이 가진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윤색할 것이라는 데 의심이 있을 수 없다. 불행스럽게도 대부분의 민담은 계모들에게 좀 더 희망적인 그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27-28).

그러던 것이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림동화 원전 내용에 대해 파격적으로 수정이 가해졌다. 이는 변화된 의식과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서 급증하는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가족과 가정이 생겨났음을 반영한다. 그리하여 복합가정에서 살아가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삶을 조명하는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컬럼버스 감독의(Chris Columbus)의 『스텝맘』(Stepmom, 1998)이다. 『스텝맘』은 롭(Maggie Robb)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서 『미세스 아웃파이어』(Mrs. Doubtfire, 1993)로 유명한 크리스 감독은 『스텝맘』을 통해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 형성된 의붓 가정사를 현실감 있게 그리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두 아이들을 키우는 이혼남과 사랑에 빠진 여성이 상대 남성의 가정에 들어와 새엄마 역할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고충과 소외감이 잘 표현되고 있다. 영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프로 사진작가인 이사벨(Isabel)은 약혼자 루크(Luke)와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지만 그녀의 노력은 친엄마 재키(Jackie)의 교묘한 방해와 아이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 때 동화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계모상이 실제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이사벨의 대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녀는 “동화에 나오는 새엄마들은 왜 다들 험상궂게 생겼지?”라고 얘기한다. 계모 이사벨의 진심 어린 노력으로 아이들은 점차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지만 친엄마를 생각하면 아이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다. 아들 벤은 엄마가 원하면 새엄마를 미워하겠노라고 엄마 재키에게 말한다: “If you want me to hate her, I will.” 친엄마 재키는 아이들을 위한 이사벨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기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 그녀에 관한 험담을 늘어놓기도 한다. 그러던 중 자신이 예전에 아들 벤에게 불러주곤 하던 노래를 이사벨이 병원에 누워있는 벤을 간호하며 부르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재키는 충격을 받는다. 의붓 관계이긴 하나 아이들과 이사벨과의 관계에서도 친밀감과 애정이 싹트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게 된 재키는 이사벨에 대한 질투와 증오를 거두기로 한다. 본인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는 이사벨에게 “나는 아이들과의 과거를 가졌으니 당신은 아이들의 미래를 가져요” 라는 말로 그녀를 격려한다. 아빠와 아이들, 친엄마, 그리고 새엄마 모두가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

에서 영화는 끝이 난다. 모두가 함께한 가족사진은 기존의 동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영화들은 동화에 기초한 계모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긍정적인 계모상을 제시함으로써 양극화를 지양하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에 기여했다고 본다. 사실 이러한 예는 실제 상황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그의 계모인 사라 링컨(Sarah Lincoln)에 의해 양육되었다. 사라는 첫 결혼으로 얻은 세 명의 아이가 있음에도 링컨을 비롯한 의붓자녀들을 차별하지 않고 양육한 것으로 유명하다. “여러 서적과 잡지 그리고 신문들이 그녀가 전형적인 계모의 사악한 모습과 정반대의 여성이었음을 말해주는 속성들을 강조했다”(Lindenauer 11). 그렇다면 이처럼 의붓자식을 친자식 이상의 애정과 헌신으로 양육한 계모의 사례에 대해 다윈의 진화론과 그것에 기초한 심리학은 어떻게 답을 내려야 하는지가 의심스럽다. 분명한 것은 일률적일 수 없어서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문화가 픽션과 영화를 통해 그 양태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IV. 신데렐라 이펙트에 대한 담론과 새로운 연구방향

의붓가족내 불화를 의미하는 신데렐라 이펙트와 계모가 계부보다 양적으로 훨씬 많이 질적으로 더 사악하게 작품화되어온 문화현상은 진화심리학자들이 약 100년에 걸쳐 연구해온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과 집단이 자신의 유전자의 보존을 위해 타자의 것을 파괴하는 동물들의 생식본능을 강조한 그들의 이론은 계부의 폭행이 계모의 경우보다 극악한 것임에도 유독 계모를 더욱 사악한 의붓부모로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그림버전의 신데렐라 부류의 이야기들은 아직도 영미사회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착하고 약한 여성성을 대변하는 페로버전의 그것들보다 가부장적 입장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신데렐라 이펙트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Lee 52-53). 또한 대부분 나라의 전설들에서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계모와 의붓자식 특히 딸의 동성간 경쟁과 폭력성은 그동안 다윈의 혈연선택설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했다. 즉 계모의 사악함은 그녀의 친자식이 있을 때 거기에 의붓자식과 동성인 경우 그 정도를 더한다는 점에서 이 진화론적 지식이 유용하다.

하지만, 다윈이 “자연선택과 성선택의 효과를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성선택적 요소들이 “양성의 의지와 선택 그리고 개인들의 경쟁심에 의존한다고”(Darwin 257) 말한 것은 적어도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에게는 종족보존의 범위가 자기 자신에서부터 친족 또는 같은 가구를 형성하는 집단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여기에 핵가족화를 넘어서 원자화되어가는 21세기 이 시대에 남성과 여성의 기능분화는 과거처럼 위력을 가지지 않음은 결혼기피와 이혼의 증가 그리고 혼합가족과 같은 선택적 친족관계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의붓부모의 폭행빈도를 강조한 델리와 윌슨의 말처럼 “대부분의 의붓부모들도 상대 배우자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의붓자식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다”(Owens). 다만, 친부모들에 비해서 그 정성의 정도가 매우 덜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울리히 벡(Ulrich Beck)이 말하는 성찰적 근대화가 덜 완성된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전통은 계부보다 계모가 더 사악할 것이라는 막연한 고정관념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을 버린 부적절한 친모나 무관심한 친부보다 모사를 꾸미는 계모가 비난의 대상으로 훨씬 적합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림 버전에서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친자식의 억울함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독자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악역으로 분한 계모의 역할은 신데렐라보다 더 인기가 있는 배역으로 여겨지고 있음이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작품에서의 비중과 아동교화의 반작용으로서 계모가 가진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데렐라 이펙트의 한 현상으로서 사악한 계모상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가 주는 가치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은 차치하고, 이 시대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양상과 성적 편견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작품에 나타난 창작자의 생각을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서 측정 가능한 사회/자연과학적 변수들을 인문학적으로 재분석하는 양/질적 방법론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기존의 문이론을 중심으로 하되 진화론적 생물학과 심리학 그리고 사회통계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인문학적 요소가 그동안 사회현실과 거리가 먼 추상적 단계에

있다는 잘못된 시각을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신데렐라 전설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동서양 어느 장소에서도 발견되는 인류문화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너무나 변해버린 현대의 삶에서 시의적으로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시도는 현대문명의 위기를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인 용 문 헌

- 김경신. 「한국가족의 변화와 다양성: 정책적 제언」. 『생활과학연구』 21 (2011): 1-13.
- 그림, 제이콥·빌헬름 그림(Grimm, Jacob & Wilhelm Grimm). 『그림형제 민담집: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 김경연 옮김. 서울: 현암사 (2012).
- 이경옥. 「『세 개의 무덤』과 『백설공주』 비교연구: 오이디푸스적 갈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연구』 52.4 (2010): 285-301.
- Bettleheim, Bruno. *The Uses of Enchantment: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Fairy Tales*. New York: Alfred A. Knopf, 1985.
- Bumpass, Larry and James Sweet. "Children's Experience in Single-Parent Families: Implications of Cohabitation and Marital Transition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Nov.-Dec. 21.6 (1989): 256-360.
- Christian, Allison. "Contesting The Myth Of The 'Wicked Stepmother': Narrative Analysis Of An Online Stepfamily Support Group."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69.1 (2005): 27-47.
- Daly, Martin. *The Truth About Cinderella*. New Haven and London: Yale UP, 1998.
- Darwin, Charles. *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 Vol. 1. 1871. London: Wordsworth Classics of World Literature, 2013.
- Diamond, Jared. *Why is sex fun? : the evolution of human sexuality*, 2005.
- Hoffman, Rose Marie. "Why Is Stepmothering More Difficult Than Stepfathering?" *National Stepfamily Resource Center*. n.d. 1995. Web. 20 Jan. 2018.
- Lee, Geongeun. "On the Two Syndromes and the Two Selections around Hollywood Cinderella-Themed Films." *The Mira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2.4 (2017): 45-65.
- Lindenauer, Leslie. *I Could Not Call Her Mother: The Stepmother in American Popular Culture, (1750-1960)*. New York: Lexington Books, 2014.
- Martin, Wednesday. *Stepmonster*.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2009.
- Owens, Rudy. "The 'Cinderella Effect' and the Risks Posed by Stepparents to their Stepchildren." 7 June 2015. Web. 11 Jan. 2018.
- Schmiesing, Ann. "Mütter Und Anti-Mütter In Den Märchen Der Brüder Grimm. By Nathalie Blaha-Peillex. Tübingen: Tübinger Vereinigung für Volkskunde, 2008." *Marvels & Tales* 24.2 (2010): 347-350.
- Silver, Arielle A. *Wicked, Selfish, and Cruel: An Inquiry into the Stepmother Narrative*. Los Angeles: Antioch Univ. 2015.
- Step Family Foundation. "Stepfamily Statistics." *Step Family Foundation*. n.d. Web. 12 Feb. 2018. <<http://www.stepfamily.org/stepfamily-statistics.html>>.
- Tatar, Maria. *The Hard Facts of the Grimms' Fairy Tales*. Princeton: Princeton UP, 1987.
- Tucker, Nicholas. "The Grimms' Wicked Stepmothers." *Where Texts and Children Meet*. Eds. Eve Bearne, and Victor Watson. London: Routledge. 2000. 41-50.
- Von Buchholtz, Jutta. "Archetypal Patterns: Snow White—She Was Quite a Ninny, Wasn't She?!" *C. G. Jung Society of Atlanta*, Summer (2007): 5-10.

영화 『오만과 편견』을 활용한 영어 수업방안

서은미(호원대학교)

I. 서론

영상 매체의 활용은 영어 교육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상 자료가 진정성 있는 자료로서 교육적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명작 소설에 관한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화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을 활용해서 시네마 영어 수업에 활용한 사례를 제시하려고 한다. *Pride and Prejudice*는 1813년에 Jane Austen가 발표한 대표적인 고전 소설이다. 이 소설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는 여러 편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2005년에 만들어진 영화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영화를 통해서 19세기 영국 사회와 문화를 엿볼 수 있으며, 그 당시 사람들의 연애관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영국 시골 마을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가장 낭만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2.1.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영어 학습 방법

EFL 학생들에게 있어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작품에 관한 배경이나 즐거리를 파악한 후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영어 학습을 하는 것이다. 학습 자료에 관한 충분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영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네 가지의 능력을 의미한다. 첫째, 문법이나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는 문법, 언어적인 능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표현을 쓸 수 있는 능력인 사회학적인 능력, 그리고 전략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의 장점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많은 영어 전문가들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영상영어 학습법, 즉,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나 미국 드라마 또는 영국 드라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기를 추천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대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구어체이다. 영화나 드라마 속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벌어지는 대사를 익히면 실제 일상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나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북유럽 사람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화나 드라마를 자막이 없이 감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상 매체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은 우수한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2.2. 선행연구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 자료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공부하고 외우는 것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임미진, 2011)

Ⅲ. 영화를 활용한 의사소통 향상 수업 방안

3.1. 연구대상

2018년 1학기 시네마영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1주일에 3시간 수업으로 월요일에 2시간과 수요일에 1시간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수강 학생들은 4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3.2. 수업 방안

이 수업의 강의 교재는 본 연구자가 수업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 강의게시판에 게시했고, 별도의 다른 강의교재는 사용하지 않았다. 수업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 위키피디아나(Wikipedia), 아엠디비(IMdb) 등에서 영화에 관한 정보와 줄거리를 발췌해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였다. 영화의 줄거리를 영어로 공부하면서, 내용에 관해서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1. 유튜브 자료 활용

유튜브를 통해서 오디오 복이나 다양한 영상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 제인 오스틴과 *오만과 편견*에 관한 배경을 공부한 후, 학습 자료를 유인물로 준비해서 활용했다. 영어를 공부할 때 작품에 관한 배경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영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예고편에 나오는 대사를 공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예고편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시청하게 한 후, 예고편에 나오는 영어 표현을 공부했다.

예고편에 나오는 대화 내용을 여러 번 듣고 뜻을 파악한 후 학생들에게 연습하게 한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영어로 이야기 하게 한다. 여러 번 반복한 후, 역할을 바꾸어서 연습하도록 한다. 아래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 역할 놀이를 하는 방법이 있다.

Cliff Notes에서 읽기 자료를 선택한 후 수업 시간에 공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의 줄거리나 등장인물에 관한 묘사 등은 중요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영화의 대본에서 중요한 대사를 선택해서 수업 시간에 활용했다. 대사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의미를 파악하고, 받아쓰기 등의 활동을 하게 한다. 받아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은 듣기 연습뿐만 아니라 말하기 연습도 동시에 할 수 있다.

2. 유용한 표현 공부하기

유용한 표현들을 발췌해서 여러 번 읽고 문장 구조 파악하고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대화는 무도회에서 처음으로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의 오만을 보고 편견을 갖게 되는 장면이다.

Mr. Bingley: [overheard by Charlotte and Elizabeth] But her sister Elizabeth is very agreeable.

Mr. Darcy: Thoroughly tolerable, I dare say, but not handsome enough to tempt me. You'd better return to your partner and enjoy her smiles. You're wasting your time with me.

[the two men depart]

Charlotte Lucas: Count your blessings, Lizzy. If he liked you, you'd have to talk to him.

Elizabeth Bennet: Precisely. As it is I wouldn't dance with him for all of Darbyshire, let alone the miserable half.

다음은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와의 간단한 대화이다.

Elizabeth Bennet: Please, do be seated.

[no response]

Elizabeth Bennet: [silence] Mr and Mrs Collins have gone to the village.

Mr. Darcy: [nods and looks around the room] This is a charming house. I believe my aunt did a

great deal to it when Mr.Collins first arrived.

Elizabeth Bennet: I believe so. She could not have bestowed her kindness on a more grateful subject.

[more silence, neither one of them know what to say]

Elizabeth Bennet: Shall I call for some tea?

Mr. Darcy: No, thank you.

Mr. Darcy: Good day, Miss Elizabeth, it's been a pleasure.

[rushes out, passing by Charlotte]

Charlotte Lucas: [to Elizabeth] What have you done to poor Mr.Darcy?

Elizabeth Bennet: ...I have no idea.

3. 퀴즈

퀴즈는 학생들의 영어 학습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예고편과 영화 중에서 몇 개의 장면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후, 문장의 구조와 영화에 관련된 내용과 받아쓰기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4. 역할 놀이(Role play): 영화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중심으로 공부한 후 역할 놀이를 하도록 했다.

5. 발표:

IV. 연구결과

수업에 관해서 면담과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만과 편견*에 관한 주인공들의 결혼관과 연애관에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퀴즈를 실시한 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받아쓰기로 나타났다. 중요한 표현에 관한 우리말 해석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잘 알려진 명작 소설을 영화로 공부하는 것은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문학 작품에 관한 관심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영화를 통해서 19세기 영국 사회의 문화와 결혼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활용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화를 활용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에 있다.

참고문헌

Bevan, E., Fellners, E. & Webster, P. (Producers), Wright, J.(Director). (2005). *Pride and Prejudice*. Motion Picture. United Kingdom: StudioCanal.

Im, M. (2011). A teaching model for the memorization activity: Using the TV drama *Burn notice*. *STEM Journal*, 12(1), 177-199.

Cliffs Notes on Austen's *Pride and Prejudice*. 1995.

조기영어교육 연구 동향

김 정 렬(한국교원대학교), 이 제 영(전주대학교)

I. 서 론

최근 아동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 유치원의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지나친 간섭과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을 폐지하겠다는 교육부의 조치 이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교육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다양한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을 크게 정리해보면 아동 영어교육 금지 대상이 주로 영어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내려진 조치의 불평등과 부당성에 대한 지적과 아동 영어교육 금지의 논리적 이론적 근거를 찾기 힘들고 영어가 국제어인 글로벌 시대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촉발된 현안문제로서 아동 영어교육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교육부의 아동 영어교육과 관련된 최근의 조치들에 대하여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송희(2012)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사교육을 중심으로 아동 영어교육이 시작되어서 2000년 이후에는 2/3정도의 아동교육기관이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그동안의 이론적 타당성과 학부모들의 긍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2010년 이후에는 거의 모든 아동교육기관에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아동영어교육 연구의 실태를 파악해 보면 2005년 이전에는 아동영어교육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수 있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아동영어교육의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는 현저하게 줄어들어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었다.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교사, 교재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연구의 초점이 옮겨갔고 이러한 논거에 의해서 교육부도 2009년 국공립유치원의 방과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허용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영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아동영어교육과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교육을 아동영어교육으로 통칭하여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현안과 관련지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2.1 분석 대상

본 연구를 위해서 선정된 분석대상 논문들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국내학술지 인용색인 사이트(www.kci.go.kr)에서 '유아영어교육', '조기영어교육' 및 '초등 저학년 영어교육'을 키워드로 해서 찾은 논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유아영어교육'의 경우는 전체 19,745건으로 55개의 학술지에 논문이 발표되었고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798건의 논문이 있었다. '조기영어교육'은 검색된 총 논문의 수는 논문 8,331건이 26종의 다양한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426건이었다. '초등 영어교육'은 논문 21,724건이 학술지 55종에 걸쳐서 게재되었으며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792건 이었다. 이들 논문들을 모두 엑셀 파일에 담아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연구물들을 선별하였다.

- 첫째,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일 것
- 둘째, 유치원 아동과 초등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일 것
- 셋째, 연구재단 등재후보 또는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일 것
- 넷째, 학술지 중에서 편집위원에 아동교육이나 영어교육 전문가들이 포함된 논문일 것

위 기준에 의해서 정책보고서, 학위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논문 그리고 연구재단 등재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기타 학술지 논문은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제하였다. 위 논문들 가운데는 키워드 검색 방법 때문에 중복으로 찾아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 논문의 수에는 다수의 허수가 존재할 수 있으나 위 기준에 따라서 중복논문을 단일화하고 최종 추출된 논문은 789편이었다.

2.2 분석 대상

분석방법은 먼저 789편의 논문의 키워드를 워들로 분석하여 범주화하고 그 범주에 따라서 연구물들을 분류하였다. 각 범주별로 속한 논문의 통계를 내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물이 집적된 주제에 대하여 논문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범주에 속한 논문의 요지를 정리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당 범주의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워들로 키워드를 범주화하기 위해서 '아동영어', '아동영어', '초등저학년 영어'를 모두 '아동영어'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워들의 키워들 범주화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논문 핵심어 워들 분석

<그림 1>에서 보면 아동영어교육관련 연구에서 핵심어로 나타난 주요 하위 범주는 교수학습방법, 아동영어교사, 영어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교육, 학습자, 개인차, 교재, 언어 습득 및 발달, 교육과정, 학습 평가, 영어 교육의 필요성, 이중언어주의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들의 근접성을 중심으로 범주를 묶어보면 아동영어교육은 영어교육이면서 동시에 아동과 초등저학년에 걸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동을 가르칠 교수방법, 교재, 멀티미디어 활용과 교재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이것은 아동의 발달에 따른 학습, 능력 및 이를 바라보는 성인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 영어와 관련해서 외국어 교육 환경에서 관심이 높은 교수학습방법, 영어교재, 멀티미디어, 이중언어 발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인 논문의 주제별로 분류해서 논문 주제의 빈도순으로 나타내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동영어 교수학습 방법 276(35%)
- 아동 영어교사 양성과 자질 118(15%)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아동영어 86(11%)
- 아동 영어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80(10%)
- 아동 영어교재 분석 71(9%)
- 아동의 개인차 55(7%)
- 언어 습득 및 발달 47(6%)
- 아동 영어 교육과정 개선 38(4.8%)
- 아동영어 학습 평가 28(3.5%)

- 아동영어 학습의 정의적 요인 18(2.1%)
- 아동영어 교육의 필요성 및 이론적 근거 2(0.2%)

제한된 지면에서 위 연구 주제들을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연구 영역별 비중이 35%로 가장 높았던 '아동영어 교수학습 방법'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그 연구내용과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결과

아동영어교육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storytelling으로 동화를 들려주고 이와 관련된 통합적 독후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함께 읽기, 반복읽기, 손가락 짚어가며 읽기 등의 다양한 읽기 활동으로 아동의 영어능력과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에 긍정적 효과를 갖다 준다는 연구들이 많았다. storytelling 후 후속활동은 TPR이나 신체동작, 그림그리기, 동화에 나온 문장 패턴을 활용한 연습, 노래와 챗트, 동화 암기 활동, 다중지능 활동과 같은 통합적 활동으로 아동들의 어휘력과 흥미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동화를 재구성한 책 만들기 활동, graphic organizer를 활용한 storytelling 등은 아동들의 문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노래나 챗트는 아동들의 주의를 사로잡을 수 있으며, 지루할 수 있는 반복연습을 재미있는 활동으로 변화시키므로 듣기와 말하기 같은 음성언어 발달에 효과적이다. 가사를 문자와 관련된 그림으로 익히고 반복하면 음운인식, 파닉스, 단어 읽기, 쓰기 등 문자언어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최근 문자지도를 위해서 균형적 접근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운이 맞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짧은 동시가 문자지도의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마송희, 2016).

아동영어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영어의 인지적인 영역은 주로 어휘와 파닉스에 집중한 연구들이 많다. 어휘지도의 경우에 lexical chunk로 지도하는 것이 영어의 유창성 지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진현성, 정동빈, 2007)도 있었다. 동화와 같이 맥락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식 어휘학습, 글자와 유사한 이미지의 관련을 통해서 기억을 도와주는 morph기법, 가르치고자 하는 어휘와 관련된 유사어, 반의어 등의 동일 의미장에 속한 어휘를 함께 가르치는 의미장 접근법 등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었다.

아동영어 교수학습 방법 가운데 게임을 활용한 활동들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주사위 게임이나 보드게임, 의자 앉기 게임, 스파이 게임, 스내치 게임, 공던지기 등의 게임은 아동들의 영어능력이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동작활동도 아동대상 영어교육 연구에서 많이 활용된 교수법인데,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온 TPR에 명상과 요가활동을 포함하여 활동을 구성하였더니 아동들이 산만하지 않고 교사의 말에 집중하였으며, 수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한다(마송희, 2016). TPR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접목한 TPRS를 아동들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알아본 연구들이 있었다. TPRS에는 아동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화된 소규모 상황에 맞추어서 스토리를 변형하여 미니스토리도 엮어 낼 수도 있고 메인스토리로 제시할 수도 있다. 신체활동에 기반해서 신출어휘들을 몸으로 익히고 그 어휘들을 아동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에 포함시켜 소개한다. TPRS는 아동들의 흥미도와 같은 정의적 영역 뿐만 아니라 어휘력, 말하기능력과 같은 인지적 능력에도 주목할 만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강시경, 원은석(2011)은 인용하여 놀이나 활동중심으로 영어를 경험하도록 하는 방법은 아동들이 실제로 체험가능성이 높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비행기, 상점, 우리 몸과 얼굴, 식당, 그리고 우체국과 같은 주제를 선정하여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해주었더니 아동들이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학부모들은 80%가 만족하였으며, 99%가 재참여 의사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했다. 마송희(2016)의 연구에서 어휘나 구문을 반복연습, 문답연습 식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언어가 사용되는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활동 혹은 역할놀이를 하는 가운데 익히는 것이 말하기, 듣기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으며, 흥미유발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들을 인용했다. 요리활동은 아동들이 오감을 동원하여 식재료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으로 경험하면서 언어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적인 교수방법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듣기 말하기와 같은 아동들의 음성언어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도 있었다.

아울러 아동들이 쉽게 익혀서 따라할 수 있는 힙합음악을 율동과 함께 영어교육에 활용한 결과 음운인식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영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이보열, 정동빈(2010)의 연구도 있다.

동화를 활용한 극화 활동이나 뮤지컬도 아동영어수업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동화를 활용한 극화 활동은 동화내용을 익힌 후 아동들이 다른 배역들과 함께 극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뮤지컬은 이에 더해서 노래로 대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다른 배역의 대사를 잘 듣고 말하려는 동기를 높여줄 뿐 아니라 듣기능력과 발음 등을 포함한 말하기 능력에 영향이 있었다. 또한, 놀이나 오감, 요리를 활용한 영어지도나 활동 혹은 상황 중심 영어교육은 이론중심의 교육 혹은 교재중심의 교육보다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말하기 듣기 등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마송희, 2016). 균형적 접근 프로그램을 구성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학술지와 학위논문에서 다루어졌는데, 아동의 읽기 쓰기능력(이유정, 2012; 차경나, 배재정, 정정희, 2010; 최지영, 2009)을 향상시켰다는 실험연구가 있었으며, 종일제 영어학원(이하 영어유치원)에서 균형적 접근법을 활용한 과정중심 쓰기지도법을 적용하여 아동들의 쓰기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사례연구가 있었다(전인혜, 2008).

아동영어 교수학습 방법에 논의를 살펴보면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신체를 움직이고 노래와 챗트를 결합한 통합적 놀이와 체험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동들에게 영어교육의 학습부담을 주는 기존의 인지적 시각과 달리 통합적 놀이 활동과 스토리라는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가운데 형태적 학습이 아닌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성인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영어교육 방법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영어교육 방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인들이 자신들의 과거 영어교육 경험에 비추어서 현재 아동영어교육의 부정적 동기를 설정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washforward의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동들에 대한 학습부담 때문에 아동영어교육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부나 제3자가 결정할 것이 아니다. 교육부의 역할은 교육의 수요가 있는 곳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 아동의 학부모들은 스스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현재의 통합영어교육 방법이 학습 부담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각자가 판단하여 자신의 아이들의 아동영어교육 참여 여부를 결정할 일이다.

IV. 결론

아동영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물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 해도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수백편의 논문들이 있다. 교육부의 현안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자료가 없는 분야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아동영어교육의 필요성, 인식,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의 연구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아동영어교육 여부를 논하는 총론보다 교수학습 방법, 교사, 디지털 교육, 교재 등과 같은 각론에 대한 연구들이 2005년 이후에는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아동영어교육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기 전에 산하연구기관을 시키던지 정책연구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책과 관련된 연구동향 분석을 꼭 해보길 권한다. 이것이야말로 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결정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서 정책을 뒤짚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 보다 훨씬 안전하고 빠른 결정이 될 것이다. 최근의 여러 가지 교육정책 혼선이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당국자들은 국민들의 관심과 문제제기를 겸허히 수용하고 저간의 정책혼선을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제 2 발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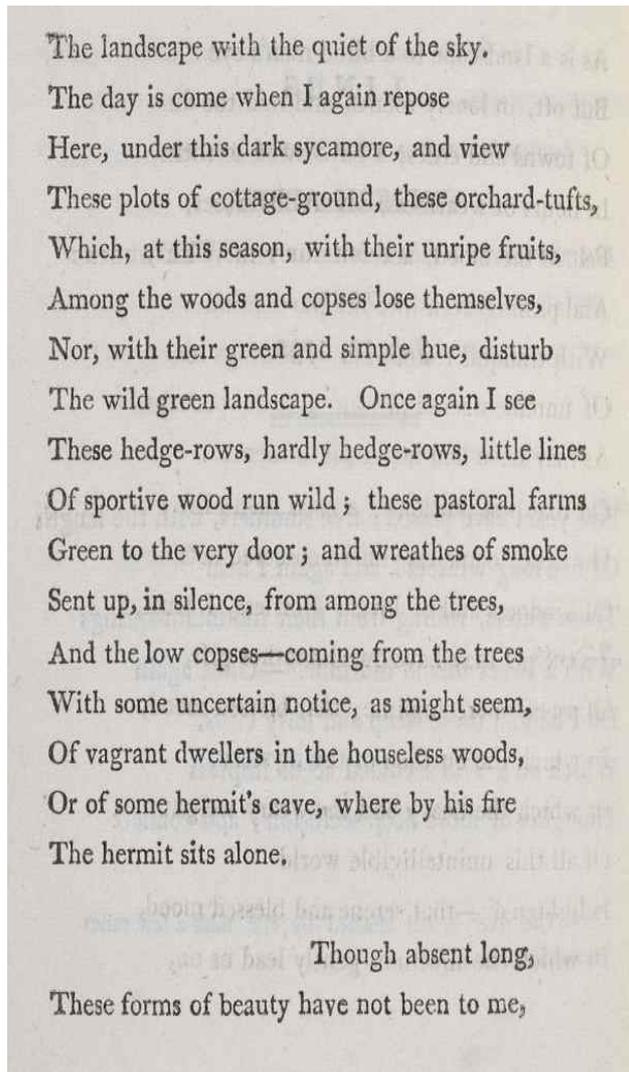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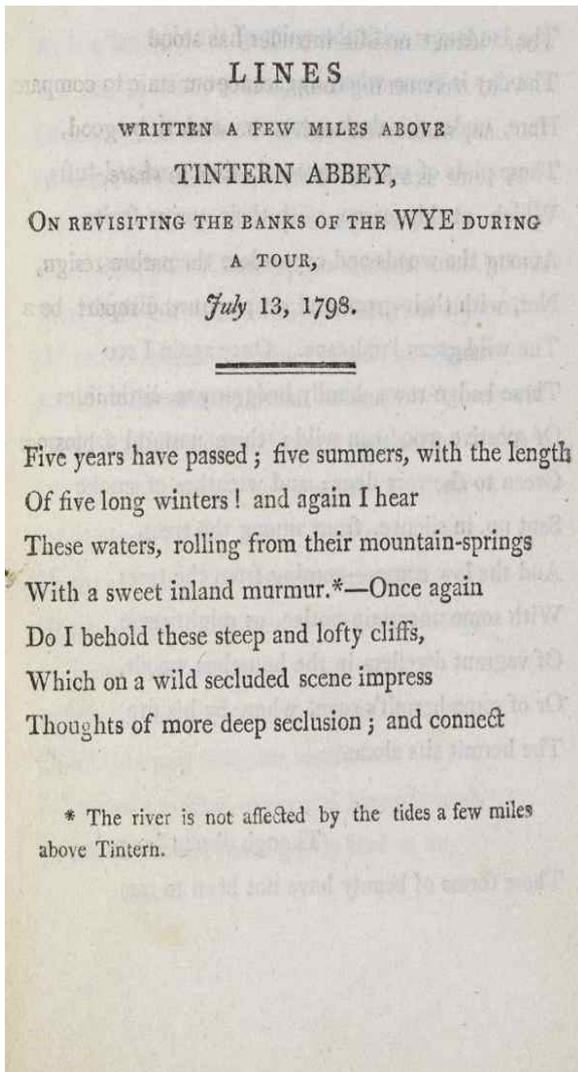
14:45 ~ 15:25 발표 및 토론

일정표

문학 1 (201호)	「틴턴 사원」과 로맨티시즘 지리의 어려움				
발표	주혁규 (경상대)	사회	서혜련 (우석대)	토론	임보라 (전북대)
문학 2 (204호)	안티고네 되살리기: 『안티고네 프로젝트』속의 민주주의				
발표	우승정 (조선대)	사회	손경환 (원광보건 대)	토론	이재은 (충남대)
어학 1 (205호)	Condition C in the comprehension of wh-interrogatives in L1 Korean- L2 English				
발표	안영재 (전주대)	사회	서은미 (호원대)	토론	김재민 (전북대)
어학 2 (208호)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초등영어과 플립러닝 방안				
발표	도미나 (세종가락초)	사회	신동진 (전주대)	토론	안정근 (전북대)

「틴턴 사원」과 로맨티시즘 지리의 어려움

주 혁 규(경상대학교)



We travel for various purposes--to explore the culture of soils--to view the curiosities of art--to survey the beauties of nature--to search for her productions--and to learn the manners of men; their different polities, and modes of life.

The following little work proposes a new object of pursuit; that of examining the face of a country *by the rules of picturesque beauty*.

(Gilpin, *Observations on the River Wye . . . Relative Chiefly to Picturesque Beauty: Made in the Summer of the Year 177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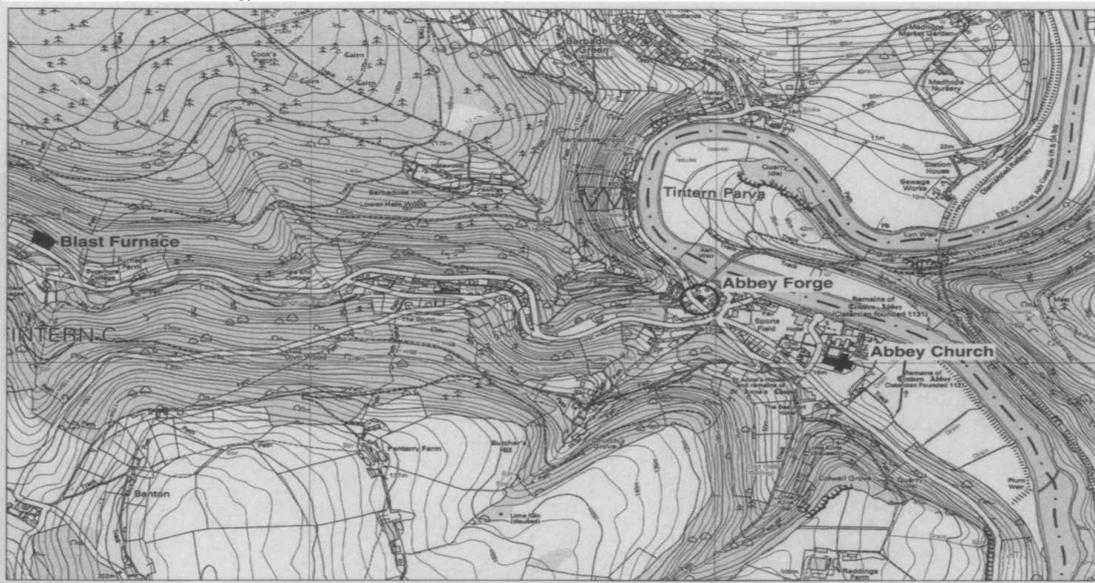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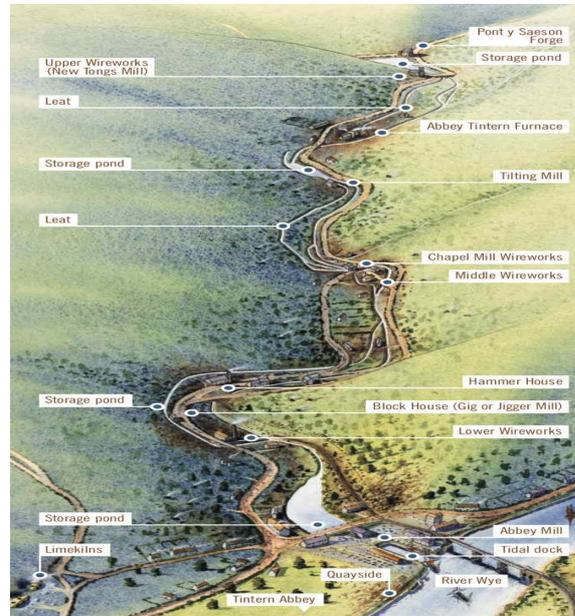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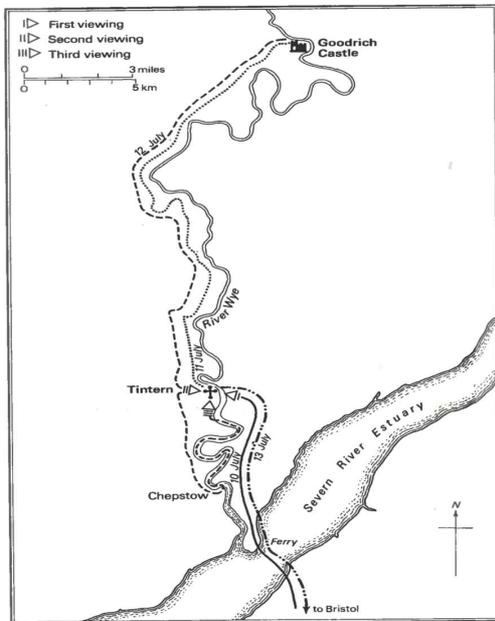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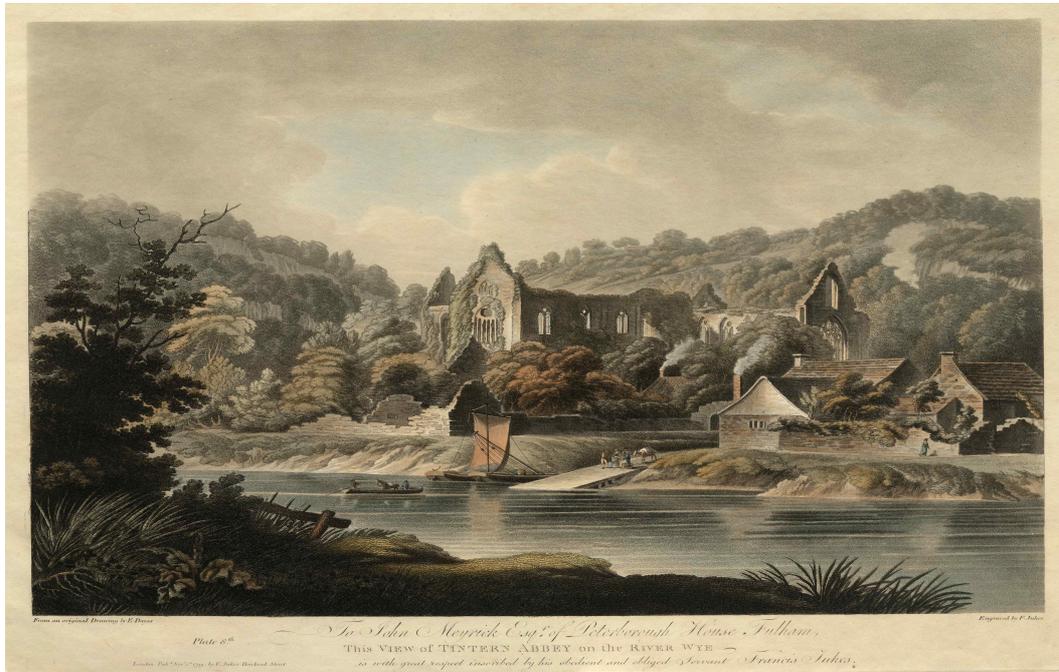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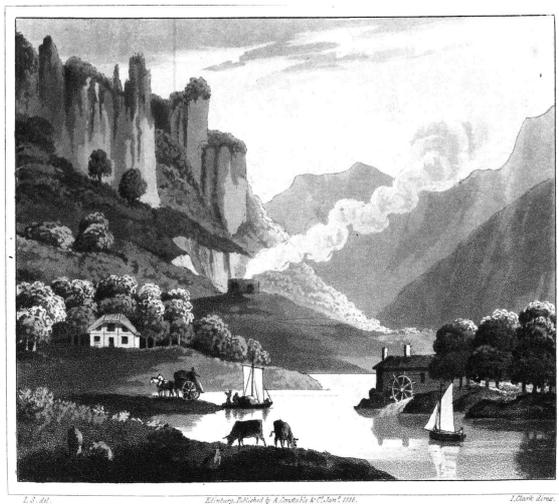
Figure 3: Topographical Map of Tintern and the Angidy Valley (2002). Crown Copyright Ordnance Survey.



The original watercolor drawing, dated 1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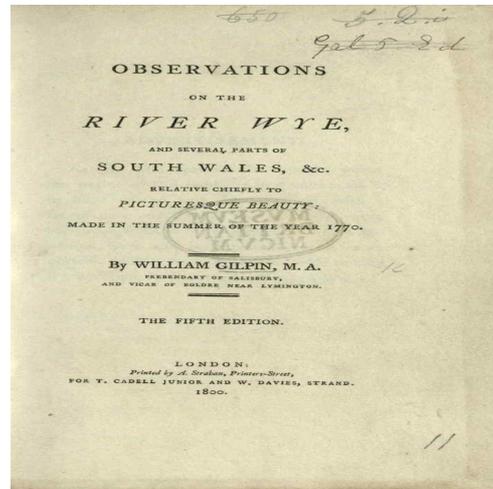


Edward Dayes, artist; Francis Jukes, engraver. *The View of Tintern Abbey on the River Wye.* Nov.1, 1799



View on the Wye.

(Louis Simond, View on the Wye, 1815)



But were the building ever so beautiful, encompassed as it is with shabby houses, it could make no appearance from the river. From a stand near the road it is seen to more advantage.

Among other things in this scene of desolation, the poverty and wretchedness of the inhabitants were remarkable. They occupy little huts, raised among the ruins of the monastery, and seem to have no employment but begging; as if a place once devoted to indolence could never again become the seat of industry.

The country about *Tintern-abbey* hath been described as a solitary, tranquil silence; but its immediate environs only are meant. Within half a mile of it are carried on great

iron-works, which introduce noise and bustle into these regions of tranquillity.

But one great disadvantage began here to invade us. Hitherto the river had been clear and splendid, reflecting the several objects on its banks. But its waters now became oozy and discoloured. Sludgy shores too appeared on each side, and other symptoms which discovered the influence of a t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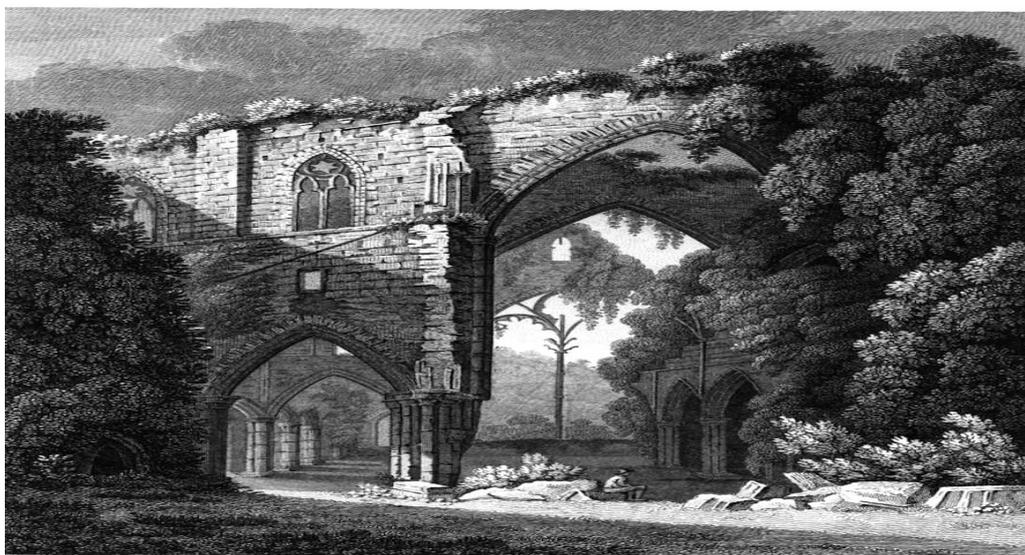
Many of the furnaces, on the banks of the river, consume charcoal, which is manufactured on the spot; and the smoke, which is frequently seen issuing from the sides of the hills; and spreading it's thin veil over a part of them, beautifully breaks their lines, and unites them with the sky. chief deficiency, in point of wood, is of large trees on the *edge of the water*. (Gilpin, *Observations on the River Wye*)

"After passing a miserable row of cottages, and forcing our way through a crowd of importunate beggars, we stopped to examine the rich architecture of the west front" (Coxe, 352)



GENERAL VIEW OF TINTERN ABBEY.

Published March 1. 1800. by Cadell & Davies, Strand.



INSIDE OF TINTERN ABBEY, EAST VIEW.

"From Tintern village, in walking to the Abbey, you pass the works of an iron-foundry, and a train of miserable cottages, completely ingrafted on the ruins of the Abbey. This disagreeable and confined approach is not calculated to inspire any spectator with a very high estimation of what he is about to view" (Barber, 266)

In 1798, the Wye Valley, though still affording prospects of great natural beauty, presented less delightful scenes as well. The region showed prominent signs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activity: coal mines, transport barges noisily plying the river, miners' hovels. The town of Tintern, a half mile from the Abbey, was an iron-working village of some note, and in 1798 with the war at full tilt, the works were unusually active. The forests around Tintern-town and Abbey-were peopled with vagrants, the casualties of England's tottering economy and of wartime displacement. Many of these people lived by charcoal burning, obviously a marginal livelihood. The charcoal was used in the furnaces along the river banks. The Abbey grounds were crowded with the dispossessed and unemployed, who begged coins of the tourists anxious to exercise their aesthetic sensibilities. The cottage plots noted in the poem are "green to the very door" because the common lands had been enclosed some time back and the only arable land remaining to the cottager was his front garden. (Levinson, 29-30)

A motion and a spirit, that impels
All thinking things, all objects of all thought,
And rolls through all things.

Of all the mighty world
Of eye, and ear—both what they half create,
And what perceive

Works Cited

- Barber, J. T. A *Tour throughout South Wales and Monmouthshire*. London, 1803.
- Coxe, William. *An Historical Tour in Monmouthshire; illustrated with views by Sir R. C. Hoare, bart.* London: printed for T. Cadell Jun and W. Davies, 1801.
- Gilpin, William. *Observations on the River Wye, and Several Parts of South Wales, &c.: Relative Chiefly to Picturesque Beauty: Made in the Summer of the Year 1770*. London, 1782.
- Levinson, Marjorie. "Insight and Oversight: Reading 'Tintern Abbey.'" *Wordsworth's Great Period Poems. Four Essays*. Cambridge: Cambridge UP, 1986.

안티고네 되살리기: 『안티고네 프로젝트』속의 민주주의

우 승 정(조선대학교)

I. 서론

고대 그리스 비극은 비판과 찬사를 함께 받아 온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그것은 1960년대 여성주의 학자들로부터 가부장 가치를 교묘히 위장하고 성차별주의적 태도와 여성혐오 사상을 조장, 구축해왔다고 비난받았다. 케이스(Sue Allen Case)와 같은 학자는 “그런 연극들이 정전에 속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이 연구나 연극 규범의 중심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324)며 그리스 비극의 가치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대 비극의 공연은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증가해왔고 특히 여성 작가들에 의해 재해석되었다. 헬렌 폴리(Helene Foley)는 그리스 비극을 “탁월한 젠더 정치학에 대한 분명하고도 자아성찰적 반응”(Bad Woman 77)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리스 비극이 폭군, 민주주의, 인종차별, 부족갈등, 식민주의, 테러리즘과 같은 현대 정치적 쟁점속의 개인의 역할 혹은 고민을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중심에서 벗어난 인물, 침묵당한 여성들 혹은 타자들 역시 고대와 현대의 젠더 규범에 대한 고찰과 재해석, 그리고 재창조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그러한 면에서 『안티고네』(*Antigone*)는 “가장 많이 공연되는 고대 드라마 중 하나”(Wilmer 106)로 꼽힌다.

21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안티고네가 처한 위기 상황은 계속되며 크레온으로 대변되는 독재적이고 부당한 인물과 제도 역시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다룬 『안티고네 프로젝트』(*Antigone Project*)에서는 부시(George W. Bush)와 같은 민주국가의 지도자도 독재자임을 분명히 한다(Schlesinger 10). 이 작품의 작가들은 고대 크레온이 적의 시체를 매장하지 말라는 법을 공포한 것이 부시가 테러방지를 이유로 ‘패트리엇 법’(the Patriate Act)을 통과시켜 인권침해를 적법화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Schlesinger 10). 그들은 21세기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국가를 침공하고 전쟁포로를 재판 없이 구금하는 법을 만들어 의회가 이를 통과시켰다는 사실은 고대 도시 테베의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가부장적 태도에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겼다. 안티고네는 그러한 압제적 법집행에 희생자이자 그것에 저항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켜 현재의 부조리함을 바꾸는 투사를 상징한다.

이 작품이 여타의 안티고네 작품들과 차별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하나의 극을 다섯 명의 작가가 협력하여 다양한 상황의 안티고네를 창조했다는 점이다. 각각의 작품은 캐런 하트만(Karen Hartman)의 『행텐』(*Hang Ten*), 테냐 바파일드(Tenya Barfiled)의 『훈장』(*Medallion*), 캐리대드 슈빅(Caridad Svich)의 『안티고네 아르케』(*Antigone Arkhe*), 린 노티지(Lynn Nottage)의 『투석형』(*A Stone's Throw*), 키오리 미야가와(Chiori Miyagawa)의 『다시 적색경보』(*Red Again*)이다. 서로 다른 출신과 배경을 가진 여성 극작가들이 과거 안티고네를 다양한 모습으로 현대에 배치하여 전쟁, 상업제도, 인종차별, 관습법 등을 비판하고 그 부당함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 한 가지 차별성은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작품 전체에 살아나기 모티브가 있다는 점이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는 죽었지만 계속 살아나 현재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티고네는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양심과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죽음의 재 속에서 살아있다. 그것이 이 작품의 마지막 『다시 적색경보』에서 부활의 모티브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안티고네는 계속해서 어느 시대이든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 비극에는 결말이 없다. 오히려 이 극은 압제와 비극이 반복될 때 사람들이 “현재의 역사로부터 일어나 다시 상상하고”(Schlesinger 9)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꿈꾸도록 격려한다.

본 논문은 다섯 작품 가운데서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처럼 법의 불합리성과 편파성, 모순, 압제로 인해 고통당하는 안티고네를 그린 『훈장』과 『투석형』, 『다시 적색경보』를 다룬다. 이 세 작품은 안티고네를 현대에 생생

하게 재현하여 다양한 안티고네들의 수난을 보게 한다. 또한 이 작품은 그 안티고네들이 불의한 현실에 눈감지 않고 행동을 촉구하는 적극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들 작가들이 보기에 평화, 정의, 평등을 위한 현대적 안티고네들의 힘겨운 노력은 9/11이후 나타난 테러와의 전쟁에 나타난 민주국가 압제자들의 히스테리적 반동으로 인해 더욱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대의 안티고네들을 통해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갈등, 비윤리적 관습과 도덕의 강제, 자본주의의 탐욕, 불안한 미래속에서 적절하게 매장 받지 못한 인류가족이 있음을 일깨운다. 그들은 또한 인류의 존엄과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죽은 안티고네를 계속 살려 안티고네 프로젝트로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II. 본론

1. 『훈장』: 매장 받지 못한 흑인들

1차 대전에 관한 많은 영화들과 드라마들 속의 영웅은 백인들이다. 그들은 용감했고 국가는 그들의 업적을 기렸다. 사실 그 전쟁에 수많은 유색인종들이 군인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며 싸우고 결국 어떻게 평가받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훈장』은 그 가려진 진실에 국가가 어떤 부당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고발한다.

극의 공간인 칼튼(Carlton)의 사무실에는 전쟁의 상황을 알려주는 소음으로 가득하다. 속기사가 끊임없이 전사자의 가족에게 병사의 죽음과 위로를 담은 전보를 타이핑하고 전화교환수는 미군과 함께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 군의 펄싱 장군(General Pershing)에게 연합군 내 병사들에게 명령을 전달한다. 그 명령은 프랑스 군인들이 “흑인들과 먹지도 말고 국 복무에서 요구하는 것 외에는 그들과 악수하거나 말하거나 만나려 하지 말아야”(49)하며 “특히 백인들 앞에서 흑인 미국 군대를 격하게 칭찬해서도 안된다”(49)는 것이다. 이것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흑인들을 대우하는 미국의 태도다. 흑인들은 최전선에서 싸우지만 군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미국이 흑인 군인을 대하는 태도는 칼튼 장군이 앤토아네트(Antoinette)를 대하는 모습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녀는 동생의 죽음을 전하는 전보를 받고 오랜 시간 그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앤토네트를 무시하며 아무 인사 없이 코트를 벗고 신문을 읽고 축음기의 음악을 듣는다. 그는 “동생의 시신을 달라”(49)의 그녀의 요청도 비웃는다. 앤토아네트는 동생이 용감하게 백인들을 구했지만 결국 죽었고, 프랑스 정부가 동생에게 명예의 메달(Medal of Honor)과 리본을 수여했다는 전보를 받았으며 아직 그것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동생의 시체를 줄 수 없다면 이를 근거로 명예의 메달을 수여해줄 것을 요청한다. 칼튼은 “프랑스가 흑인들에게 십자훈장(Croix de Guerre)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55)로 잘라 말한다.

이 극에는 소포클레스의 작품에 나오는 장례식 장면 역시 나온다.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전쟁을 벌이고 군인을 징발할 때 기꺼이 응했던 흑인 병사들은 최전선 전투에서 비참하게 희생되었다. 국가는 마땅히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보답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 동생의 무엇인가를 물어주고 싶다”는 가족의 요구를 외면한다. 흑인들의 죽음은 칼튼에게 동물의 죽음에 불과하기에 흑인병사와 그 가족에 대한 동정심이 없으며 장례식을 치르도록 도울 마음도 없다. 하지만 앤토아네트에게 장례식은 가족과 대면하는 마지막 자리이며 예를 갖추 신에게 돌려보내는 중요한 예식이다. 그녀는 동생의 시체도 찾을 수 없으니 슬픔을 가릴 의식도 할 수 없다. 방안에 울리는 속기사의 전사자 통보가 상징하듯이 국가는 유가족의 비애나 탄원을 종이 한 장에 적힌 형식적인 위로로 끝내려 한다. 앤토아네트의 울부짖음이 칼튼의 음악 소리에 묻히듯 이것이 “유색인종의 젊은이가 사라지는 방식이다”(52)

극의 마지막에 앤토아네트가 동생을 묻을 무엇이라도 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계속되는 것은 부패하면서도 부도덕한 국가의 차별적 윤리에 대한 계속되는 저항을 의미한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는 오빠를 묻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앤토네트는 동생의 장례식을 위해 끝없이 국가와 싸워야 하는 운명이다. 그녀의 외침은 라디오에 묻히지만 현재까지 어디에서든 계속되고 있다.

2. 『투석형』: 매장되는 여자들

『투석형』은 목까지 흠에 묻히고 얼굴은 흰 수의로 덮여있는 한 여성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충격적인 첫 장면은 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처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싶게 한다. 그래서 연극은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진행한다. 사건의 전말을 보여주기 위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방식은 이 여성의 수난을 역사화, 객관화시키는 여성주의 연극의 방식이다. 총 5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이 극은 처형->죄수의 걸음->재판->고백->범죄의 순으로 시간을 되돌려 관객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게 한다. 이러한 연극 전략은 관객을 배심원으로 초대하고 객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하나의 장을 넘어 갈 때마다 이어지는 플래시백은 유독 가난하고 남편이 없는 여성들에게 불공정이 집중되는 이유도 추적하게 한다.

극에서 안티고네를 죽음으로 이끈 죄는 사랑이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마을을 떠나 본 적이 없으며 날마다 무거운 짐을 시장까지 나르며 일을 해야 하는 여자다. 과부이고 가난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매일 힘든 노동에 지친 그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대가 없이 일을 도와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호의를 보인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무거운 바구니를 시장에서부터 날라주고 그녀의 이름을 알고 싶다고 말하는 남성의 유혹을 거부하지 못했다. 안티고네는 그 남자의 순수한 마음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내 천성은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93)이라고 주장했던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그대로 반영한다. 따라서 자신을 정죄하는 법을 “사악하고 무정하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는다”(87)라며 거부한다.

안티고네의 순진한 사랑을 재판하는 법은 가혹하고 관용이 없다. 안티고네를 심판하는 법관은 『훈장』에서 칼튼 역할을 한 남자배우가 맡고 있으며 안티고네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기자도 같은 배우가 한다. 그들은 “네가 법을 알아? 신이 뭐라고 했지?”(82)라고 다그치며 그들이 시행하는 법이 신의 명령임을 암시한다. 안티고네를 재판하는 법은 이슬람의 샤리아(sharia)이다. 신앙생활은 물론 이슬람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과 도덕, 예의, 행동의 지침과 인간 상호간의 권리, 의무 등 모든 계율을 망라하는 이 법은 같은 사건에 대해 남성에게는 하지 않았을 재판을 여성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샤리아 법전에서는 결혼 전의 남녀가 만나는 것을 금한다. 금지된 것을 어긴 범법자들에게는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데 있다. 여성들에게 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샤리아 그 자체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권력자들의 의도 때문이다. 재판관과 남성 기자들의 태도가 보여주듯이 권력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려는 도구로 법을 이용한다. 때문에 동생 이스메네가 말한 것처럼 “신은 자비롭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87). 그 법은 그 지역의 여성들에게 정당하지 않게 가해지는 남성들의 편견과 폭력을 상징할 뿐이다.

이극의 제목이 지적하듯 투석형은 이지역의 안티고네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벌이다. 왜냐하면 권력을 지배하는 남성들이 국가와 종교를 하나로 묶어 그 근본적 질서를 부인하지 못하게 해왔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이스민은 언니의 불쌍한 처지를 동정하고 무모한 사랑에 공감하지만 그녀에게 지워질 형벌을 걱정하는 것 말고는 도울 일이 없다. 그 사회의 “여성들은 남성들의 어리석음에 종속되어 있”(87)고 그 어리석음을 해결할 힘이 그녀들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안티고네의 남성은 소포클레스의 하이먼(Haeman)과 달리 안티고네를 변호하려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스메네가 안티고네에게 그녀가 맞게 될 돌의 크기를 자신의 주먹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안티고네들의 항변이 죽음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3. 『다시 적색경보』: 역사의 순환과 안티고네

일본계 미국인 미야자와의 『다시 적색경보』는 21세기에 행해지는 잔혹행위를 “인간 역사의 순환적 특성”(Martin 79)이란 측면에서 생각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나 미국이나 아랍국가에서의 인권에 대한 문제, 아부 그라이브(Abu, Ghraib)에서의 포로 학대 사건 등을 특정 시간을 넘어서 역사의 개념에서 폭력의 회귀라는 생각에서다(Martin 79). 그리고 그녀는 그 문제를 유희라는 불교적 관점과 연관시킨다.

안티고네와 해럴드(Herold)는 죽은 후 연옥(bardo)에 와 있다. 안티고네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공정에 분개해 혁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럴드는 안티고네가 걱정되어 그녀를 따라 왔다. 안티고네는 “부자가 의

심과 파괴와 더불어 더 탐욕스러워지고 가난한 자들은 말을 못하는”(107) 세상에서 “동생을 묻지 않는 것은 조상을 명예롭게 하고 제사를 지낼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110-111)로 생각해서 왕에게 저항했다. 그들이 연옥에 있는 동안 지상에 있는 아이린(Irene)은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잔학행위들을 보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한다.

연옥에서조차 안티고네는 편히 쉴 수 없다. 동생 아이린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아이린이 살아있는 지상에는 살인, 인종청소, 경제제재, 살상무기 투하와 같은 일이 빈번하다. 그녀가 맨하탄에 살고 있지만 일본인과 같은 외국인들은 추방명령을 받는다. 어디로 보내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왕가의 후손이라는 위엄 따위는 챙길 여력이 없다. 오빠인 폴리니스는 총 모양으로 변할 수 있는 지갑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급진주의자로 오인 받아 죽었다. 그런 무법한 세상을 봤던 안티고네는 “위엄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이 고통이었다”(114).

이런 세상에 주인공들은 각각의 방법으로 대처했다. 안티고네는 자신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릴 수 없어서 혁명을 꿈꿨고 해럴드는 수도원에서 명상을 통해 길을 찾으려 했다. 아이린은 조용히 기다려서 행동할 때를 찾았다. 그리스어로 ‘평화’를 뜻하는 아이린은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고 안티고네처럼 법에 도전하지 않았다. 안티고네는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겁쟁이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린은 안티고네 행동이 생존본능이 부족하고 미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런 아이린이 내린 결론은 언니인 안티고네가 옳았고 “인간에게 품위, 민주주의, 이성적 사고는 없다”(125)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다시 “가장 높은 보안단계인 적색경보 하에서 살고 있다”(125).

이 작품은 “인간역사의 모든 잔혹행위와 폭력이 한 순간에 집중되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순간이 고리가 되어 계속 순환되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126)만 희망이 있음을 전달한다. 연옥에서 안티고네는 각자의 역사가 기록된 책을 발견한다. 해럴드와 그녀는 자신들에 관한 과거를 읽으며 서로를 반성한다. 희망적이게도 그 책의 미래는 빈 페이지로 남겨져 있다. 그 페이지를 어떻게 채우냐는 전적으로 각각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린이 말한 “적색 도시”로 돌아가기로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투쟁하기로 한다. 연옥에서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 역시 희망적인 의미가 있다. 둘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고 미래도 같이 행동할 수 있다. 공간 역시 검고 자욱한 연기와 유황 냄새로 가득한 지하 세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푸른 불빛”(105) 속에서 “바다의 달콤한 향기”(109)가 나는 연옥이어서 그들의 희망을 돋보이게 한다.

극의 마지막은 이 프로젝트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두 사람이 지상으로 돌아가며 인간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해럴드는 자신이 안티고네를 따라 이곳까지 온 이유를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들은 지상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것”(129)이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상으로 돌아가 끝낼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배워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 가능성의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점은 여성들이 선택하고 행동할 때 여성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다.

Ⅲ. 결론

『안티고네 프로젝트』는 안티고네 이야기를 안티고네의 개인사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로 제시한다. 각각의 작품들은 위선적이고 부패한 국가의 법에 저항하되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처럼 신과 종교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보다 안티고네를 민주시민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도덕적 대리인”(Martin 93)으로 제시한다. 안티고네가 현대적으로 재생된 배경에는 압제적 법과 제도를 이용한 폭력이 현대 민주주의에서 더 교묘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적 투사였던 안티고네는 현재 그 정치적 프리즘을 넓히기 위해 계속 되살아난다. 『안티고네 프로젝트』에서 안티고네는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분명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 시민으로 규정되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들은 권력과 법에 의해 공공의 영역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지만 역설적으로 권력과 법이 가지고 있는 비윤리성, 불합리함을 명민한 논지로 드러내기도 한다. 현대적 안티고네들은 우리 시대

에도 사회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타협하지 않는 양심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안티고네 프로젝트』의 작가들은 인간의 기본 권리가 정치적 야망으로 짓밟히는 것에 대해 집단적 저항이든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이든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과거의 안티고네를 현대로 부활시킨다. 그리고 그것이 이 작품의 마지막 『다시 적색경보』에서 연옥에 있는 안티고네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이유이기도 한다. 살아나기 모티브를 통해 이 극은 관객에게 “정의를 찾는 것의 조심성, 정신의 끊임없는 새로움, 새롭게 보려는 자발성”(Schlesinger 9)을 요구하며 그렇게 하여 새로운 가능성화 희망을 만들어내도록 촉구한다. 안티고네를 기억한다면 현재에도 세계 전역에서 계속되는 잔학행위에 부당하게 희생되고 묻히지 못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기꺼이 듣고자 한다면 그들이 어찌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에 타협하거나 안주하려하지 않고 개인과 사회를 위해 유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것이다. 이 작품은 그 선택을 관객 각자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Condition C in the comprehension of wh-interrogatives in L1 Korean-L2 English¹⁾

Youngjae An (Jeonju University)

I. Introduction

This study investigates second language (L2) knowledge at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attempting to broaden out into how grammar and meaning interact in L2 acquisition. More specifically, it examines how Korean speakers of English make use of syntactic knowledge to resolve ambiguous complex wh-questions in English. To this end, this study explores a strong crossover (SCO) phenomenon in Korean-English interlanguage.

Where languages involve wh-movement, they give rise to the SCO effect (Postal, 1971; Wasow, 1972). This is illustrated in (1).

1. a. Who does he think Yengmi loves?
- b. Who thinks he loves Yengmi?

While the SCO question (1a) is unambiguous, the non-strong crossover (NSCO) question (1b) is ambiguous; that is, in (1a), *he* cannot be the same person referred to as *who*, but in (1b), *he* and *who* can be the same person. This is held to be because in (1b) *who* has not moved across *he* – it is generated in matrix subject position. In (1a), however, *who* has moved across *he* from the embedded subject position.

This subtle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is claimed to be a potential L2 learning problem at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L2 speakers with wh-in-situ languages such as Korean do not have this interpretation constraint realised in questions. Although speakers of Korean easily learn that wh-words come at the front in English, it is not clear whether their grammars involve movement; if they don't then they would not be sensitive to allowed and disallowed interpretation of the target sentences.

Korean-English interlanguage grammar is then predicted by two current competing models of L2 acquisition: the Interpretability Hypothesis (IH; Tsimpli & Dimitrakopoulou, 2007) and the Feature Reassembly Hypothesis (FRH; Ladiere, 2009). The IH predicts lack of L2 syntactic representations due to L1 interference in L2 development if uninterpretable features are not shared by the L1 and the L2. The FRH, on the other hand, predicts global development of L2 syntactic representations by reconfiguring, despite the marked contrasts in features between the L1 and the L2.

From the IH perspective, Korean speakers of English may be expected to exhibit non-native-like sensitivity to the SCO constraint. From the FRH perspective, by contrast, the SCO constraint may be expected to be unproblematic for Korean speakers of English. With respect to this, the following general research question is formulated.

2. When a target language phenomenon exhibits marked contrasts in the featural composition, are L2 speakers able to overcome the learning challenge and acquire the target grammar?

If the findings provide an affirmative answer to (2), this conveys the implication for the involvement of Universal Grammar (UG) in L2 acquisition, a long-standing issue in generative L2 acquisition. If

1) This study is based on the third chapter of my PhD thesis.

they don't, this conveys the implication for L1 interference in L2 development, and the role of UG is limited in L2 acquisition.

II. Q-movement, Condition C, and the derivation of the SCO configuration

2.1 Q-based approach to wh-question formation

Since Kats and Postal (1964), Q(uestion)-particle has been centred on the analysis of wh-ex-situ languages in addition to wh-in-situ languages (Baker, 1970; Cable, 2010; Hagstrom, 1998; Kishimoto, 2005). Cable (2010), in particular, proposes that wh-parameterisation is determined by Q-particles' strategies for merge operation with wh-words. For example, the Q-particle in English takes the wh-word as its complement. After merging with the wh-word, the Q-particle projects a QP (hence classified as Q-projection languages). For Cable, it is the entire QP that undergoes movement to Spec of CP. On the other hand, the Q-particle in Korean is adjoined to the wh-word (hence classified as Q-adjunction languages); consequently, the Q-particle alone lands in the C head, leaving the wh-word in situ .

However, I depart from Cable's view on featural composition of wh-words between wh-ex-situ and wh-in-situ languages.²⁾ I assume that the featural composition of wh-words is identical between the two languages since wh-words are variables void of inherent quantificational forces, and their quantificational forces are determined by Q-particles. I thus suggest that wh-parameterisation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 Q-particle carries an EPP feature that is responsible for a functional projection. The differences in syntactic derivations of wh-questions between English and Korea are sketched under Chomsky's (2000, 2001) probe-goal system.

3. a. Q-projection in English

$$[QP [DP_i \text{ wh-word}_{[uQWH:QWH]}] Q_{[QWH, EPP]} t_i]$$

b. Derivation of simplex wh-question in English by QP-movement

$$[CP [QP_i \text{ wh-word}_{[uQWH:QWH]} Q_{[QWH, EPP]}] C_{[uQWH:QWH, EPP]} [TP [VP t_i]]]$$

4. a. Q-adjunction in Korean

$$[DP [DP \text{ wh-word}_{[uQWH:QWH]}] Q_{[QWH]}]$$

b. Derivation of simplex wh-question in Korean by Q-movement

$$[[[DP [DP \text{ wh-word}_{[uQWH:QWH]}] t_i] VP] TP] C_{[uQWH:QWH, EPP]} Q_{[QWH]} CP]$$

A possible learning problems ahead of Korean speakers of English is then to figure out the featural composition of the Q-particle; that is, they must come to know the EPP is realised on the Q-particle in English, projecting the QP.

2.2 Condition C approach to the SCO configuration

Since Chomsky (1981), it has been generally assumed that the SCO effect in wh-questions is reduced to the Binding Condition C, treating a wh-trace as an R-expression.

5. Binding Condition C (Chomsky, 1981, p. 188)

An R-expression is free.

2) Cable (2010) assumes that wh-words in English bear an uninterpretable Q-feature, whereas those in Korean do not carry any instance of Q-feature.

The requirement (5) means that a wh-trace cannot be c-commanded by a noun phrase in an A-position which has the same index. Then it may be useful to see how Condition C rules out the SCO configuration.

6. a. Who_i does he_{*i/j} think Yengmi love *t*_i?
- b. Who_i *t*_i thinks he_{i/j} loves Yengmi?

In (6a), the wh-trace is not free since it is c-commanded by *he* that has the same index, violating Condition C. In (6b), on the other hand, the wh-trace c-commands *he*, and so the coreference interpretation is available on the basis of Reinhart's Generalisation, which states that "pronoun binding can only take place from a c-commanding A-position" (Büring, 2004, p. 24).

Within the minimalist framework, however, features are basic materials for structure building. Building on Hicks (2009), I assume that a VAR(TABLE) feature, and bear an OP(ERATOR) feature are relevant to binding. Since the VAR feature value for a wh-word is underspecified for referents, the wh-word is assumed to have a set of variables, *x, y, z*, say. The VAR feature for a pronoun, by contrast, is assumed to be specified for referents. And the Q-particle is assumed to bear the OP feature.

Following Chomsky and Lasnik (1993) and Fox (2000), I further assume that all of the binding conditions serve as an evaluator to review whether a derivation yields proper interpretation at LF. To form a proper binding relation at LF, I adopt the LF binding condition defined in Lasnik and Stowell (1991, p. 688).

7. The LF Binding Condition (LBC)

A pronoun P is construed as a variable bound by a quantifier Qu only if Qu binds P at LF. X binds Y if and only if X and Y are coindexed, and X c-commands Y.

In case of the SCO, for example, the LBC will check whether the wh-word c-commands the pronoun. In addition to this, Condition C will evaluate whether the copy of a wh-word is c-commanded by a pronoun at LF, assuming Chomsky's (1995) Copy Theory of movement.

The above mentioned binding algorithm is now ready for the SCO configuration (6a) with its LF representation.

8. a. Who_i does he_{*i/j} think Yengmi loves *t*_i?
- b. [CP [QPi Who_[VAR:x,y,z] Q_[OPi]] [TP Yengmi [VP think [CP *t*_i [TP [DPi he_[VAR:x]] [VP *t*_i loves *t*_i]]]]]]]

In (8), *who* is assumed to carry a valued [VAR:x, y, z] feature, and *he* is assumed to carry a valued [VAR:x] features. At LF, *who* c-commands *he*, and yet the coreference of *he* cannot be determined since there are still copies left by QP-movement for further scrutiny. The indexical values on the copies of *who* and *he* is now evaluated for interpretations. Upon detecting the same [VAR:x] between *who* and *he*, Condition C kicks in and excludes the coreference between *who* and *he* since the copy of *he* (*t*_i) c-commands the copy of *who* (*t*_i) within its binding domain. As a result, the coreference interpretation of *he* cannot be achieved; instead, by filtering the [VAR:x] out at LF, *he* is interpreted as disjoint in reference.

We now turn our attention to wh-questions in Korean, where no crossover effect is assumed to

be observed.³⁾ The sentences (9)-(10) are respectively equivalent to English sentences (6a)-(6b) in meaning.

9. Yengmi-nun [ku*_{i/j}-ka nwukwu_i-lul-_ṭṭ salanghan-ta-ko] sayngkakha-ni_k?
 Yengmi-Top he-Nom who-Acc love-Ded-Comp think-Q
 'Who does Yengmi think he loves?'

10. Nwu(kwu)_i-ka-_ṭṭ [Yengmi-ka ku*_{i/j}-lul salanghan-ta-ko] sayngkakha-ni_k?
 who-Nom Yengmi-Nom he-Acc love-Dec-Comp think-Q
 'Who thinks Yengmi loves him?'

It appears that Korean does not allow coreference between *nwukwu* 'who' and *ku* 'he'; the interpretation of *ku* 'he' is disjoint in reference (Hong, 1985).⁴⁾ Since Q-movement in Korean permits the wh-word to remain in situ, the SCO constraint is not responsible for the absence of coreference between the wh-word and the pronoun in Korean.

The unavailability of the coreference interpretation of *ku* 'he' in Korean can be attributed to Montalbetti's (1984) Overt Pronoun Constraint, which employs Higginbotham's (1983) linking mechanism.

11. Overt Pronoun Constraint (OPC; Montalbetti, 1984, p. 94)

An overt pronoun cannot link to a formal variable if and only if the alternation empty/overt obtains.

Put simply, the OPC disallow an overt pronoun to be construed as a variable bound by a wh-word or a quantifier in pro-drop languages. Korean is a pro-drop language where an overt pronoun is replaced by a null pronoun (*pro*), and so the OPC is applicable to Korean.

A possible learning problem for Korean speakers of English is then reduced to whether they have acquired wh-movement in English; otherwise, they will allow disjoint interpretation for both SCO and NSCO questions.

III. Experiment

3.1 Participants

32 monolingual native speakers of Korean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On the basis of their performance on the Quick Placement Test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they were divided into two subgroups: 22 intermediate and 10 advanced speakers. Also, 19 monolingual native speakers of

3) It has been alleged in the literature that wh-question (9) manifests the SCO effect, assuming that LF wh-movement or operator movement in Korean. The main caveat to this argument is that scrambling obviates the weak crossover effect in Korean (Choi, 2004; Lee, 1993; Lee, 2006). On the other hand, scrambling exhibits the SCO effect in Korean (Cho, 1994). I nevertheless resist the claim that the crossover effects are obtained in Korean, assuming that the crossover constraints are observed in \bar{A} -movement to ban on bound variable interpretation of pronouns.

4) In fact, there has been disagreement in the literature as to whether the bound use of pronoun *ku* 'he' (or *kunye* 'she') in Korean. Some claim that *ku* 'he' (or *kunye* 'she') can be bound by a quantified expression in Korean (Choi, 2002; Kang, 1998; Koak, 2008; Suh, 1990). Others argue that such occasion is impossible (Choe, 1988; Hong, 1985; Kang, 2000). However, the judgement is not as robust as one would expect. Experimental evidence proves the inter-speaker variation on the bound use of *ku* 'he' or *kunye* 'she' in Korean (Kim & Han, 2016). My own judgement does not allow coreference between the wh-word and the pronoun in (9)-(10). I thus take my judgement to be exemplary.

British English participated as a control group for comparison. At the time of testing, the participants were enrolled in either undergraduate or postgraduate programmes at UK universities.

Homer was named last year's winner of the self-portrait contest. He returns as a judge and is announcing this year's winner of the contest.



3.2 Test design and procedure

A truth value judgment task, adopted from Thornton (1990; see also Crain and Thornton, 1998) and Marsden (2005), was designed to test the SCO constraint in Korean-English interlanguage grammars. Each test item consisted of a brief story and a corresponding question-answer pair. 12 experimental items were created and combined with 24 fillers, giving a total of 36 items. The filler items were all declarative sentences, sharing similar syntactic properties with the target items such as Condition A and scope relations between quantifiers. The test items were manipulated by two variables: question type (SCO questions vs. NSCO questions) and answer type (disjoint reference vs. coreference). Both variables were balanced. The target stimuli are illustrated in Figures (1)-(2). The SCO question in (12) appeared with either a disjoint reference (12a) or a multiple coreference (12b); the NSCO questions in (13) appeared with either a single coreference (13a) or a multiple coreference (13b).

Ned, Sam, and Mario are the finalists of the best moustache contest. The judge, Sheldon, has made the final dec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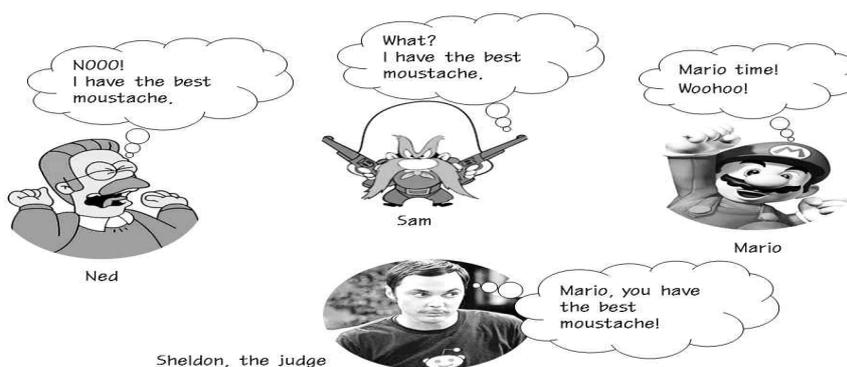


Figure 1. A sample stimulus of SCO trial

12. SCO Question

Who did he say had the best moustache?

Answer

- a. *Mario.* (Disjoint reference interpretation)
- b. **Ned and Sam.* (Coreference interpretation)

Figure 2. A sample stimulus of NSCO trial

13. NSCO Question

Who said he drew the best self-portrait?

Answer

- a. *Homer.* (Single coreference interpretation)
- b. *Krusty and Cyrus.* (Multiple coreference interpretation)

The experiment was run on a laptop PC, using PowerPoint presentation with animated slides. Each test item consisted of two slides: a story and a corresponding question-answer pair. Participants were then asked to judge whether the answer is true or false, based on the story. If they chose false, participants were asked to write a correct answer on the answer sheet. During the experiment, participants were allowed to go back to the story that they just read in order to check their understanding, but they were not allowed to navigate the previous items they had already judged. The target items were presented with the fillers in a quasi-random order.

IV. Results and Discussion

The analysis here does not rely on p-values; rather, the group differences are analysed in terms of the CI and effect size, due to the sample size (Lason-Hall & Plonsky, 2015). The results for the SCO questions are shown in Table 1.

Table 1

Acceptance rates of disjoint reference and coreference interpretation of SCO questions

Group ^a	Disjoint reference			Coreference		
	<i>M (SD)</i>	95% CI		<i>M (SD)</i>	95% CI	
		<i>LB</i>	<i>UB</i>		<i>LB</i>	<i>UB</i>
NC	83% (31)	68	98	13% (26)	0.4	26
KA	47% (42)	17	77	48% (39)	21	76
KI	26% (36)	10	42	64% (40)	46	82

Note. CI = confidence interval; *LB* = lower bound; *UB* = upper bound. ^aNC = native control (n = 19); KA = Korean advanced (n = 10); KI = Korean intermediate (n = 22).

The data reveal that the NC group appears not to allow the coreference interpretation in the SCO questions, showing an 83% acceptance of disjoint reference. The KA group appears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NC group in the SCO condition; the mean acceptance rate of disjoint reference for the KA group (47%) and does not fall the CI for the NC group [68, 98] and vice versa, and the effect size is large (Cohen's *d* = 1.1).

It seems that the KI group tends to prefer the coreference interpretation in the SCO questions: 26% of acceptance of disjoint reference and 64% acceptance of coreference. The KI group appears to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NC group as indicated by the CI evaluation.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between the KI and KA group.

The results for the NSCO trials, where the coreference is permitted, are given in Table 2.

Table 2

Acceptance rates of disjoint reference and coreference interpretation of NSCO questions

Group ^a	Disjoint reference			Coreference		
	<i>M (SD)</i>	95% CI		<i>M (SD)</i>	95% CI	
		<i>LB</i>	<i>UB</i>		<i>LB</i>	<i>UB</i>
NC	3% (6)	-0.4	6	95% (10)	90	99
KA	3% (7)	-2	8	93% (12)	85	102
KI	2% (5)	-1	4	89% (20)	80	98

Note. CI = confidence interval; *LB* = lower bound; *UB* = upper bound. ^aNC = native control (n = 19); KA = Korean advanced (n = 10); KI = Korean intermediate (n = 22).

A noticeable observation is that all of the group accept the coreference reading in the NSCO questions at considerably high rates: 95% in the NC group, 93% in the KA group, and 89% in the KI group. It seems that a binding mechanism such as Reinhart's Generalisation is operative in Korean-English interlanguage grammar, which in turn implicates wh-movement in the acquisition process. In fact, the acceptance rates of coreference decrease in the SCO questions as in Table 3.

Table 3
Acceptance of disjoint reference and coreference across the conditions

Group ^a	Disjoint reference		Coreference	
	NSCO	SCO	NSCO	SCO
NC	3%	83%	95%	15%
KA	3%	47%	93%	48%
KI	2%	26%	89%	64%

Note. Arrows indicate the changes of acceptance rates in each of the conditions. ^aNC = native control (n = 19); KA = Korean advanced (n = 10); KI = Korean intermediate (n = 22).

The data patterns show a sharp decrease in the KA group's acceptance rate of coreference in the SCO questions. If we look at it the other way around, there is an apparent increase in the KA group's acceptance rate of disjoint reference in the SCO questions. This implies that the coreference reading of the pronoun is reanalysed by the SCO effect. The KA group becomes sensitive to structural distinctions between the SCO and NSOC questions. They do not answer randomly.

Given that grammar is related with competence and processing i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Hawkins, 1999), the KA group's less target-like behaviour on the SCO trials can be attributed to performance factors such as processing difficulties. In fact, processing of a complex wh-question is not cost-free due to filler-gap dependency. Since extraction from the matrix subject position less complex than the extraction from the embedded subject position, the KA group may be tempted to use the options available in their L1 such as wh-scrambling. L2 grammars are indeed flexible with respect to the featural composition in functional categories (Hegarty, 2005). In the case of QP, Korean speakers of English, even advanced speakers, may project Q-particle without the EPP. By employing wh-scrambling, they may apply Condition C to the pronoun at the surface structure as in the NSCO questions.

V. Concluding remarks

The findings from the current experiment implicate L1 knowledge is not the main determinant of L2 development, supporting the FRH perspective on L2 acquisition. That is, Korean speakers of English are able to utilise target grammatical knowledge into the interpretive interface, which in turn conveys the implication of UG involvement in L2 development. As witnessed, however, Korean speakers' knowledge of interpretive interface in English is limited to certain configurations such as the SCO questions. Nonetheless, their interpretation of the SCO configurations is not random. I thus suggest that L2 speakers have an immediate access to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of the target language while L2 parsing difficulties intervene their performance.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초등 영어과 플립러닝 방안

도미나 (세종 가락초등학교)

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준별 영어 교육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21세기 학습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세 가지 개발 방향 중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이라는 첫째 방향에는 두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지식·정보 사회에 적합한 인간상의 설정, 그리고 미래 사회에 적합한 핵심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교실 수업 개선이 바로 그 항목이다(박채형, 2015). 이러한 개정의 방향은 미래 교육의 중심화두가 학습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학습자의 능력 중 영어는 국제화 시대에 꼭 필요한 도구이다. 초등학교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학습자들에게 영어라는 도구를 학습자의 특성과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일은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에 맞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영어 수준 차, 영어 사용 기회의 부족, 학습자에 적합하지 않는 수업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부터 교사 개인적 노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안 중 하나가 플립러닝을 이용한 영어 교육이다. 플립러닝은 교사와 학생이 정한 수업 목표를 학생이 수업 전 동영상 학습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오고 수업 시간에는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하여 완전학습을 꾀하는 학습 방법이다. 이러한 플립러닝을 영어 교육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시도들이 2013년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플립러닝은 교사의 많은 준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고, 동영상 촬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교사들은 플립러닝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준별 영어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영어 교육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영어 학습 실태를 살펴보면 그 개인차가 타 교과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기 영어 교육의 경험, 학생 개인의 언어 지능 차이, 사교육의 정도 등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차를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어과에 거꾸로 학습을 적용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따른 수준별 거꾸로 학습을 설계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영어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수준별 영어교육을 위한 플립러닝 설계

플립러닝은 본 수업 전 학생들이 미리 교사가 제작한 수업 동영상을 학습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수업 내용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고 본 수업에서는 다른 학습자들과 구성된 지식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러한 거꾸로 학습의 기본 토대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오프클래스(Component-learning Stage), 온 클래스(Skills-learning Stage), 오프 클래스(Language focus)의 세 단계로 학습 단계를 설계하고 각 단계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오프 클래스(Component-learning Stage)에서는 학생들이 과제로 수업 전에 동영상을 학습해 올수 있도록 교사는 수업 내용을 선정하고 재구성하여 동영상 과제 제시를 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수업 전 학습한 내용을 스터디 노트에 정리해서 더욱 지식을 견고하게 한다. 온 클래스 단계 (Skills-learning Stage)에서는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차시에 맞는 프로젝트 학습, 게임, 역할놀이 시연, 스토리텔링, 협동학습 등을 활용하여 활동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집단 구성을 할 수 있으며 부진아 지도를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오프

클래스 단계 (Language focus)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통해 재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이 때, 교사는 수준별로 과제를 제시한다.

1. 거꾸로 학습 적용 차시 추출

먼저 교사는 수준별 학습이 필요한 차시를 추출하여야 하는데 아래 <표1>은 5학년 C출판사 8단원 2차시 수업을 위한 차시 추출 예시이다. 교사는 자신이 거꾸로 학습을 적용할 차시를 추출하여 거꾸로 학습 전략을 세우고 적용방법을 모색하는데 이는 수준별 거꾸로 학습을 위한 계획이 철저히 되어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학습 전략에는 오프 클래스, 온클래스, 오프클래스에서 수준별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에 따른 적용 방법을 상세하게 계획함으로써 수준별 거꾸로 학습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5학년 8단원 차시 추출 예시

일시	2018년 5월 10일		장소	영어실	수업자	
단원	8. How Was Your Vacation?		차시	2/6	교과서	132-133
학습주제	지나간 일에 대해 묻고 답하기					
학습목표	지나간 일에 대해 묻고 답하는 말을 할 수 있다.					
학습모형	과제중심학습모형+거꾸로 학습모형		전략	오프 클래스	디지털 교과서 영상 및 게임	
학습자료	교사	ppt, 단어카드		온 클래스	문제 해결 학습	
	학생	셀프 스터디 학습지, 활동지		오프 클래스	study note(H/L) 작성	
			학습집단조직	전체 - 모둠 - 전체		
평가방법	자기평가, 교사평가		평가도구	학습지		
적용방법	<input type="checkbox"/> 학생 중심의 과제 해결 수업을 위해 본 수업에서 활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 하도록 한다.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교과서 이전 차시를 전차시에 확인해 본다. <input type="checkbox"/> 본 수업 시간에서 교사는 과제의 유무를 모둠별로 확인하고, 협동심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input type="checkbox"/> 활동 1에서는 Look & Say와 Listen & Repeat활동을 보기에 앞서 대화의 빈칸을 채우는 조사활동을 한다. 이때 학습자는 낱말카드를 활용하여 묻고 답하며 앞으로 보게 될 Look & Say와 Listen & Repeat활동을 능동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조사활동이 끝난 후 Look & Say와 Listen & Repeat을 보며 자신이 채운 빈칸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한다. <input type="checkbox"/> 활동 2에서는 활동 1에서 채운 학습지를 바탕으로 대화문을 충분히 연습한 후 Whisper 게임을 모둠별로 한다. 모둠별 활동을 통해 협력과 배려하는 마음을 기른다. Whisper 게임이 끝난 후 모둠별로 역할 놀이를 하여 대화문을 반복 학습한다. <input type="checkbox"/> 오프 클래스에서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과거동사나 부족한 과거동사를 스스로 학습하도록 한다.					

위 <표 1>은 8단원 2차시 지나간 일에 대해 묻고 대답하기 학습을 과제 중심 학습 모형(TBLT)과 플립러닝 교수학습 모형을 접목하여 계획한 차시 추출 예시이다. 오프 클래스 단계에서를 위해 전차시 디지털 교과서를 함께 학습해 봄으로서 학생들이 미리 수업 내용을 알아오도록 계획하였다. 온 클래스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 학습을 통해 모둠 학습을 계획하였는데 학생들이 이미 학습해 온 지식을 바탕으로 게임을 하고 모둠 역할 놀이를 통해 반복 학습하도록 계획하였다. 오프 클래스 (Language focus) 단계에서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과거 동사나 부족한 과거 동사를 재학습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차시 추출 계획은 교사가 원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프 클래스의 수준별 디딤영상 제작과 온 클래스의 수업 설계를 미리 구성하는 일은 플립러닝 적용 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수준별 오프 클래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플립러닝은 디딤 영상을 제작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었다. 하지만 디딤 영상은 본 수업에서 교사가 가르쳐야 할 수업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플립러닝을 수업해 본 교사들에게 설문한 내용 중 플립러닝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서 많은 교사들이 학습자 중심 활동위주의 수업 전개와 부진아 지도 시간의 확보라고 대답하였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은 대부분 40분 단위인데 프로젝트 수업이나 게임, 역할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시간일 수 있다. 하지만 플립러닝은 교사의 설명을 학생들이 미리 디딤 영상을 통해 학습해 오기 때문에 본 수업 좀 더 시간확보가 가능하게 하고 교사의 역할이 가르치는 역할이기 보다는 활동을 안내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개별 지도하는 역할이다. 다음 <표 3>은 오프 클래스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이용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예시이다.

<표 3> 오프 클래스 활동 예시

활동 이름	내용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술래가 앉아있는 사람 중 한명에게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자리를 바꾼다.
모서리 PPT 퀴즈 게임	문제를 맞출 때 마다 한 단계 높은 코너로 간다. 문제 출제는 학생이 번갈아 하며 정해진 시간동안 높은 코너를 통과한 사람이 이긴다.
Post It Note Game	자신의 이마에 주요 표현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이고 짝과 질문을 통해 정답을 맞힌다.
파트너 찾기	파트너의 조건이 적힌 카드를 들고 서로에게 물어 자신이 찾는 조건의 파트너를 찾는다.
인터뷰 빙고	빙고의 칸을 인터뷰를 통해 채운 후 빙고를 한다.
Zero 카드게임	본인이 가진 카드를 모두 없애는 놀이로 손에 쥘 카드와 일치하는 카드를 상대방이 쥐고 있는 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어표현을 한다.
Four Card	목표로 하고 있는 카드를 찾기 위해 질문을 하고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대답을 하며 대화를 한다.
Battle Ship 보드게임	상대방 전투함의 위치를 추측해서 모두 침몰시키면 승리를 하는 놀이이다.
인생 한방 Hooray 카드게임	같은 카드 세장이 나오면 재빨리 필통을 쳐서 펼쳐진 카드를 모두 가져가며 Reading 연습을 합니다.(교과서 카드 활용)
문장 이어 달리기	교실 앞뒤를 오고가며 자신이 맡은 문장을 완성하고 제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문장을 이어 달린다.
볼링 핀 맞추기	공격과 수비 두 편으로 나누어 Dialogue를 하며 수비 편 볼링 핀을 쓰러트리는 놀이이다
부활 OX 퀴즈	OX퀴즈가 랜덤으로 정답이 나와 직관력을 높인다.
전기 게임	손동작으로 가위 바위 보를 하지 않는 대신에 가위 바위 보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으로 말하는 놀이입니다. 세 문장 외우기에 좋다.
순간 이동! 타임머신	교실 코너를 돌며 가위 바위 보로 승부를 겨루며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이이다. 파워 레벨이 강해질수록 감옥에 갇힌 우리 편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강해져서 도전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팀에 공헌도가 높아져 슈퍼맨이 된 것처럼 남을 도와줄 수 있다. 거기다가 구출한 사람들과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순간 이동을 하여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
알파벳 시장 놀이	하루에 세 번 열리는 시장에서 사진에 맞는 단어 알파벳 타일을 모으면 달러를 벌 수 있다. 지루하게 외우는 단어가 아니라 알파벳 철자 한 개라도 틀릴까봐 눈에 불을 켜고 찾게 되어서 단어 철자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좋다.

어느 손가락이게?	각 손가락에 문장을 붙이고 짧은 문장 5개 외우기를 재미있게 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다.
-----------	---

수준별 온 클래스를 수업하기 위하여 교사는 위 <표 3>에 제시된 활동 중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시할 수 있고 또는 한 가지 활동을 수준을 달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온 클래스에서 수준별 학습을 위해 교사는 협동학습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수준별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질집단을 구성 시 low level 학생과 high level 학생을 함께 구성하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동질 집단을 구성하고 각기 다른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교사는 디딤 영상을 학습한 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집단을 구성하여 따로 지도할 수 있다. 온 클래스는 수직적 수준별 수업을 설계하기보다는 수평적 수준별 수업을 설계하여 학생들이 서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노정은. (2009). *수준별 Blended Learning 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청주.
- 박채형.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 방향의 현실성 분석. *부산교육대학교*, 15(4), 335-354.
- 방진하.이지현. (2013). 플립드 러닝의 교육적 의미와 수업 설계에서의 시사점, *한국교원교육연구*. 31(4), 181-207.
- Sams, A. & Bergmann, J.(2013), Flip Your Student's Learning, *Educational Leadership, ASCD, March 2013*, 70(6), 16-20.

○ 제 3 발표 ○

15:30 ~ 16:10 발표 및 토론

일정표

문학 1 (201호)	디킨스의 히스도리와 허스토리: 『두 도시 이야기』에 나타난 근대성과 멜로드라마				
발표	조현준 (경희대)	사회	이삼태 (조선대)	토론	이복기 (전북대)
문학 2 (204호)	나르시시즘으로 읽어본 "유산"				
발표	박부순 (원광대)	사회	임성숙 (전북대)	토론	박윤기 (배제대)
어학 1 (205호)	Different Intensity of Emotions in Bilingualism				
발표	황요한 · 김창수 (건양대)	사회	김대영 (전주대)	토론	이희철 (전북대)
어학 2 (208호)	주제중심 통합영어교육을 위한 요구조사				
발표	서귀원 (청주강내초)	사회	이상오 (호원대)	토론	박혜숙 (군산대)

디킨스의 히스토리와 허스토리: 『두 도시 이야기』에 나타난 근대성과 멜로드라마

경희대 조현준

피는 복수를 부르고 복수는 혁명을 낳는다. 18세기 후반 유럽은 혁명의 시기였다. 1789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생활고와 귀족의 악행에 시달리던 농부들이 농기구를 들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대혁명이 발발했다. 이 사건은 근대적 인권의 탄생을 야기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1859)는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한 1775년부터 프랑스의 제 1공화정이 수립된 1792년까지의 파리와 런던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소설이다. 한편 프랑스 혁명을 피와 복수의 결과로 보는 영국의 디킨스가 쓴 보복과 사랑의 멜로드라마이기도 하다.

영국이 미국과 미국 독립전쟁을 치르는 격변기에, 프랑스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혁명정국을 겪어냈다. 귀족중심 신분제에서 공화정으로 격변하던 시기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제 3신분의 인권 확립과 민권 함양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어제의 귀족이 오늘의 사형수가 되는 불법 구금과 즉결심판의 혼란과 폭력도 넘쳐났다. 1789년 7월 14일 혁명으로 바스티유 감옥 앞에서 죽어간 정규군과 반란군 사상자도 컸지만, 1792년 9월 학살로 라 포르스, 아베이, 샤펠레, 라 콩시에르주리 감옥에서도 천여명의 성직자와 귀족이 약식 재판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강력한 왕권제 국가에서 수세기동안 아버지, 혹은 국가 자체로 추앙받던 국왕은 하루아침에 사형선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기요틴에 참수되었다. 자유, 평등, 우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공화국은 무장한 세상에 대항하여 승리 아니면 죽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승리보다는 죽음이 훨씬 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혁명의 이름으로 무고하게 죽어갔다. 그런 격동 속에 가해와 복수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사랑과 희생도 있었다. 이 소설의 큰 두 축의 하나는 이런 특수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격동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안에 발생한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 그리고 사랑과 희생이다. 이 글은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적 주체의 이성이라는 역사적 관점과, 그 속에 인간애와 복수와 희생이라는 비역사적 개인의 감정을 두 도시 이야기-에서 교차 검토하고 역사성이 보편성으로, 이성이 감정으로 수렴되는 지점에서 허스토리, 그녀의 서사를 논하고자 한다.

1. 히스토리와 근대성, 합리적 이성의 정의

17-8세기의 유럽은 격동의 시기였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혁명은 의회가 찰스 1세에 대항하면서 일어났고 18세기 프랑스 혁명은 유럽 근대사 중 가장 획기적 전환을 이룬 사건이었다. 영국 혁명은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어 싸움을 벌이고 찰스 1세를 처형한 뒤 공화국을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후계 역사 연구가들은 왕의 압제를 견디지 못한 영국민들이 자유를 지키고자 혁명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후 경제 연구가들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상인계층의 성장이 혁명의 지원 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지주나 특권계층으로서 기생적인 삶을 사는 왕당파 귀족과, 생산 활동에 참석해 능력에 따른 성공을 하려는 의회파 상인들은 늘 갈등해왔는데, 도시상인과 수공업자 중심의 중산층과 중소지주 층이 세력을 얻으면서 이 갈등이 가시화되고 상인계층이 귀족계층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영국의 혁명이 민중의 요구와 상공인의 성장으로 가능했다면, 프랑스 혁명은 왕실의 재정난과 빈민의 배고픔으로 봉기했다. 대혁명이 발생하기 직전 프랑스는 유럽의 최강국이었고 국민수도 영국 인구의 두 배에 가까운 2천 6백만에 달했다. 정치 형태는 법적으로 절대왕정이었지만, 행정 실무는 자유주의자인 튀르고, 네케르, 카론 등이 담당했고, 프랑스 예술과 철학사상은 전 유럽을 지배했다. 미국 식민지가 영국에서 독립하자 프랑스 대다수 국민인 농민과 상공인이 구제도의 사회적 모순과 불평등을 보게 되었다. 절대 소수인 1, 2신분이 대다수의 3신분에 비해 누린 경제적 사회적 특권이 엄청났는데도 그들은 루이 14세 시절 다소 약화되었던 특권마저 복권시키려 했고, 제 3신분의 절대 다수인 2천 1백만이 넘는 프랑스 농민은 성직자와 귀족의 면세 특권을 허용한 구제도에 깊은 반감을 가졌다.

1780년대 들어 계속된 루이 16세의 사치와 미 독립전쟁 지원에 따른 왕실재정의 위기 속에 1788-89

년 연이은 흉작은 농민의 비참함을 가중시켰고, 1785-89년 도시노동자들은 상승하는 생활비에 비해 임금은 오르지 않아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 1789년 5월 개막된 삼부회에서 제 3신분 대표들이 머리수 투표를 요구했고, 6월에는 제3신분 대표들이 '국민의회'를 따로 결성하였다. 이들은 국민의회가 존속해야 조세징수가 허용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회의장에서 해산하지 않자, 왕은 군대를 소집하고 자유주의 개혁가 네케르를 파면했다. 파리 시민은 국왕의 무력탄압으로부터 국민의회를 지켜야한다는 생각에 파리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뒤 파리지 행정을 접수하고 민병대를 조직했다.

폭력을 사용하기는 군중도 마찬가지였다. 독재에 대항한 민병대는 무기판매점을 약탈하고 병기고를 습격해 소총과 대포를 확보했고, 화약이 가득하다는 바스티유 감옥도 습격했다. 당시 바스티유는 봉건제도의 상징이자 불법 투옥과 고문이 자행되는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요새 수비대와 무장 군중의 치열한 전투 끝에 바스티유는 군중에게 점령당했다. 군중은 수비대원 전원을 학살하고 수비대장 드로네이의 목을 잘라 거리로 끌고 다녔다. 파리를 자치적으로 통치하겠다는 자치위원회 '파리코뮌'이 결성되어 왕정과 협의 통해 합법적 절차를 추진했지만, 이미 군중의 무법적 행동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 군중은 재판 없이 국무장관 풀롱을 가로등에 매달아 살해하고 사위도 학살했으며, 도처에서 폭동과 폭력이 일어났다.

이후 '입법회의', '국민공회'를 거쳐 프랑스는 1792년 공화정을 확립했고, 이듬해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광장에서 단두대로 처형했다. 그래도 피는 마르지 않았다. 1793년 혁명정부의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펼친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공회는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했고, 이어 총재정부와 제정프랑스를 거쳐 1848년 제 2공화정으로 복귀했다. 절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의 변화는 짧게는 3년 동안의 격변기를 통해, 길게는 반세기의 정치체제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의 프랑스 혁명: 역사(*The French Revolution: A History*)(1837)를 기반으로 쓴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1859)는 첫 번째 격동의 1775년부터 1792년의 프랑스와 영국을 배경으로 한다.⁵⁾

최고의 세월이요, 또한 최악의 세월이었다. 지혜와 우둔의 시대요, 신앙과 불신앙의 시간이요, 광명과 암흑의 계절이며, 희망의 봄이요,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우리들 앞에 온갖 것이 갖추어져 있었고, 또한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모두다 천국으로 곧장 연결된 것이었으며, 또 지옥으로 곧장 떨어질 것들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당대의 권위자들 사이에서도 흑자는 선이니 악이니 하고 당대를 규정짓는데 있어 서로 극단의 대조를 이룰 만큼 복잡하고 모순에 찬 세상이었으며, 그 점에 있어 또한 현대와 너무도 흡사한 시대였다.⁶⁾

작품 배경인 1775년 당시 영국은 조지 3세와 샬럿 소피아가, 프랑스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통치중이었다.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의 조세저항과 독립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프랑스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교에 재정 지출이 심한데다 영국을 견제하느라 식민지 민병대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고가 비어 있었다. 양국 다 왕정체제는 유지했지만 의회가 왕권을 견제하는 입헌군주제인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절대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적인 역사적 상황속에서 소설은 시작된다. 귀족의 악행을 보고한 괴심죄로 1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의사 알렉상드르 마네뜨(Alexandre Manette), 그런 악행을 일삼는 가문과 계급이 싫어 귀족 신분을 버리고 고국을 떠나 영국에서 독립적 삶에 정착한 찰스 다네이(Charles Darnay), 그리고 이 모든 역사적 현장의 객관적 관찰자로서 묵묵히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는 자비스 로리(Jarvis Lorry)는 혁명기 계급구조에 저항하는 근대적 이성 주체의 양상을 보여준다.

의사 마네뜨는 귀족의 추행과 만행을 고발할 용기와 원수 가문을 사위로 맞을 관용이 있다.⁷⁾ 고발이

5) 먼로 앵겔스는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혁명 장면의 주된 자료 출처가 칼라일의 『프랑스 혁명』이라고 주장한다. Monroe Engels, *The Maturity of Dickens* (Cambridge: Harvard UP, 1959), 171.

6) "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it was the age of wisdom, it was the age of foolishness, it was the epoch of belief, it was the epoch of incredulity, it was the season of Light, it was the season of Darkness, it was the spring of hope, it was the winter of despair, we had everything before us, we had nothing before us, we were all going direct to Heaven, we were all going direct the other way—in short, the period was so far like the present period, that some of its noisiest authorities insisted on its being received, for good or for evil, in the superlative degree of comparison only." Charles Dickens, *A Tale of Two Ci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7. 앞으로 이 책에서의 인용은 본문중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폭로되어 가족과 생이별하고 바스티유에 18년간 수감되지만, 자유의 몸이 된 후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삶을 회복하고, 딸의 남편감이 바로 자신에게 모진 시련을 준 가문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를 사위로 받아들이고, 또 그가 위험에 처하자 온몸을 던져 구명해낸다. 귀족의 만행을 고발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원수 계급이나 가문에 경도되지 않는 인간애의 수호자라는 점에서 전근대적 혈연, 지연, 지역 공동체를 넘어서는 용기와 관용의 주체상을 구현한다.

찰스 다네이는 독립성과 박애를 구현한다. 타고난 후작 가문인 에브레몽드 가문 및 혼란의 조국 프랑스를 버리고 스스로 분리되어 자립적 '노동(work)'으로 살아가는 영국 일반 시민의 삶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기 형성, 자기 발전, 자기 완성을 모토로 하는 근대주체의 양상을 보인다.⁸⁾ 그 때문에 그는 영국과 프랑스 각각에서 반란죄로 기소되고 목숨의 위협을 겪지만 당당히 운명에 맞서 싸운다. 1780년 영국에서는 북아메리카 영국군에 관한 정보를 프랑스에 넘긴 스파이라는 혐의로 존 바사드(솔로몬 프로스)와 로저 클라이를 증인으로 기소되었을 때는 시드니 칼턴의 기지로 무죄 방면된다. 이후 1792년 옛 하인에 대한 박애 때문에 위험천만한 프랑스로 되돌아갈 때 두 번 목숨의 위협을 겪지만 이성적 덕목과 인간적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성과 박애를 구현한다 할 수 있다.

다네이는 귀족의 특권을 비판한다. 귀족 특권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실은 '낭비와 실수, 착취와 부채, 저당과 억압,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고통으로 이루어진 무너져가는 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119) 삼촌과 근본적으로 대립한다.⁹⁾ 에브레몽드 후작은 프랑스가 모든 면에서 나빠지는 것은 '새로운 철학'(116), 즉 자유와 평등과 박애에 근간한 계몽 철학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귀족 태생이지만 영국 부르주아로 살아가는 그는 귀족과 부르주아 계급의 사이에 있다. 또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하인 가벨(Gabelle)의 편지를 받고 옛 하인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혁명중인 파리로 되돌아간다는 점에서는 연민과 박애정신도 갖고 있다. 계급보다는 개인, 귀족의 특권보다는 시민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근대적 이성주체의 양상을 보인다.

한계도 있다.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 일반인이 정치를 접한 첫 사건이라고 보는 루카치(Georg Lukacs)는 역사 소설의 목표가 서사형식을 통해 사회의 총체적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며, 이 소설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등장인물의 삶의 연관성을 약화시키고 로맨스로 축소된다고 비판한다. 특히 계급적 중간위치에 있는 다네이가 봉건적 특권을 포기하고 부르주아 시민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¹⁰⁾ 현실에 대해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태도를 취하는 디킨스의 태도가 사회소설에서는 큰 약점이 되지 않더라도 역사소설에서는 큰 약점이라는 것이다.¹¹⁾ 그로스(John Gross)도 다네이가 택한 망명자라는 위치, 고급 불어교사로서의 노력, 조지 워싱턴에 대한 존경 등 많은 것들이 작품 속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본다.¹²⁾

이 외에도 텔슨 은행의 자비스 로리는 정직한 기업인으로 마네트가 희생했음을 알고 잡역부 제리 크런처(Jerry Cruncher)를 시켜 그 소식을 은행에 전하며 마네트의 딸 루시(Lucie)와 후견인 프로스(Miss Pross)를 프랑스로 데려가 루시의 아버지와 상봉시키는 직업적 소명의식을 대표한다. 그는 현실적 유능함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서 격변기의 불안정속에서도 마네트의 친구로서, 또 마네트의 신탁인이자 후견인으로서 자신의 직업적 의무를 다한다. 성실하게 텔슨 은행이라는 직장이 맡긴 일을 일관되게 해내면서 점차 인간적 가치를 깨달아 간다는 점에서 직업적 소명과 인간애를 동시에 구

7)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계몽 주체의 특징은 '감히 용기를 내어 이성과 지식을 추구하는 것(Sapere Aude)'이라고 주장했고, 장 칼라스 사건을 재심리한 루소는 「관용론」에서 관용이야말로 근대적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주장했다.

8) 리하르트 반 뮐렌은 근대주체의 특성이 개인의 독립성이 있다고 본다.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만들어나가며, 스스로 성취하는 인물이야말로 근대적 인간이라는 것이다.

9) 에브레몽드 후작은 가스빠르의 어린 아들을 마차로 치어죽이고도 “어쩌다 실수로 보잘것 없는 물건을 깨뜨리고 대금을 지불한 듯” 금전 한 잎을 던져주고 떠나 버린다. 그에게 민중은 ‘쥐떼’나 ‘부상당한 새와 토끼’이며, 이들을 다스리는 데는 억압만이 유일하게 지속되는 철학이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다네이와 대조를 이룬다.

10) 루카치는 역사소설의 목표가 서사형식을 통해 그것이 과거이든 현재이든 사회생활의 총체적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Georg Lukács, *The Historical Novel*. trans. Hannah and Stanley Mitchell (Harmondsworth: Penguin, 1969), 290.

11) Georg Lukács, *The Historical Novel*. trans. Hannah and Stanley Mitchell (Harmondsworth: Penguin, 1969), 290-3.

12) John Gross, "A Tale of Two Cities," *Dickens and Twentieth Century*, ed. John Gross and Gabriel Pearson (London: Routledge, 1962), 189.

현하는 근대 주체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스트라이버는 제한적이긴 하나 근대적 경제주체의 양상을 보인다. 그는 경제 합리성에 따른 세속적 성공을 근대의 에토스로 받아들이며 모든 기준을 물질로 가늠한다. 그는 자신이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루시가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것을 확신하며, 자신의 청혼이 루시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라서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질적 번영만이 모든 도덕의 기초라고 보는 그는 물질적 합리성과 경제효용성을 구현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 할 수 있다.

역사소설로서의 두 도시 이야기는 근대 주체의 양상을 반영하지만 한계도 있다. 젊은 후작 다네이가 귀족계급의 봉건적 착취에 대해 느낀 역겨움이나 부르주아 생활로의 사적 도피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가볍게 지나가며, 복수를 의미하는 방장스나 가장 흔한 남성 이름인 자코 1, 2, 3 경우는 인물이기 보다는 특정한 특성을 대표하는 알레고리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네뜨, 다네이, 로리, 스트라이버는 각각 용기와 관용, 독립과 박애, 직업 윤리, 경제 합리성에 입각한 근대 주체의 양상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네뜨와 다네이와 로리가 인권과 보편애를 구현한 근대주체의 양상을 보여준다면, 스트라이버는 경제 효용성에만 제한된 한정된 양상을 구현한다는 한계는 있다.

2. 허스토리과 멜로드라마, 비합리적 감성의 사랑과 복수

칼라일의 역사서 프랑스 혁명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줬다면, 윌키 콜린스(Wilkie Collins)의 드라마 빙해(*The Frozen Deep*) (1856)는 멜로드라마 구조에 영향을 끼쳤다. 두 도시 이야기에서 거시 담론이라 할 근대적 역사의 정의가 씨줄을 구성한다면, 미시 서사인 멜로드라마적 로맨스와 허스토리¹³⁾의 사랑과 복수는 날줄로 교직된다. 그리고 이 정동의 날줄은 숨은 동력으로서 여성의 이야기와 감정을 중시한다. 허스토리과 대비되는 허스토리에서 중요한 인물은 여주인공과 그 적대자¹⁴⁾인 루시 마네뜨와 테레즈 드파르쥬(Therese defarge)다. 이들은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정체성을 보여주지만 역사와 교직되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는데 루시는 사랑에, 테레즈는 복수에 인생을 건다. 루시의 사랑은 아버지의 희생과 카턴의 희생을 불러오고, 테레즈의 복수심은 혁명 정국을 조장하고 찰스 다네이를 심판대로 몰고 간다. 그리고 카턴의 희생으로 막을 내린다는 점에서 복수는 마침내 사랑으로 수렴된다.

에릭 벤틀리(Eric Bentley)는 비극과 멜로드라마(*Tragedy and Melodrama: Versions of Experience*)에서 드라마를 멜로드라마, 소극, 비극, 희극으로 나누었는데, 멜로드라마는 인물, 구조, 의도, 효과 면에서 희극적이지도 비극적이지도 않는 고도의 감정표출과 분명한 도덕적 갈등의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터 브룩스(Peter Brooks)는 발자크와 헨리 제임스를 멜로드라마의 관점에서 분석한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에서 멜로드라마가 강한 감정 몰입, 도덕적 양극화와 도식화, 존재와 상황과 행동의 극단적 양태, 뚜렷한 악행, 선한자의 박해와 최종적인 미덕 보상, 부풀리고 과장된 표현, 어두운 음모와 서스펜스와 숨막히는 운명의 급변(peripety)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¹⁵⁾

벤틀리와 브룩스가 말하는 멜로드라마는 모두 감정의 분출과 선악의 이분법을 말한다. 요약하면 멜로드라마는 감상성이 강렬하고, 선악의 이분 구도에 따른 권선징악의 경향이 있으며, 극단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많고 급변하는 운명의 양상을 보여준다. 두 도시 이야기 역시 사랑, 희생, 복수 등의 감상성이 강하고 권선징악의 도덕 구도를 따르며 극단적 반전이 많이 나타난다. 브룩스는 멜로드라마의 기원이 프랑스 대혁명 즈음이라고 주장하는데, 교회와 군주제의 청산, 기독교 신화의 와해로 인해 조직적이고 계급적으로 응집된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문학양식이 사라진 맥락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작품 속 두 여성 주인공 중 루시는 '사랑'을 대표하고, 테레즈는 '복수'를 상징한다.

멜로드라마의 감상성은 당시 비판의 대상으로 여성적 특성으로 한정되어¹⁶⁾ 작품의 완성도에 부정적

13) 허스토리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를 의미한다. 역사를 해석하는데 있어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여성의 관점을 살려내고자 하며, 역사(history)를 남자의 이야기(his story)로 보고 여자의 이야기(her story)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1970년대 로빈 모건(Robin Morgan)이 『그 모든 것에 작별을(*Goodbye to All That*)』에서 처음 사용했다.

14) 프롭의 31가지 인물유형을 6개의 기능자 모델로 설명한 그레마스의 논의에 따르면 서사의 기능자에는 주체와 대상, 발신자와 수신자, 조력자와 적대자 이렇게 여섯개의 행위소가 있다. 루시를 주체로 볼 때 드파르쥬는 적대자가 되고, 드파르쥬가 주체일 때는 루시가 적대자가 된다.

15) Peter Brooks,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Balzac, Henry James, Melodrama, and the Mode of Exc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11-2.

평가를 내리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감상성은 감정 자체라기보다는 감정의 불균형, 과잉, 부적절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¹⁷⁾ 욕망과 복수, 도덕적 선택과 희생이 얽힌 멜로드라마의 감상성이 작품 전체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의 감상성은 여성의 서사를 통해 드러나 역사성의 히스토리와 대비되는 '허스토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선 작품 전반에서 사랑, 온화, 치유, 경청의 능력을 펼치는 루시는 '집안의 천사'¹⁸⁾라는 빅토리아조 예쁘고 착한 여자의 이상적 전형을 보여주지만, 역사성이 결합되어 있고 무엇보다 비현실적이다. 루시의 아름다운 외모¹⁹⁾와 사랑스러운 효성과 인간적인 박애는 작품 전체에서 큰 추동력이 된다. 아버지의 외상성 장애를 고치고, 법정에서는 재판관과 배심원과 변호인의 마음을 흔들며, 무엇보다도 삶에 무감하던 변호사 카턴이 자발적으로 목숨을 희생하게 만든다.

'집안의 천사' 루시의 사랑은 아버지의 정신병을 치유한다. 마네뜨 의사는 18년간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갑자기 풀려난 후 해리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dissociativ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는다.²⁰⁾ 마네뜨는 수감 중 구두장이의 의자를 사용해 구두를 만들면서, 정신적 고통을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었다. 수감자의 작은 창의적 활동은 인간성의 상실을 막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사위가 자신을 수감시킨 후작 가문이라는 것을 안 뒤, 외상성 반복경험(traumatic reexperience)으로 다시 고통받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으로 장애에서 회복된다.

휴버와 테 윌트에 따르면 마네뜨 의사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은 고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직업에서 의미를 찾은 까닭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딸의 사랑으로 안정적 가족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믿음의 신뢰 관계인데, 루시가 아버지와 평생 동행하고 마음을 달래가면서 이뤄낸다. 디킨즈의 다른 소설 데이비드 카퍼필드(*David Copperfield*)의 아그네스(Agnes)를 연상시키는 루시의 사랑과 헌신이 아버지를 소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카턴에게는 희생을 결심하게 만들고, 직업적 충실성만 보이던 은행가 로리의 인간애도 회복시킨다.

또한 루시는 카턴을 기계적 기능인에서 희생적 영웅으로 변모시킨다. 루시를 사랑해 감화된 시드니 카턴은 '사자는 될 수 없을지라도 유능한 승냥이'였는데 희생을 자초하는 종교적 인물로 승화된다. 카턴은 작품 전체에서 거의 유일한 '입체형 인물(round character)'²¹⁾로 찰스 다네이, 루시 마네뜨와의 멜로드라마적 삼각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희생한다. 무감각하고 냉정한 도시의 성공 지향적 삶에서,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인물로 감정의 격동적 분출이라는 멜로드라마 요소를 완성한다. 루시의 영향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던 카턴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변모한다. 처음에는 국가 반역죄 재판에서 다네이를 석방시키는데 공헌한 기지와 논리성 면에서 다네이를 닮았지만²²⁾, 나중에는 개연성 있는 사건도 없이 사랑에 목숨을 희생하기로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나아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

16) Claudia L. Johnson, *Equivocal Beings: Politics, Gender and Sentimentality in the 1790'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13-4.

17) Brian Wilkie, "What is Sentimentality?" *College English* 28.8 (1967), 564

18) 집안의 천사는 원래 코벤트리 팻모어(Coventry Patmore)가 1854년 출간한 산문시의 제목이지만, 19세기 후반 영미에서 주목받은 빅토리아 시기 이상적 여성의 전형을 의미한다. 자기보다 남편과 자녀의 행복을 중시하며 가정에서 모든 재생산과 뒷바라지에 전념하는 현모양처형을 말한다. 영국 페미니스트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여자가 집안의 천사를 죽여야 집밖의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기 세계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안의 천사는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회가 이상화한 대표적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다. 팻모어의 집안의 천사는 빅토리아기 이상적 여성상의 문학적 결정체로 말해진다. Natalie McKnight, "Dickens and Gender," *A Companion to Charles Dickens* (Oxford: Blackwell, 2008), 191.

19) 루시는 첫 등장부터 17세 금발과 푸른 눈의 아름다운 미녀로 표현되며, 법정에서도 동정심과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배척한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Charles Dickens, *A Tale of Two Ci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23, 67.

20) Thomas J Huber and Bert T. te Wildt, "Charles Dickens' A Tale of Two Cities: A Case Repor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opathology* 38 (2005): 336.

21) 포스터는 등장인물이 작품속에서 성장을 통해 변화하는 경우 입체형 인물, 변화없이 특정 속성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평면형 인물이라 불렀다.

22) 작품 전반에서 카턴과 다네이는 외모도 생각도 사랑도 비슷하다. 둘은 비슷한 사고와 계급질서에 있으며 동시에 루시를 사랑한다. 이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가질 때와 자포자기한 이후의 모습을 대립적으로 보여준다. 처음부터 카턴이 다네이에게 호감을 느끼는 이유는 다네이가 추락하기 전의 자기 모습, 자신이 될 수도 있었던 이상적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리"라는 가정의 천사뿐 아니라 기독교 윤리까지 구현한다.

한편, 푸른 눈 금발 미녀 루시의 대척점에 있는 반영웅적 여성 인물도 있다. 장대한 기골에 검은 머리 카락을 늘어뜨리고 전사처럼 길거리에 버티고 서서 늘상 뜨개질을 하며 귀족에 맞서는 전사 드파르쥬 부인이다.²³⁾ 건장한 체구의 여전사 드파르쥬는 강하고 두려움 없는 성격에 예민한 감각과 준비성, 결단력과 단호함과 적개심에 오는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에서 민중의 봉기와 여성의 참여를 선동하는 페미니스트 여전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여장부들이여, 내게 오라!" 드파르쥬 부인이 소리쳤다. "정말! 여길 점령하면 우리도 남자들처럼 적을 죽일 수 있다!" 날카롭게 갈망하듯 소리치며 다양한 무기를 들고 하나같이 굶주림과 복수심으로 무장한 여자들이 그녀 주위로 모여들었다. (207)

테레즈 드파르쥬의 유년기 부모의 죽음을 둘러싼 에피소드는 계급 질서를 파괴하고 귀족에 대항하며, 잔혹한 프랑스 귀족이었던 에브레몽드가 후손의 목숨을 위협에 빠뜨릴 뿐 아니라, 사실상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는 핵심적 원동력이 된다. 험난한 시대 하층민으로 살면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불굴의 의지를 가진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당함을 혐오하고 계급 지배를 증오하고 동정이 없어 '암호랑이', '강인한 여자' 혹은 '무시무시하게 근사한 여자'(178) '루시퍼의 아내'(351)로까지 불린다. 그녀가 운영하는 빵땅뚱안 와인바는 정보원의 집결지이자 혁명의 본거지다.

드파르쥬의 뜨개질은 한 가문을 멸족시켰고, 마차 사고로 누군가를 죽이고도 동전 한 잎 던지고 마는 귀족의 만행에 저항하는 행위이자, 그 동전을 마차 앞에 되던지는 민중의 용기와 기개를 그녀만의 기호로 기록한 과거와 현재의 서사물이며, 미래의 처형 기획이 담긴 기획서다.

사람들은 굴종하는 데 익숙했다. 이런 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는 법을 무시하고 어떤 짓을 하는지는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터라, 짝소리도 하지 못했고 손 한번 쳐들지 못했으며 눈조차 바로 뜨지 못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뜨개질하던 여인은 줄곧 고개를 뺨뺨이 세우고 후작의 얼굴을 쳐다보았다.(107)

드파르쥬는 처음에는 전형적 프랑스 술집 안주인이고, 경계하는 눈빛과 실수하지 않는 치밀함을 가진 장사꾼으로 묘사되지만, 가스파드의 아이가 죽은 다음부터는 불길하거나, 침묵하면서도 우뚝 서서 버티는 검고 강인한 형체(107), 운명의 견고함(107)으로 연민과 공포를 동시에 불러온다. 드파르쥬 부인의 뜨개질 행위는 사람들의 범죄를 기록하고 악당을 처단할 수의로 작용하며, 신비한 공포감으로 지속적으로 길거리에 출몰해 귀족의 악행을 고발하고 민중을 선동할뿐더러, 보복과 응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확신으로 혁명에 대한 남편의 의구심을 잠재운다.²⁴⁾

그녀는 계급 억압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정치적 여성이고²⁵⁾ 언제나 길 위에서 반동과 혁명을 꿈꾸고 체제전복을 기획하기 때문에, 집 안에서 기존 질서와 규범 미덕을 구현하는 가정의 천사 루시와는 대조적이다. 증오와 복수의 드파르쥬는 사랑과 보호의 루시 및 프로스 양과 대립될 수밖에 없다. 테레즈는 어릴 때 후작 형제의 음모와 모함으로 형부를 잃었고, 언니의 능욕과 오빠의 죽음을 겪었다. 그래서 에브레몽드 후작 형제가 자신의 언니 부부와 오빠에게 가한 악행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반영웅적 인물이다. 테레즈의 삶의 목표는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킨 에브레몽드 후작의 자손, 즉 다네이와 루시 가족을 몰살하는 것이다. 프로스는 이 복수의 동력 앞에 장애물이다.

사랑과 복수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루시와 드파르쥬 부인은²⁶⁾ 한편 '부르주아 계급'과 '평민 계급'의 대립적 정서를 대변하기도 한다. 태생이 좋은 루시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고, 되살아온 아버지를 효심으로 회복시켰으며, 차가운 기능인에게 뜨거운 불꽃을 되살려준 사랑의 화신이지만,

23) 루시 묘사에 대립되는 드파르쥬 부인 묘사는 마녀나 악녀에 가깝다. 작품속 테레즈는 19세기 노동자 여성의 육감적인 동시에 비난받을 인물로 그려진다.

24) Paul Davis, "A Tale of Two Cities," *A Companion to Charles Dickens* (Oxford: Blackwell, 2008), 416.

25) Ruth Glancy, *Charles Dickens's A Tale of Two Cities: A Sourcebook* (New York: Routledge, 2006), 99.

26) 폴 데이비스(Paul Davis)도 루시와 드파르쥬 부인이 상징적 대립물이라는 데 동의한다. Paul Davis, "A Tale of Two Cities," *A Companion to Charles Dickens* (Oxford: Blackwell, 2008), 416.

계획된 행동보다는 타고난 외모와 인내의 미덕에만 의지하는 보수적 여성관을 그대로 체현한다. 반면, 소작인 가문 출신인 테레즈 르파르주는 눈앞에서 귀족 계급의 만행을 보았고, 가족의 몰살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아왔으며, 자기 가족만이 아닌 다른 평민 아이의 목숨이 금전 한 닢인 현실에 저항하는 인권 투사이다. 빅토리아조 부르주아 계급 루시와, 계급 위계로 고통을 겪은 평민이자 반동과 혁명을 선동하는 하층민 테레즈의 대립은 필연적이다.

이 엄청난 감정적 격돌은 대단한 감상성을 폭발시킨 뒤 테레즈의 몰락으로 극적으로 귀결된다.²⁷⁾ 여성 혁명 지도자 드파르주는, 루시를 도피시킨 구체제 보호자 프로스와 몸싸움하다가 권총 오발로 어이 없이 죽는다. 쿠치크(John Kucich)는 디킨스의 멜로드라마와 감성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두 도시 이야기에서 드파르주 부인이 죽는 장면이 카튼의 희생보다 플롯상의 중요도가 적음에도 더 극적으로 강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²⁸⁾ '두려운 도덕적 무질서'로 구현되는 드파르주 부인이 죽는 장면은 여러 사건들의 합당한 해결을 넘어서는 뚜렷한 감상성을 대량으로 방출한다. 이처럼 두 도시 이야기는 남성적 역사소설보다는 여성적 멜로드라마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역사 소설의 이성적 요소가 멜로드라마의 감성성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3. 혁명의 정동과 기독교 윤리

두 도시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사건 속에 발전하는 양상이 미약하여 대부분 특정 자질을 고정값으로 갖고 있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두 도시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대체로 작품을 통해 성장이나 기대를 변화할 수 없는 '평면형 인물'인데다, 유일한 '입체형 인물'인 카튼조차 변화의 계기가 설득력이 약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성과 감정, 역사성과 감상성 사이의 균형적 교직은 결국 과한 감상성 방출과 정동의 위력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작품 전체에 넘치는 정동 요소에 주목해 볼만하다. 두 도시 이야기는 플롯상 혁명이라는 공적인 사건과 등장인물들의 사적인 삶의 연관성을 조망하지 만²⁹⁾ 마지막에 사적 삶의 감성성과 정동으로 폭발하면서 이 균형은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이다.

이성과 정동의 관점에서 논의하자면, 근대의 합리성은 우선 개인의 효용이라는 특수성을 위해 차갑고 냉철하게 계산하고 결과중심적인 이윤과 성과와 해결을 중시한다. 반면 전근대적 가족애는 보편 존재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온기와 따뜻함, 외상의 치유를 중시하므로 결과보다는 공감의 과정과 심리적 동기를 중시한다. 멜로드라마는 프랑스 혁명기에 등장한 대중 서사물로서 감정적 폭발과 권선징악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 이성적 주체 마네뜨, 다네이, 로리를 움직이는 내부 동력과 동인은 루시, 드파르주, 프로스가 대표하는 사랑, 복수, 보호의 정동들이다.

작품의 배경인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개인적 욕망 및 복수와 교직되다가 거대 서사는 미시 서사로 수렴된다. 이 모든 혁명의 원인은 에브레몽드 후작 형제의 비인간적으로 잔혹한 악행이었다. 젊은 시절 다네이의 삼촌은 미모의 20세 소작여성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의 남편을 노동과 기아로 죽게 만든 뒤, 마치 권리인 듯 그녀를 오랫동안 강간해왔고, 복수의 칼을 뽑은 17세 남동생마저 칼로 찌른 뒤 죽도록 방치했고, 그로 인해 환병난 아버지마저 죽게 만들었다.³⁰⁾ 복수의 정동은 후작의 혈육 다

27) 미스 프로스와의 극적인 대결에서 드파르주 부인이 오발로 죽는 장면은 사랑이 증오와의 격돌에서 사랑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려진다. 이런 감상적 구도는 역사소설로서 『두 도시 이야기』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두 도시 이야기』에 나타난 디킨즈의 사회적 비전』, 『신영어영문학』 56 (2013), 53.

28) John Kucich, *Excess and Restraint in the Novels of Charles Dickens*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1), 43-4. 쿠치크는 드파르주가 자신의 원칙이 아니라 주인공의 하인 계급인 프로스에게 사고로 죽는다는 점도 지적한다. 드파르주는 목숨을 잃지만 프로스는 청력을 잃을 뿐이다. 디킨즈의 악당은 폭력과 권력을 을 사용하는데 이런 악당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스쿠루지, 돔비, 팩스니프 같은 탐욕적 부르주아 수전노이고, 두 번째는 드파르주 같은 멜로드라마의 적대자이자, 정치적 경제적 풍자와 관련된 인물이다. *Ibid.*, 50-51, 61-62.

29) 장남수, 『역사소설로서 『두 도시 이야기』의 성취』, 『영미문학교육』 13.1 (2009), 168.

30) 『두 도시 이야기』 10장은 이 모든 사건의 실마리와 열쇠가 들어있는 핵심 장이다. 죽어가던 테레즈의 언니는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남동생”이라는 말을 중얼거린 후, 열덜까지 숫자를 세고 “셋”이라는 말을 반복하다 숨을 거둔다. 이는 후작 형제가 합심하여 여자의 가문을 몰살시키고 남편마저 죽인 내막이 밝혀진다. 후작 동생이 소작여성을 합법적으로 취하고자 몸이 약한 그녀의 남편을 수레에 매어 끌고 다니고, 잠을 안 재우고, 밤서리를 맞게 하고, 또다시 마구를 매게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것이다. 남편은 고통스럽게 시계종소리에 맞추어 열 두번 흐느끼다 아내 품에 죽는다. 반복되는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남동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셋!”의 절규는 가족과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절망의 한스러운 외침이다. Charles Dickens, *A Tale of Two Ci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13.

네이의 심판하게 만들었고, 악행을 일삼은 귀족들의 살생부를 만들었고, 중국엔 프랑스 대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드파르주의 개인적 원함과 복수는 역사적 대사건인 프랑스 대혁명의 주요 동인이다. 줄리엣 존(Juliet John)은 드파르주 부인의 가학적 폭력은 언니의 강간 가족의 살해에 대항하는 것이고, 귀족의 특권과 남성 권력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설명한다.³¹⁾ 그러나 디킨스에게 드파르주는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문상화는 이 작품에서 디킨스의 역사가관이 변화에 대한 불안을 보여주는데다 혁명은 퇴보로 간주한다고 본다.³²⁾ 혁명으로서의 역사는 기존 정치 사회 행위 영역을 거슬러 기존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노출하고 사회 조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무질서와 혼돈의 양태라는 것이다. 혁명에 대한 저자의 부정적 평가는 대중은 '피에 굶주린 야수', 드파르주는 사적 복수심에 사로잡힌 '암호랑이'라는 반복된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디킨스는 역사소설을 쓰면서도 역사성을 약화하고 가정의 이데올로기를 사회의 안전망으로 생각했고, 또 그 안전망을 통해 영국이 프랑스보다 건전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역사성과 이성이 개인성과 감정으로 수렴되는 대표적 사례가 시드니 카턴인데, 그는 작품 초반에는 삶에 대한 냉소와 사무에 대한 혐오가 강해 솔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인물이었다. 진지한 바이런형(non-comic Byronic) 인물로 삶 전반에 고뇌와 우울,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의식하던 카턴은 결국 바이런식 멜로드라마로 작품을 종결짓는다.³³⁾ 원함과 자기혐오가 강했던 카턴은 작품 후반에는 감상성을 폭발시키며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놓을 정도로 희생적이고 고결한 인물로 변화한다.

카턴의 루시에 대한 사랑은 활기 없고 죽음같은 삶을 활기차고 의미있는 죽음으로 극적으로 변화시킨다. 카턴의 강한 의지력과 행동력은 지금까지의 권태와 무의미 및 회의의 자세와 극단적으로 대립된다. 그는 루시를 위해 또 루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희생이던 기꺼이 하겠노라 선언하고 다네이를 구하는데 이 때의 사랑의 대상 루시는 개인적 매력이나 성격이 아니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가정의 천사, 성모 마리아로 정형화된 이상에 동화된 것으로 보인다.³⁴⁾

죽음을 앞둔 카턴은 요한 복음 11장의 성경구절을 되뇌며 예수의 모습까지 구현한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360)를 되뇌며 사형장으로 걸어돌아가기 때문이다. 희생으로 복수를 막는 카턴의 행동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윤리를 보여주며, 복수로서의 정의를 내세우는 드파르주 부인을 압도하는 승리를 가져온다. 그는 제일 평화롭고, 숭고하고 예지하는 모습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360). 혁명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과 대비적으로, 혁명의 폐허속에서 아름다운 도시와 훌륭한 국민 다시 일어서는 미래를 예지한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생명을 내려놓음으로써 다시는 보지 못할 그들이 영국으로 돌아가 평화롭고 보람되고 번창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녀가 내 이름을 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이들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환자를 정성껏 돌보며 편안하게 지내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그들, 아니 대를 이어 그들 후손에게도 마음의 성소가 되리라는 것을.....내가 지금 하려는 일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행위보다 훨씬 더 숭고하다.(360-1)

세상에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목적 없이 부유하던 카턴은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출중한데도 세속적 성공의 삶을 거부하고 희생적 죽음을 택했다. 부르주아적 성공지향의 삶의 불모성의 허무함을 느꼈

31) Juliet John, "Sincerely Deviant Women, Dickens's Villains: *Melodrama*, 드파르주, *Popular Culture*. (Oxford: Oxford UP, 2001), 232.

32) 문상화, 『『두 도시 이야기』-디킨스의 도덕적 관념에 관한 해석』 『영어영문학21』 23.4 (2010), 197.

33) Juliet John, "Byronic Baddies, Melodramatic Anxieties," *Dickens's Villain: Melodrama*, 드파르주, *Popular Culture* (Oxford: Oxford UP, 2001), 189.

34) 성은애는 아이의 죽음에 대한 두 계급의 반응이 감상에 있어 대립적이라고 주장한다. 똑같은 자식의 죽음을 놓고 부르주아인 루시는 고통이 없고 초연한 반면, 빈민가의 익살꾼 가스파르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는 것이다. 성은애. 『『두 도시 이야기』의 감상성』. 『근대영미소설』 19.1 (2012): 66-69. 그러나 엄밀히 말해 둘의 죽음은 맥락이 다르다. 루시의 아이는 병석에서 오래 앓다 편히 죽었지만, 가스파르의 아이는 파리의 길거리에서 에브레몽드 후작의 마차에 치어 갑자기 죽었다.

던 그가 마네트 부녀에게 감화되어 사랑, 명예, 약속, 의무 같은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지만, 이런 자기희생은 자유주의 주체의 절대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보편인권 시민 주체 이념과 궁극적으로 충돌하는 면도 있다.³⁵⁾ 피케트는 이 지점에서 디킨스가 혁명의 극단적 집단주의를 배격하고 근대 생활의 유아론이나 개인주의로 뛰어넘을 제 3의 양식을 꿈꾸고 있다고 분석한다.³⁶⁾ 이처럼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실 뒤에서 동력을 추동하는 것은 사랑과 복수의 정동이다. 그런데 계급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원한과 복수라는 개인적 문제가 충돌할 때 디킨스는 개인의 희생과 종교적 미덕으로 풀어낸다. 그에 따라 이성으로 수렴될 뿐 아니라, 복수의 정동은 사랑의 미덕으로 수렴된다. 신인류의 평등한 시민권을 향한 혁명의 전사가 아니라, 구계급이 이상화한 집안의 천사가 최종 승자가 되는 것이다.

4. 파리와 런던 너머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수의 보편성을 수렴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의 구현인가, 아니면 소수의 개인적 원한과 복수를 정당화할 명분인가? 역사적 혁명과 개인의 사랑이 공존하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무엇이 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맥락과 상황에 따라 기독교적 희생과 윤리조차 혁명 혹은 반혁명 정신이 될 수 있다. 두 도시 이야기 에서 혁명은 광기어린 분노와 복수로 수렴되고 그 폭력성은 개인의 사랑과 희생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마치 혁명에 참가한 민중들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질서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반면, 빅토리아 귀족 덕목과 기독교 윤리는 이 모든 역사적 혁명성을 잠재울 구원의 장으로 보인다.

작품배경이 된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바스티유는 국왕의 영장이라는 명목으로 백지서류에 아무 죄목이나 기입해 누구든 몇 년이고 망각상태로 보낼 수 있는 특권의 상징이었고, 파리는 굶주린 민중들의 고통과 불만이 최고조인 장소였다. 그리고 디킨스가 이 작품을 저술한 19세기 초중반 영국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로 차티즘 운동, 만국 박람회 거처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지배권이 공고해지고 있었다.

디킨스가 집필한 19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1848년 혁명이 좌절되면서 진보층은 피로감을 느꼈고, 1850-60년대에는 노동계급에 의한 혁명의 우려가 거의 사라졌다. 그에 따라 혁명에 대한 디킨스의 관점 또한 편향된 경향이 있다. 군중에 대한 불신, 제도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를 달리 파악하는 한계, 무질서에 대한 불안 등이 작품에 투영된 것이다. 허터스(Albert Hutter)는 이 소설을 사회 국가적 사건과 개인의 심리의 결합으로 보고, 개별 사건이 정치성과 결합되어 개인적 복수, 부친살해, 국왕살해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³⁷⁾ 당대의 정치적 혁명의 정당성과 개인의 사적 원한의 보복의 부당성, 역사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는 작품내에 양가적으로 녹아들어있다.

21세기 한국은 어떠한가? 18세기 민중 혁명 당시 만민의 아버지이던 군주를 대중 앞에 공개처형한 대혁명은 이웃 나라 영국에게 불안감을 가져다주었고, 19세기 영국인 디킨스의 무질서에 대한 불안감은 역사소설의 틀을 사용해 당시 부르주아 규범과 기독교 윤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결국 혁명은 공포스러운 무질서를 낳았고, 그것이 파급시킨 폭력과 무고한 사회적 희생은 개인의 사랑과 개별적 희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지금 한국은 성간 분노와 혐오가 넘쳐나는데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정의가 '보편성의 회복'이 아니라 '개인적 원한의 복수'라면, 이 작품의 서문을 쓴 샌더스가 지적하는 카턴의 희생의 역설적 의미를 '복수로서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⁸⁾ 디킨스가 결말부에서 부활과 생명에 대한 요한복음 11장을 가져와 카턴의 기독교적 희생을 논의하면서 혁명의 특수성이 기독교적 인간애의 보편적 자비로 바꾼 것은, 혁명을 통한 정치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사랑과 용서에 근거한 개인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루카치의 말대로 소설이 현실의 총체적 반영을 해야 한다면, 이 작품은 그 반대지점에 있다. 폭력과 무질서와 광기로 가득한 혁명의 부정성을 강조하면

35) 장남수, 「역사소설로서 『두 도시 이야기』의 성취」, 『영미문학교육』 13.1 (2009): 174-5.

36) Lyn Pykett, *Charles Dickens* (London: Palgrave, 2002), 164.

37) Albert Hutter, "Nation and Generation in *A Tale of Two Cities*," *PMLA* 93.3 (1978): 451.

38) 앤드류 샌더스는 이 소설에 붙이는 서문에서 카턴의 죽음은 정의와 자비를 화합시키기도 하지만, 둘을 대립시키기도 하는 역설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카턴의 죽음은 역사소설의 틀 안에 있는 특수성의 패러독스를 보게 한다고 주장한다. Andrew Sanders, "Introduction", *A Tale of Two Ci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x.

서 사회적 격변의 한가운데 있는 혁명의 의미를 축소하고 개인의 변화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두 도시 이야기는 혁명에 대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라기보다는 무질서에 대한 불안과 공포라는 주관적 의미가 강하다.³⁹⁾

21세기 한국의 관점에서 정의를 문제는 중요하다. 혐오가 중요 동력이 된 무한경쟁 피로사회에서 루시의 무역사적 사랑과 테레즈의 역사적 복수 중 어떤 정동이 더 필요할까? 작품속 루시는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이상적 양태이자 천사로 그려지는 반면,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민중 세력의 핵심 동력 테레즈는 무고한 죽음을 야기하는 부정적 무질서나 악마로 그려져 처단된다. 역사적 사실성과 감상적 멜로드라마가 교직되다가 감정으로 수렴되는 양상으로 볼 때, 결국 역사적 정의는 정당성을 잃고 개인의 원한에 대한 사적인 복수로 축소된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사적 로맨스가 공적 영역에서의 절망을 드러낸다고 본다면⁴⁰⁾ 역사성이 감상성으로 수렴되면서 정의의 문제도 흐려진다. 정의는 무엇인가? 무조건적 사랑과 희생도 아니고 개인적 원한의 보복도 아니라면 어쩌면 모두가 동의할만한 공공성과 공익성에 근간한 보편윤리에 근간한 것은 아닌가? 동기보다는 성과,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여전히 양가적이고 논쟁적인 정의의 문제에 19세기 영국문학 두 도시 이야기는 질문을 던진다.

39) 혁명이라는 광기와 무질서라는 질병의 도덕적 감염에 대항하여,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는 도덕적 치유의 다양한 실행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디킨즈 역시 혁명이라는 단기간의 급진적 변화에 대한 방어책으로 자기관리와 개인의 책임 회복에 초점을 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강조한다. 그에 따라 드파르주는 두려운 도덕적 무질서의 총체적 구현으로 간주되고 뜨개질이나 자수 넣기는 살생부를 나타내는 무법적 파괴성으로 표현된다. 디킨즈에게 혁명은 퇴보이며 무법적이고 초법적 무질서와 폭력의 현장인 반면, 수동적 여성상인 가정의 천사만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그려진다.

40) David D. Marcus, "The Carlylean Vision of *A Tale of Two Cities*," *Charles Dickens's A Tale of Two Cities*, ed. He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34.

나르시시즘으로 읽어 본 <유산>

박 부 순(전북대학교)

I. 서론

울프(Virginia Woolf)가 활동하던 20세기 초반의 영국은 가부장제로 인한 남성의 우월의식, 사회에서는 혼란과 분열, 그리고 정치에서는 독재의 양상이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남성 이름을 사용하여 작품 활동을 한 여성작가들이 있었을 만큼 여성들에게 배타적이었다. 당연히 사회적 계급관계에서 야기되는 인물의 외면에 중점을 두는 일부작가들이 있었다. 울프는 이들을 유물론자로 비판하며 그들에게 내면을 보라고 요구하였다. 그녀는 인간의 내면, 즉 객관적인 외양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식 또는 무의식속에서 삶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주목해야 할 것은 포착하기 힘든 삶의 내면의식과 그 내면에서 유동하는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울프가 주창한 당대 영국소설의 혁신적인 기법인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이다.

타고난 섬세한 감수성과 '의식의 흐름'으로 탄생된 그녀의 작품은 당대의 남성작가들의 작품과 차별화 되기에 충분했다.《등대로》(*To the Lighthouse*)를 비롯한 몇몇 장편소설과 여성론적 입장을 피력한 강연문집인《자신만의 방》(*A Room of One's Own*), 그리고 많은 단편소설에서 그녀는 억압받던 여성들의 삶을 폭로했다. 따라서 울프의 작품들이 대부분 소설기법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연구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남녀 사이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의식 속에서 합일의 순간을 창출해 내고자 노력했던 울프의 사상과 인간의 의식 상태를 논리적 배열이나 순서로 꿰뚫어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여성문제를 남녀 상호간의 심리학적 측면으로 접근해 보는 일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연구 실적이 저조한 단편소설의 선택은 울프의 작품을 다양한 각도로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단편소설은 그녀의 다양한 서술구조를 실험한 공간이자 일종의 정신적 탈출구였기 때문이다.

나는 어디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약간의 철학을 얻었다는 것이 기쁘다. 그것은 일종의 해방감에 해당한다. 나는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며 거기에 목적이 있다. (*Diary* 166)

울프는 이와 같은 단편소설인 <유산>("The Legacy")에 주인공인 길버트(Gilbert Clandon)의 내적독백과 의식의 변화를 채워놓았다. 그것은 사망한 아내, 안젤라(Angela)가 남긴 15권의 일기장을 읽으며 순간순간 느끼는 길버트의 감정과 진실을 알아가는 변화의 과정들이다. 마치 울프가 우즈강에 투신자살을 하며 남편, 레너드 울프(Leonard Woolf)에게 남겼던 유서를 통해 독자가 진실을 하나하나 파악 하듯이 말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울프가 독자에게 남긴 유산처럼 느껴진다. 유산을 받은 독자로서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다른 각도로 작가에게 답례하고자 한다.

<유산>은 여성의 자아추구, 남녀평등의 성 역할, 그리고 의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리뷰된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멋(McManus Dermot)이 <유산>을 읽은 독자는 "울프가 자기애의 주제를 탐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1)라고 말한 것처럼 길버트의 삶은 자기애로 구축되어있다. 그는 죽은 아내의 일기장을 보면서 왜 그녀가 죽음을 선택 했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극찬하거나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만을 골라 읽는다. 이러한 장면에서 독자는 그의 "나르시시즘"(narcissism)을 포착하기에 충분하다. 나르시시즘은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하여 그 모습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샘물에 빠져 죽고 수선화가 되었다는 나르키소스(Narcissus)신화에서 유래되었다. 1898년에 엘리스(Havelock Ellis)가 심리상태를 설명하고자 자기애적인(narcissistic)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후, 프로이트(Sigmund Freud)가《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1905)⁴¹⁾에서 주석을 달면서부터 정신분석학의 중요한 용어가 되었다.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이 나르시시

41) 프로이트는 이 논고를 통해 나르시시즘의 개념을 정신의학에 도입했고, 악타와 톰슨(1982)은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하나의 분류단위로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1911년에 랑크가 처음으로 나르시시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논

즘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인간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나르시시즘 또는 자기애는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중심성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한다.”(<https://ko.wikipedia.org/>)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인공 길버트의 나르시시즘이 어떠한 방법으로 타인을 규정하며, 현실을 왜곡하고 자신만의 환상 속에서 사는지 그리고 이러한 그의 태도가 아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다.

II. 본 론

2.1 타자 규정하기

나르시시스트의 세상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들에게 타인의 관심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한 행동을 이기적인 것과 비교하여 바르데츠키 (Bärbel Wardetzki)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건전한 이기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보살피며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게 해 준다. 이로써 우리는 만족감을 얻고 무난한 동시대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자기중심주의는 오로지 자신의 제국에만 골몰해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은 오로지 이 제국을 지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40)

길버트에게 있어서 안젤라는 자신의 권력과 명성을 쌓는데 필요한 조력자에 불과했다. 길버트는 아내가 외식장소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모임에서는 웨딩드레스를 차려입고 자신의 상사로부터 강력한 애정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녀를 자랑스럽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길버트는 안젤라를 비롯한 여성을 성적 대상 또는 장식품으로 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작품의 초반부에 길버트는 아내가 남긴 브로치를 씨시(Sissy Miller)에게 건네주면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 선물인 듯 보인다. 그녀에게는 돈을 남겨주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을, 아니면 타자기라든가”(1999)라고 생각한다.

2.2 현실의 왜곡과 환상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만의 환상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그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방어벽을 세운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은 물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가둔다. 이렇게 해서 창조된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그들은 주변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말과 행동으로 위안을 주며 또한 이 세계에 걸맞도록 그들에게도 이상화된 역할을 부여한다.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의 거장”(Martinez-Lewi 10)인 그들은 완벽함과 권력추구에 대한 환상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진정한 완벽함이 아닌 자아도취에 빠진 그들은 자신의 특별한 세계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간단히 무시하거나 생각에서 지우는데 익숙하다. 그들은 자기가 불완전하고 무의미한 존재라는 느낌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느낌을 받을 경우, 그는 기꺼이 “마법적 사고(magical thinking)⁴²⁾, 타인을 이용하는 이상화, 수치심 떠넘기기⁴³⁾, 타인 깎아 내리기등과 같은 전술들”(Hotchkiss 27)을 동원하여 그 감정들을 회피한다. 그러므로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하다.

길버트는 씨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관심의 대상을 자신에게로 돌린다. 길버트의 관심은 죽은 아내에

문을 썼고, 나르시시즘에 대한 프로이트의 논문은 1914년에 출판되었다. 1925년에 왈더는 ‘자기애적 성격’을 기술한 내용을 발표했고 그 후,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는 성도착에서 자기에 대한 관심집중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임말희 2)

42) 어떤 사실에 대한 엄청난 왜곡과 환상을 심리학자들은 마법적 사고라 부른다. (호치키스 23 참조)

43) 심리학자들이 투사(projection)라고 부르는 이 방법을 호치키스는 수치심 떠넘기기(shame-dumping)라고 부른다. (호치키스 23)

대한 애도도 사랑하는 오빠와 친구를 잃은 씨시를 향한 위로도 아닌 오로지 자신인 것이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며 웃음을 띤 채 아내의 일기장 한권을 펼쳐 들고 읽는다. 그 순간 아내가 자신을 위해 준비된 대답이라도 하듯 그는 "'길버트,' '너무 멋져 보였다 ...'(1999)에 시선이 고정된다. 자아도취에 빠진 길버트는 아내가 외롭다거나 또는 다른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2.3 안젤라의 죽음

나르시시스트들은 부풀린 자아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맘껏 쏟아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의 소유자들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주변에 세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을 더 똑똑하고 창조적이고 현명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자들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이 경쟁에서 성공했다는 우쭐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마르티네즈 루이(Linda Martinez-Lewi)는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고착화된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기도취적인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심리적으로 구분하지 못한다. 모두가 그의 일부이므로 그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대할 수 있다. 자기도취자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자기만의 생활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한다. 그 결과 자기도취자는 오로지 그를 위해서만 행동해야 하는 물건처럼 타인을 대한다. (204)

이와 같이 각자의 영역이 존중되지 않는 나르시시스트와 타인과의 관계는 항상 파국으로 치닫는다. 그는 피카딜리 커브길에서 주먹을 움켜준 안젤라가 차에 치이는 장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분노에 찬 그는 전화로 씨시에게 비엠이 누구냐고 소리를 지른다. 긴 한숨 후 씨시는 비엠이 자신의 오빠라는 답변과 함께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이 필요하냐고 묻는다. 그러자 길버트는 "전혀"(Nothing!), "전혀"(Nothing!)라고 울부짖는다. 아내의 일기는 유산이며 진실이므로 왜 아내가 이러한 극도의 선택을 했는지 길버트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러나 더 이상의 설명을 거부하는 길버트는 "안젤라의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대신에 단지 성적으로 다른 남성을 좋아하는 한 여성을 본다."(Lavine 78) 안젤라는 남편을 사랑했으나 길버트는 오로지 자신만을 사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대체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모든 대화의 끈을 자르기"(Bouchoux 134)인 것처럼 안젤라는 길버트의 정신적 각성을 위해 진실이라는 일기를 유산으로 남기고 자살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은 길버트가 잘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 여자, 곧 아내가 실은 자신과 삶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Kiely 88)라고 한 것처럼, 안젤라의 죽음은 "길버트가 아내와 결혼에 관해 가졌던 환상을 최종적으로 깨닫고"(Meyerowitz 246) 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Ⅲ. 결 론

나르시시스트로서 길버트는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규정한다. 그는 아내를 자신보다 지적인 면에서 늘 열등하다고 여기며,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자신의 종속물로 인식한다. 길버트는 아내뿐만 아니라 주변인물까지도 자신의 주관대로 정형화 시킨다. 항상 아내와 함께 자신의 일을 도우며 가족처럼 살아온 씨시도 그에게는 단지 우중충하고 자그마한 그런 부류의 수많은 여성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는 아내의 일기 속에 등장하는 비엠을 여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의견을 떠벌이는 쫓대 없는 사람, 낮 동안에 정직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인간이라고 단정 짓는다. 비엠이 아내와 심각한 사이이며, 혁명의 필연성을 믿는 사회주의자로 자신과 반대급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길버트는 상대의 자유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주관대로 타인을 속단한다. 그러므로 길버트는 "환상과 현실로 짜여있는 작품의 구조"(Villgratder 288)처럼 오랜 세월동안 현실을 왜곡하고 환상의 세계에서 소통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아내가 자아를 찾는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조차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만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젤라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봉사해야만 하는 남편과 자신을 한 인간으로써 인정해주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비엠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결국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여성이전에 한 인간 존재로서 나르시시스트에 맞선 항거이자 남편에 대

한 최선의 예우였다.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길버트이기에 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된 자신의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안젤라의 죽음은 길버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최근 각계각층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의 근처에는 다양한 '권력형 나르시시즘'이 존재한다.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나르시시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요즘, 이 글을 통해서 독자들 개개인이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Different Intensity of Emotions in Bilingualism

Yohan Hwang · Changsoo Kim

(Konyang University)

I. Introduc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bilinguals perceive, produce and experience the difference of emotional intensities when living with two languages and learning a second language (L2 hereafter) after the first language is acquired (L1 hereafter). In order to accomplish this goal, through an in-depth review of relevant research on emotions and bilingualism, this paper not only investigates some famous English literature, language memoirs written by bilingual writers, from a qualitative tradition, but also it conducts a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a web-based survey questions containing emotional issues that language memoir authors raise in their books, answered by 110 Korean university students who are learning English as their L2.

II. Literature Review

From a perspective of linguistic relativism, bilinguals may think and feel differently depending on which language they use. In fact, the existing literature on bilingualism and emotions is extensive and focuses particularly on linguistic and social contextual influences as a contributing factor of the differences between two conceptual worlds made available by each language. For example, Wierzbicka (1994) claims that the way people interpret their own emotions depends on the vocabulary provided by their native language. Following this line of argument, Pavlenko (2005) champions that in the case of bilinguals who are operating in two different languages, the interpretation of emotions might change because of exposure to L2. They believe emotional conceptualizations and representations are highly associated in the semantic network; therefore, bilinguals face with more degrees of conflicts from a pre-existing world in their mind set made by their L1 and experience different emotions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them into a new language and some sort of corresponding conceptual categories.

Metaphorically speaking, bilingualism seems to be a process where the L1 (water) and the additional language (oil) are mixed. Scientifically, although water and oil fall under the same category as liquid, they cannot be simply mixed in tandem because the molecular structure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It could be possible to combine two substances by shaking; however, they will be separated again a few minutes later due to a surface tension which refers to the

existence of force that the surface of a liquid creates to resist in contact with external force (Gray, 1922). Likewise, when oil (L2) is added into a bilingual's mind already soaked with water (L1), a pre-existing system of L1 that underlies its own process and encoding of understanding the world may make L2 to be floating on the surface instead of being mixed. The bilinguals need some helping substances such as detergents or soaps to combine water and oil to avoid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the perception of two languages and worlds. With this in mind, numerous researchers have attempted to understand how emotions and emotion-laden words or concepts made by two different languages are encoded and processed in the bilingual internal and external world.

In this light,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in a genre of autobiographical writing as a research tool to explore the bilinguals' life and development, especially with regard to emotions. This is because an analysis of autobiographical narratives provides researchers with more direct methods of eliciting data from exploration of bilingual's memories and actual life experiences from cognitive and social perspective (Besmeres, 2011). Therefore, the study of autobiographical writing has its unique value in examining the bilingual's mental and social life within various contexts where the subsequent language is perceived, processed, and encoded.

III. Research Methods

In this study, I closely examined four language memoir books: *Lost in Translation* by Hoffman (1989), *Dreaming in Chinese* by Fallows (2011), *Dreaming in Hindi* by Rich (2010), *Two Languages, Two cultures, One(?) Self* by Wierzbicka (2007). The rationale for choosing these books is that they have been widely read in the field of L2 learning and acquisition. In addition, they explicitly express emotional struggles in their life story as a beginner of L2. In addition, in order to provide more rigorous data in terms of reflectivity and to see whether a certain emotional difference is just happening to bilingual writers or not, I also conducted the web-based survey questionnaire to 110 Korean-English bilinguals who learned English as their second language. They were the first and second year university students in the courses where I have taught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d their language proficiency varied from beginner to intermediate. The questions in the Table 1 below came from the issues raised from the four language memoirs books to see how late bilinguals who has a low proficiency level also see, perceive, and experience the emotional differences between L1 and L2.

<Table 1. Web-based Survey Questions>

Strongly Agree (5)	Somewhat Agree (4)	Neutral (3)	Somewhat Disagree (2)	Strongly Disagree (1)
1. Do you feel more “coldness” (distance and detachment) when you hear and speak English than Korean?				
2. When you reject someone’s request, do you feel a stronger intention of refusal if you say “안돼요 (an-dwae-yo)” than “No”?				
3. Do you feel more emotions of politeness when you say “제발 (jebal)” than “Please”?				
4. Do you feel more emotional impacts when you say “미안해 (mi-an-hae)” than “I am sorry”?				
5. Do you feel more emotions when you hear “I am moved” than “감동이야 (gam-dong-i-ya)”?				
6. Do you feel more emotional intensities when they think of “우정 (u-jeong)” than “Friendship”?				
7. Do you feel more emotional intensities when you say “사랑해 (sa-rang-hae)” than “I love you” to your beloved?				

4. Findings and Discussion

First, consider the following excerpt from Hoffman (1989)'s memoir book, *Lost in Translation*.

My mother says I’m becoming “English.” This hurts me, because I know she means I’m becoming cold. I’m no colder than I’ve ever been, but I’m learning to be less demonstrative [...] (p. 146).

In the process of adapting the different social behavioral norms, Hoffman certainly perceived that her native language (Polish) has a higher emotional involvement whereas English (L2) is experienced as colder, more distant, and more detached from her feelings and gestures. Interestingly, of the 110 participants who completed the web-based survey, almost two-thirds of the participants (28% of Strongly Agree and 44% of Somewhat Agree) indicated that they feel “being colder” when they hear and use English than their first language, Korean. Furthermore, in a response to another question, “When you reject someone’s request, do you feel a stronger intention of refusal when you say 안돼요 (an-dwae-yo) than No?” a majority of participants (42% of Strongly Agree and 43% of Somewhat Agree) indicated that they feel more higher emotional impacts of rejections when they hear “No” in English than their native language. Fallows (2012), a L1 speaker of English, provides similar examples in her book when she felt coldness and rudeness in hearing L2 expressions around her daily life in a Chinese community.

Passengers inside jam-packed subway cars jostle and yell “Xia che!,” “Off the car!” There is no “Excuse me,” “pardon me” or “Sorry” to be heard [...] Fuwuyuan! Fuwuyuan! Or Waitress! Waitress! Diners cry to demand a glass, a bowl, or a pair of chopsticks. And no “Miss, could you please get me another beer?” (p. 26).

When she experienced these moments, she felt that Chinese (L2) is emotionally colder, extremely detached from politeness. However, she learned from different social and cultural understandings that they did not seem intended because in many Asian cultures inserting words

that the L1 speaker of English consider politeness may transfer to social distance. She demonstrates the specific moment when Chinese actually considers a polite expression as inserting a formality in a relationship which sets some kind of distance.

My Chinese friends say they notice that Westerners use lots of pleases (qing) and thank you (xie xie) when speaking Chinese. And actually, they say, we use way too many of them for Chinese tastes. A Chinese linguist, Kaidi Zhan, says that using a please as in "Please pass the salt" actually has the opposite effect of politeness here in China. (p. 33)

Likewise, most of the Korean-English bilingual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expressed a different degree of emotional weights on the English expressions of politeness (please) or apology (I am sorry). When asked whether they feel more emotions of politeness when they say 제발 (jebal) than please, 85% (51% of Strongly Agree and 34% of Somewhat Agree)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feel more emotions in using their native language. In addition, in response to the survey question: "Do you feel more emotional impacts when you say 미안해 (mi-an-hae) than I am sorry?" 65% (27% of Strongly Agree and 38% of Somewhat Agree) of participants answered making an apology in their native language, Korean, carries their emotion in a more sincere way.

Another finding is that Wierzbicka (2007) in her book chapter, *Two Languages, Two Cultures, One(?) Self*, introduces her struggles of L2 writing from untranslatable Polish (L1) expression of "being touched." When she wrote a thank you letter to her English friend who gave a gift of CD to her, she wanted to express her thoughts something like "I listened with emotion," which clearly came to her mind in Polish. However, she realized that it was difficult to think of the equivalent expression that conveys the same feeling. She ended up writing with "I listened with great pleasure." The major point made by Wierzbicka here is that the emotional difference becomes more intense when it comes to an emotion-laden expression that cannot be translated into L2. She used L2 word "pleasure" as a substitution of her L1 emotion, but the same emotion was not automatically arousal to her mind, and it accordingly failed to activate another affective connotation that carries the same meaning with "listen with emotion." This emotional difference can also be found in the survey answers from Korean-English bilinguals. In a response to the question, Do you feel more emotions when you hear "I am moved" than "감동이야 (gam-dong-i-ya)?"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37% of Somewhat Disagree and 21% of Strongly Disagree) answered that "being moved" cannot convey the exact and same emotions accessible by the use of their L1, Korean. The similar example was elicited with the concept of a word, friendship. Through an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Polish and English, Wierzbicka (1994) finds that there is a non-equivalence of two languages for human relationship, friendship in particular.

We like each other quite well, though I'm not sure that what is between us is "friendship" - a word which in Polish has connotations of strong loyalty and attachment bordering on love. At first, I try to preserve the distinction between 'friends' and 'acquaintances' scrupulously, because it feels like a small lie to say 'friend' when you don't really mean it, but after a while, I give it up. (p. 148)

Likewise, 70% (37% of Strongly Agree and 33% of Somewhat Agree) of those who were surveyed indicated that they feel a more higher emotional bond when they think of 우정 (u-jeong) than the same English word, friendship. This is because the Korean word, 정 (jeong), is one of the unthinkable and untranslatable word into other languages. Therefore, English suffix, -ship, cannot evoke the same amount of feelings or social emotions. In the same vein, Fallows also finds the differences on particular emotion of love. When she talked to her friend Julia, a L1 Chinese-L2 learner of English speaker, in English, in a response to Fallows's question: "I'm sure you must love your husband a lot", Julia said "Yes, I love him for now." Fallows started to wonder what Julia meant by "for now." She found that there was an emotional veil across the languages, which is produced by one of the linguistic affects, verb tense. She states:

Love, this English word: like other English words it has tense. 'Loved' or 'will love' or 'have loved'. All these specific tense mean Love is time-limited thing. Not infinite. It only exists in particular period of time [sic]. In Chinese, Love is (ai). It has no tense. No past and future. (p. 21)

Furthermore, from an observation of people talking on the street, Whenever she heard the words, ai (to love), she felt that many Chinese people toss the expression "I love you" lightly in many situations. Even though there might be some contexts where Chinese actually use it lightly, it is also possible that she was less emotionally involved when she heard "I love you" in her L2. In regard to this issue, what is interesting about the data from the survey is that almost two-thirds of the participants (41% of Strongly Agree and 37% of Somewhat Agree) said that they feel a stronger emotion of love in their native language when answering to the survey question, "Do you feel more emotions when you say 사랑해 (sa-rang-hae) than I love you?" This result suggests that bilinguals perceive emotional words or expressions differently across two languages, and emotion-laden expressions are more deeply perceived and encoded in the L1 than L2.

IV.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dentify how bilinguals perceive, produce, and experience emotions differently between two languages. Specifically, the personal reflections from sociocultural experiences in language memoir books convincingly reveal that bilinguals experience emotional resonances and dissonances when translating themselves into L2. Furthermore, the answers of Korean-English bilinguals from the web-based survey show emotional vocabulary and expressions in L1 can be delivered more accurately and vividly in their min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f bilinguals have different conceptual concepts and categories across two languages, they experience different emotional intensities depending on the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cting on L2 acquisition and learning. As bilingual writers put their emotions in the language memoirs in this study, I close this paper with my emotion as a bilingual (Hwang, 2013).

I don't know how to measure love in pound.

Many times I've used love in English expression

I need an emotional scale to weigh love instead.

I've never made love lighter, desperate, dead,

but I experience less resonance in English emotion.

I don't know how to measure love in pound.

because in South Korea, we allow kilogram to be measured.

10 pounds of love are enough? There's no answer to this question.

I need an emotional convertor to weigh love instead.

All over the world, love's color is red,

but we all have different redness in our perception.

I don't know how to measure love in emotional rebounds.

Convertor teaches me 4.3 kg is equal to 10 pounds.

Well, it was not heavy enough to seed my affection.

I needed an emotional convertor to weigh love, instead,

I feel much more love from 사랑해 (sa-rang-hae) you said.

Vivid smell of love still lingers on my impression.

I don't know how to measure love in pound.

I need 사랑 (sa-rang) to weigh your love instead.

초등영어 주제중심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요구

청주 강내초등학교 서귀원

I. 서론

글로벌 시대 및 지식 정보화 시대로 대표되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사용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인 역량이 되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어과 핵심역량으로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제시하면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 세계인과 소통하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문화를 세계로 확장시켜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학교 교육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6차 교육과정부터 현재의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일관되게 진술되고 있는 학교 영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다. 제 2언어 습득 분야의 여러 학자들(Krashen, 1981; Long, 1996; Mackey, 1999)은 제 2언어의 의사소통 능력은 풍부한 이해 가능한 입력과 상호작용의 기회가 주었을 때 발달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시수는 3, 4학년은 주당 2시간, 5, 6학년은 주당 3시간으로 영어를 접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김정렬, 2013; 이재근, 2002) 또한 우리나라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이기 때문에 교실 외의 환경에서 영어 사용의 기회를 갖기 힘들다. 이러한 영어 교과목의 물리적 시수의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영어 사용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통합 영어 교육이다(김정렬, 2003, 2005; 배지영, 우길주, 2009; Brinton, Snow & Wesche, 1989; Grabe & Stoller, 1997).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교과 내용과 관련된 학습활동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교과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와 통합하여 학습하는 통합 영어 교육의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문태혁, 2010; 이선아, 2007).

Holderness(1994)는 언어 학습에서 중요한 요인인 '상황 맥락', '의미', '목적'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주제중심 통합 영어 학습은 학습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상황 맥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언어의 학습과 사용에 진정한 목적을 창조해 낸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렬(2005)은 타 교과 시간에 학습 내용과 관련된 CALP(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에 초점을 둔 통합 영어 수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BICS(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각 교과에서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주제들을 추출하여 초등영어 학습자 수준에 맞는 주제중심 통합 영어 수업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주제중심 통합 영어교육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는 타 교과 내용에 추출한 주제의 선정, 선정된 주제의 범주화, 지도 순서의 결정 등의 선행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 말해 주제중심 통합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최미정, 2009; 홍광표, 2011)들은 이전 교육과정에 기반하고 있어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또 동학년의 타교과 내용을 기반으로 통합 영어 교수요목을 구성할 경우, 영어 사용에서 겪는 어려움과 새로운 타교과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학생들이 동시에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영어와 타교과 내용 학습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2015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이전 학년에서 학습한 내용에서 추출한 주제를 기반으로 통합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의 주제통합 교수요목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자와 교사의 요구를 조사하는 것은 교수요목 개발의 첫 단계일 뿐만 아니라(Nunan, 1981),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한 교수요목은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의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II. 주제중심 통합 영어교육

타교과의 내용을 영어과와 통합하려면 관련된 내용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제(theme)이다. 주제 중심 학습에 대해 Spanos(1990)는 학습자들이 흥미를 고취시키는 주제를 사용하여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이라 정의하였고, Jacobs(1990)는 주제를 중심으로 영어를 가르칠 때 하나 이상의 과목으로부터 언어와 방법론을 차용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주제 중심 학습이란 아동들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선정하여 하나 이상의 과목으로부터 주제와 관련된 활동과 언어를 취하여 지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Nunan(1988)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와 Enright와 McClosky(1988)의 주제중심 통합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절충한 주제중심 통합교육의 설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의 단계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하므로 교수요목 설계에 있어 해당 목표를 따라야 하며, 이 때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및 내용, 주제중심 통합 교육과정의 특징, 학생의 언어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요구 분석의 단계로 문헌 연구와 영어 교재의 소재 분석을 통해 가능한 주제 목록을 작성하고, 여기에 교사 및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 등을 반영하는 단계로 본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요구 분석 결과와 선정 기준에 의거해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는 자유 연상(brainstorming)을 통해 주제를 가지고 가능한 활동, 활동에 따른 사고 유형, 학습 자료, 결과물 등을 고안하는 주제망 설계의 단계이다. 주제망을 설계하면 주제와 관련된 여러 활동과 사고 유형, 자료, 언어, 결과물 등의 측면을 확인하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이룰 수 있다.(Holderness, 1994). 다섯 번째는 펼쳐진 주제망을 보고 활동과 언어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활동은 일반 교과 내용에서 추출하되 학생의 흥미와 실행 가능성, 활동을 위해 필요한 언어 등을 고려하며 활동을 선정한다. 특히 언어 내용의 선정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기존에 학습한 언어, 학생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선정된 주제들을 조직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단계는 수업을 전개하기 위한 차시별 수업 모형과 단위 수업 모형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주제중심 통합 영어교육은 교육과정에 기초한 영어교재 및 수업의 내용 구성 방안의 하나로써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김현진(1999)은 3-6학년의 전 교과에서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 내용을 재구성하여 주제, 이야기,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한 통합교육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손유진(2004)은 국어, 사회 등을 포함한 6개 과목의 내용을 통합하여 4학년 교재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이선아(1999)는 4학년 8개 과목을 통합하여 주제중심 통합 영어교육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최미정(2009)은 수학, 사회, 과학, 실과, 체육을 대상으로 5학년에 알맞은 수준별 주제 중심 통합수업모형과 지도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홍광표(2011)는 4학년 전 교과를 토대로 한 주제중심 통합 영어교재를 개발하였다.

주제중심 통합 영어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개발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송정미(1997)는 실험연구를 통해 타 교과와 영어 교과의 통합 교수요목을 작성함에 있어 언어 기능과 언어 재료를 선정할 때 주의할 점을 제시하며 열린 수업 형태의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신연옥(2000)은 주제중심 통합학습을 적용하기 위해 교과 통합적 접근법에 의해 교수요목과 수업모형을 설계하고 수업에 적용하였다. 문태혁(2010)은 초등학교 3-6학년 전 교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재량시간 활용할 수 있는 32주 분량의 내용중심 통합 교수요목을 설계하였다.

위의 영어과 교수요목에 관한 연구들은 특정 교과나 특정 학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문태혁(2010)은 3-6학년 전 과목 전 차시를 대상으로 교수요목을 개발하였지만, 7차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잡았으며, 다른 연구들도 대부분 2010년 이전의 연구로 2018년에 3학년부터 적용될 2015개정 교육과정의 교수요목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먼저 교사 설문을 위해 충북 10개 교육청에 소속된 15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 후, 담임교사 혹은 영어전담교사가 설문문에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회송된 설문지를 수합한 결과 미 회수된 설문지, 응답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15개교 150부 중 108명의 교사가 응답하여 72.0%의 회신률을 기록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배경 변인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교사용 설문 응답자 배경

항목	사례 수(n)	백분율(%)
성별	남자	21
	여자	87
근무지역	도시지역	84
	읍면지역	24
근무경력	10년 이하	40
	11-20년 이하	59
	21년 이상	5
	무응답	4
계	108	100

학생 설문은 응답한 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안내하였다. 특히 영어 전담 교사가 여러 개의 학급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설문 응답자의 수가 교사용 설문 응답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회송된 설문지를 수합한 결과 미 회수된 설문지, 응답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15개교 300부 중 207명의 학생이 응답하여 69.0%의 회신률을 기록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배경 변인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학생용 설문 응답자 배경

항목	사례 수(n)	백분율(%)
성별	남자	21
	여자	87
사는 곳	도시지역	84
	읍면지역	24
영어 과외 유무	유	162
	무	45
근무경력	1년 미만	13
	1-2년	47
	2-3년	70
	3-4년	16
	4년 이상	16
계	207	100.0

2. 연구 도구 및 자료 처리 방법

교사용 설문지는 이선아(2007)와 문태혁(2010)의 요구조사 문항을 참고로 개발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내용은 크게 기초조사, 영어교육에 대한 의견, 영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통합수업에 대한 인식, 주제통합 교수요목 개발을 위한 교사의 요구로 구성하였다. 교사용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교사용 설문지의 내용 구성

구분	문항번호	설문 문항	문항형식
기초조사	문항 1	성별	양자택일
	문항 2	근무지역	3지 선다형
	문항 3	근무경력	3지 선다형
통합수업에 대한 인식	문항 4	통합교육의 효과성	5단계 척도
	문항 5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5지 선다형
	문항 6	통합교육의 유형	5지 선다형
	문항 7	통합교육이 어려운 점	6지 선다형
	문항 8	통합수업의 동기부여	5단계 척도
	문항 9	통합수업의 영어사용 기회 부여	5단계 척도

	문항 10	통합수업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정도	5단계 척도
	문항 11	통합수업의 흥미 부여	5단계 척도
	문항 12	통합수업에 대한 교사의 수업 부담	5단계 척도
	문항 13	통합수업에 대한 교사의 의욕	5단계 척도
	문항 14	교수요목 개발의 필요성	5단계 척도
주제중심 통합 교수요목 개발을 위한 교사의 요구	문항 15	통합영어수업 활용 시간	5지 선다형
	문항 16	통합영어수업 실시시간 및 분량	4지 선다형
	문항 17	통합영어 교수요목 개발 분류기준	5지 선다형
	문항 18	통합영어수업 교사의 우려되는 점	5지 선다형
	문항 19	통합영어 교수요목 개발 고려할 부분	5지 선다형
	문항 20	통합영어 교수요목 개발 제안점	자유 응답형

학생용 설문지는 문태혁(2010)의 통합 교수요목에 대한 학생 요구조사에서 활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하였으며, 학생에 대한 기초조사와 실태 및 요구조사, 통합 영어 교육에 대한 요구 등으로 범주화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학생용 설문지의 내용 구성

구분	문항번호	설문 문항	문항형식
기초조사	문항 1	성별	양자택일
	문항 2	학교 소재지	3지 선다형
	문항 3	영어 과외 유무	양자택일
	문항 4	영어 과외 기간	5지 선다형
통합 영어교육에 대한 의견	문항 5	통합영어교육의 흥미도	5단계 척도
	문항 6	통합영어교육의 유용성	5단계 척도
	문항 7	통합영어교육의 통합 과목	7지 선다형
	문항 8	통합영어교육의 시기	4지 선다형
	문항 9	통합영어교육의 희망 시간	4지 선다형
	문항 10	통합영어교육 선호학습 유형	4지 선다형
	문항 11	통합영어 수업 시 어려운 점	4지 선다형
	문항 12	통합영어교육의 주제	자유 응답형

교사용 설문과 학생용 설문 결과 자료는 문항의 응답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선택형 문항의 경우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형 문항의 경우 기술 통계값(평균과 표준편차)을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교사 설문 결과

교사 설문은 통합영어수업에 대한 인식, 통합영어교육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분류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1) 통합수업에 대한 인식

교사들의 통합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통합교육의 효과성,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 통합교육의 유형, 통합교육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설문하였다. 먼저 통합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은 3.57의 평균을 나타내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통합교육의 효과성

영역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통합교육의 효과성	108	3.57	.894

통합 영어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교사들은 <표 6>과 같이 응답하였다. 교사

들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한 경우가 55.6%로 '잘 알고 있다(44.4%)'보다 조금 더 높았다. 이를 통해 아직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통합 영어교육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연구의 실시와 같은 초등영어 통합교육의 실시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통합교육의 인식정도

응답내용 분석내용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르겠다.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계
사례 수(n)	0	60	48	0	108
백분율(%)	0.0	55.6	44.4	0	100.0

교사들이 선호하는 통합교육의 유형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적으로 주제 중심 통합을 57.5%로 가장 선호했고, 다음으로 활동 중심(20%)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가 주제중심 통합 교수요목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임을 고려할 때, 주제중심 통합이 현장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표 7> 선호하는 통합교육의 유형

응답내용 분석내용	주제중심	활동중심	소제중심	과제중심	경험중심	몰입수업	기타	계
사례 수(n)	61	22	8	7	6	4	0	108
백분율(%)	57.5	20.8	7.5	6.6	5.6	3.8	0.0	100.0

통합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예상되는 어려운 점을 설문한 결과는 미응답자 4명을 제외하고 총 104명에 대해 빈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학생들의 수준 차이(47.1%), 영어구사력(26.9%)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사의 영어구사력 향상을 위한 연수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주제 통합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8> 통합교육의 어려운 점

응답내용 분석내용	학생들의 수준 차이	교사의 영어구사력	시간운영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력부족	교재의 부족	기타	계
사례 수(n)	49	28	18	5	2	2	104
백분율(%)	47.1	26.9	17.3	4.8	1.9	1.9	100.0

통합영어 수업이 학생들에게 주는 동기부여 정도는 평균 3.38의 수치를 보였다. 교사 중 55.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15.8%로 나타났다. 통합영어 수업의 영어 사용 기회 부여 정도에 대해 평균은 3.50으로 나타났다. 많은 교사들이 통합수업이 영어 사용 기회를 다 많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 통합 교수요목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 정도 응답 결과 평균은 3.45이며, 흥미 부여 정도는 평균 4.03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합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통합수업으로 인해 교사의 수업 부담에 대해 평균 3.87의 수치를 보아 상당한 수의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였다. 통합수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교사의 수업 부담은 비교적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통합수업을 해보고 싶다는 의욕을 묻는 물음에서는 평균 3.97로 교사들이 많은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수요목 개발 필요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추후 연구와 관련된 주제통합 교수요목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교사의 수업 부담이 비교적 크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의욕이 큰 것은 통합수업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여 교육 현장에서도 수업을 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통합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표 9> 통합수업에 대한 의견

영역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동기부여	108	3.38	.807
영어사용 기회 부여	108	3.50	.877
의사소통능력 향상 정도	108	3.45	.932
흥미 부여	108	4.03	1.070
교사의 수업 부담	108	3.87	1.215
교사의 의욕	108	3.97	1.058
통합 교수요목 개발의 필요성	108	3.94	1.121

2) 주제중심 통합 교수요목 개발을 위한 요구

주제중심 통합 교수요목 개발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통합 교수요목 활용 시간에 대한 설문하였다. 그 결과 영어 교과 시간에 적용하기를 바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높았고, 해당 교과 시간(22.2%)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20.4%)을 선택한 비율도 비교적 높았다. 이는 교육과정 상 정규 수업 시간 내에 이뤄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실제 정규 교과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중심 통합 교수요목을 개발함에 당위성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표 10> 통합영어수업 활용시간

응답내용 분석내용	영어시간	해당 교과시간	창체 시간	방과후 활동 시간	아침자습 시간	계
사례 수(n)	49	24	22	8	5	108
백분율(%)	45.4	22.2	20.4	7.4	4.6	100

통합교수요목에 기반한 영어수업 실시시간과 분량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는 <표 12>와 같다. 그 결과 주당 1시간 총 34차시(44.4%), 주당 2시간 총 68차시(34.3%), 격주 1시간 총 17차시(16.7%)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시간을 정해놓지 말고 수업에서 적당한 주제나 내용을 배울 때라고 하였다.

<표 11> 통합영어수업 실시시간 및 분량

응답내용 분석내용	주당 1시간 (총34차시)	주당 2시간 (총68차시)	격주 1시간 (총17차시)	기타	계
응답 수	48	37	18	5	108
백분율(%)	44.4	34.3	16.7	4.6	100

통합교수요목 개발 시 분류기준으로 주제 중심 분류기준의 활용을 선택한 경우가 66.7%로 가장 높았고, 활동 중심 분류기준이 19.5%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 통합 교수요목의 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 영어 교수요목 개발에 있어 주제중심 통합을 실시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2> 통합교수요목의 분류기준

응답내용 분석내용	주제 중심	활동 중심	과제 중심	소재 중심	기타	계
응답 수	72	21	9	5	1	108
백분율(%)	66.7	19.5	8.3	4.6	0.9	100.0

통합 영어수업에서 우려되는 점을 설문한 결과, 절반의 교사가 교실영어 및 적절한 어휘사용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향후 주제중심 통합교수요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제별로 영어 교과와 다른 교과에서 등장하는 어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목록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5.9%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교수학습 활동 선정 및 진행방법을, 13.9%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을, 10.2%의

교사들은 수업지도안 작성 기술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주제중심 통합 교수요목 개발과정에서 교수학습 활동과 교수학습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여 현장의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3> 통합영어수업 실시시간 및 분량

응답내용 분석내용	교실영어 및 적절한 어휘 사용	교수학습 활동선정 및 진행방법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	수업지도안 작성 기술 부족	기타	계
응답 수	54	28	15	11	0	108
백분율(%)	50.0	25.9	13.9	10.2	0.0	100.0

통합교수요목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할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46.3%의 교사들은 학생의 학년 및 인지적 수준을 선택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적절한 주제 목록을 작성해야 함을 보여준다. 타 교과와의 학습목표와 영어교과의 학습목표 도달 여부는 25.9%, 의사소통 기능과 어휘선정에는 22.2%의 응답률을 보였다. 앞으로 진행될 교수요목 개발 과정에서 각 교과의 학습목표와 영어교과의 학습목표를 분석하고 의사소통 기능과 어휘를 선정하여 제시하며 개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4> 통합교수요목 개발 시 고려점

응답내용 분석내용	학생의 학년 및 인지적 수준	타 교과와의 학습목표와 영어교과의 학습목표 도달	의사소통 기능과 어휘선정	교수 학습 방법	기타	계
응답 수	50	28	24	6	0	108
백분율(%)	46.3	25.9	22.2	5.6	0	100.0

2. 학생 설문 결과

학생 설문에서는 통합 영어교육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미 공부한 다른 과목의 내용을 영어로 배운다는 표현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설문 시 입실 교사에게 학생들에게 통합 영어교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통합 영어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는 평균 3.52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또한 통합 영어교육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는 평균 3.92의 응답을 보여 통합 영어교육이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15> 통합영어교육에 대한 흥미도와 수준

영역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흥미도	207	3.52	1.132
유용성	207	3.92	1.012

통합 영어교육에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과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과학(21.3%), 사회(19.3%), 체육(18.8%), 미술(18.4%), 수학(11.5%), 음악(10.2%)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기타 항목으로 실과를 선택한 학생이 1명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특정 교과를 선호하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다양한 과목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 통합 영어교육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6> 통합교육 희망 과목

응답내용 분석내용	과학	사회	체육	미술	수학	음악	기타	계
응답 수	44	40	39	38	24	21	1	207
백분율(%)	21.3	19.3	18.8	18.4	11.5	10.2	0.5	100.0

통합영어수업 적용 희망 시간을 조사한 결과 59.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 수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영어시간 18.4%,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15.5%, 방과후학교 영어시간 5.3%, 아침자습시간 1.4% 순으로 응답하였다. 동일 설문에 대해 교사들은 영어 교과 시간을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학생들은 해당 과목 수업시간에서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차후 교수요목 및 교수·학습 모형 개발 단계에게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7> 통합영어수업 적용 시간

응답내용 분석내용	해당 과목 수업시간	영어시간	창체시간	방과후학교 영어시간	아침자습시간	계
사례 수(n)	123	38	32	11	3	207
백분율(%)	59.4	18.4	15.5	5.3	1.4	100.0

통합영어교육을 희망하는 시간은 1주일에 2시간(35.3%), 1주일에 1시간(33.8%), 1주일에 3시간(25.1%)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대다수(94.2%)의 학생들은 최소 1주일에 1시간 이상의 통합 영어교육의 실시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8> 영어 과외 유무에 따른 통합영어교육 희망 시수

응답내용 분석내용	1주일에 2시간	1주일에 1시간	1주일에 3시간	2주일에 1시간	계
사례 수(n)	73	70	52	12	207
백분율(%)	35.3	33.8	25.1	5.8	100.0

선호하는 통합영어교육의 학습 유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9>와 같이 주제통합을 40.6%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소재통합을 21.7%가 응답하였다. 앞서 교사 설문에서도 주제중심 통합을 가장 선호했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두 집단 모두 주제중심 통합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이는 주제중심 통합 영어 교수요목 개발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9> 통합영어교육 선호학습 유형

응답내용 분석내용	주제통합	소재통합	과목통합	활동통합	기타	계
사례 수(n)	84	45	34	26	18	207
백분율(%)	40.6	21.7	16.4	12.6	8.7	100.0

통합 영어수업에서 걱정되는 점을 설문한 결과 64.3%의 학생들이 영어 어휘가 더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교사 설문에서도 가장 큰 걱정이 적절한 어휘 사용이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통합 대상 교과의 영어 어휘를 목록화하여 교사와 학생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휘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0> 통합영어수업에서 걱정되는 점

응답내용 분석내용	영어 낱말이 어려워 이해되지 않을까봐	수업내용이 이해되지 않을까봐	영어가 더 어려워질까봐	공부하는 활동이 어려워질까봐	기타	계
사례 수(n)	133	31	27	16	0	207
백분율(%)	64.3	15.0	13.0	7.7	0	100

V. 결론 및 제언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이라는 현행 영어교육과정의 목표를 고려한다면, 물리적 시수 확대 및 의사소통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영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교육과정 개정의 주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의 통합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초등영어 주제중심 통합 교수요목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통합교육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효과성에 대한 기대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통합교육의 유형 중 주제중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가장 높았으며, 통합교육의 실시하였을 때 학생들의 수준 차이와 교사의 영어구사력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통합 영어수업이 학생에게 주는 동기부여, 영어사용 기회 부여, 의사소통 능력 향상, 흥미 부여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교사의 수업부담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큰 수업부담에도 불구하고 통합영어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의욕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통합영어수업을 위한 교수요목 개발에 대해서도 90% 정도의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통합영어수업 활용 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영어 교과시간과 해당 교과시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통합영어수업은 주당 1시간 총 17차시가 가장 적당하다고 답하였다. 통합교수요목 개발 분류기준으로는 주제중심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통합영어수업에서 교실영어 및 적절한 어휘사용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 교수요목 개발 시 학생의 학년 및 인지적 수준, 타 교과와 영어교과의 학습목표 도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통합영어교육의 흥미도와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합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의견은 다양한 과목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통합영어수업 적용 희망 시간을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교사 설문 결과와 달리 해당 과목 수업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통합영어교육을 희망하는 시간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1주 1시간 이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영어교육의 학습 유형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주제통합을 원하고 있었으며, 통합 영어수업에서 영어 어휘와 수업내용의 난이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설문 결과를 통해 주제중심 통합교수요목 개발과 관련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영어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개발의 분류기준은 주제중심 통합으로 설정한다. 교사와 학생들은 영어 교과와 다양한 타 교과와의 통합을 원하고 있으며 분류기준으로는 주제중심 통합을 희망했다. 신연옥(2000)은 교사와 학생의 요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7차 교육과정의 타교과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주제 중심 통합학습을 위한 교수요목과 수업 모형을 설계하였다. 즉 주제 중심의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주제중심 통합교육을 위한 개발 절차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영어 교과와 타 교과와의 통합교수요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제별 어휘를 목록화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모두 통합영어수업을 실시할 때 해당 내용의 어휘 및 영어구사력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통합수업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클 경우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선행연구(이제영, 김정렬, 2013; 이제영, 안종기, 이지은, 2017)에서의 지적처럼, 교사와 학생 모두의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주제별 어휘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합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시간과 분량에 있어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에서 주당 1시간 혹은 2시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을 위한 시수 확보의 목적이 크지만, 지나치게 많은 차시가 배당될 경우 오히려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정의적인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문태혁(2010)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요구 분석 결과에 따라 재량시간 주당 1시간 총 32차시 분량의 내용 통합 교수요목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교사와 학생의 요구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률적인 시간 배당보다는 학생들의 배경을 파악하고 해당 학교 실정에 맞는 교수요목 개발 및 실시시간과 분량 배정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 개인의 언어 능력 수준 차이를 고려한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통합영어교육 뿐만 아

나라 초등영어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로,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보다 높은 의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미정(2009)은 수준별 주제 중심 통합수업 모형과 지도안을 구성하여 5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한 후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과 흥미도 향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처럼 주제중심 통합교육이지만 학생의 수준을 감안한 교수요목 개발이 필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통합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교사들을 위해 초등영어 통합교육에 대한 연수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 제 4 발표 ●

16:15 ~ 16:55 발표 및 토론

일정표

문학 1 (201호)	정신분석의 불안담론을 넘어서				
발표	정혜욱 (부경대)	사회	김혜진 (전북대)	토론	이일수 (군산대)
문학 2 (204호)	Reactions from "a Swinish Multitude"				
발표	임보라 (전북대)	사회	문영수 (호원대)	토론	장근영 (군산대)
어학 1 (205호)	COLT를 활용한 EBS우수 영어수업 동영상에 나타난 읽기 후 의사소통 활동분석				
발표	신은솔 (한국교원대)	사회	정진완 (전북대)	토론	이제영 (전주대)
어학 2 (208호)	21세기 4C 능력 신장을 위한 표현 중심의 수업 사례				
발표	김지영 (인천도담초)	사회	김영룡 (우석대)	토론	강승만 (충북대)

정신분석의 불안담론을 넘어서

정혜옥

jeonghaeook@gmail.com

불안은 오늘날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대단히 불길하고 끈덕진 정동이다. 1998년의 IMF 당시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경제위기, 엽기적 살인과 충격적 사건 사고들, 신종플루, 에볼라 등의 바이러스의 위협, 아이, 노인,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학대, 언어폭력으로 물든 인터넷 댓글문화, 늘어나는 청년 백수와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 철밥통으로 불렸던 공무원과 같은 직종에도 구조조정의 칼날은 매섭다. 구조조정은 말 그대로 '구조의 조정'이 아니라 최소 인력을 제외한 실업자의 양산으로 변모한지 오래고, 운 좋게 생존한 최소 인력에겐 극한 노동이 요구된다.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 없는 사회,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의 소용돌이에서 불안이 발생하는 지, 불안 사회가 이 모든 사회의 부적절한 현상의 원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불안과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에서 잘라내야할지, 어떻게 치유를 모색해야할지 나아가야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치유"나 "힐링"이 다중들의 첨예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치유"와 "힐링"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의 과도한 불안에서 야기되는 병증이 깊다는 반증일 수 있다.

불안과 공포는 유사한 정동이지만, 불안은 공포보다도 훨씬 더 다루기 힘든 정동이다. 공포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기에 공포의 대상원인을 분석하여 그 해법을 내놓기가 최소한 불안보다는 어쩌면 쉬울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단이 쉽다고 공포가 불안보다 덜 해로운 정동이라는 뜻은 아니다. 공포는 사유를 마비시키고 사유를 불가능하게 한다. 헤겔이 정신현상학 에서 말했듯이 [공포정치나 독재 체제 하에서] 공포에 질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힘을 박탈당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자아를 마비시킨 세계에 대해 괴멸적 분노를 표출하거나 테러와 같이 무차별적 파괴 본능을 발산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에서 양배추의 꼭지를 따듯이 (자신이나 타자의) 사람의 생명줄을 따는 일이 만연하게 된다는 헤겔의 진단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한국의 현실이나 GDP 총기 난사 사건에서처럼 "참으면 윤 일병 터지면 임 병장"도 공포가 가져오는 폐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반면, 불안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단도 어렵고 처방은 더더욱 어렵다. 그러나 불안은 공포처럼 사유를 질식시키고 자신을 표현하는 힘을 박탈하기만 하는 것일까?

정신의학에서 불안은 정신병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 중의 하나로 걱정이나 두려움과 같은 정신적 현상과 동시에 호흡곤란, 두근거림, 피로, 어지러움 등과 같은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포함하는 개인적 질병으로 진단되어왔고, 사회문화적으로 사용되는 불안은 이러한 개인적 질병의 의미를 넘어서 사회의 질병과 사회의 여러 병리적 증상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며, 사회적 불안은 전쟁 시기보다는 큰 전쟁을 겪은 이후나 경제적 대공황기와 같은 기존의 삶의 질서가 흔들리는 시기에 증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정의를 넘어서 라캉은 불안이 기존의 삶의 양식의 붕괴와 함께 등장하며, 정신분석적으로 말해서 불안의 시대는 우리의 삶의 구조를 지탱해주던 판타지구조의 붕괴와 관계하며, 불확실성과 어떻게 대면해야할지 모르는 방향상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자크 라캉은 20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가장 영향력있는 정신분석학자이자 문화이론가로서 그의 세미나 10권인 <불안>은 2차대전이 끝난 후의 50년대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안의 원인과 현상을 임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진단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 강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첫째, 손쉬운 처방이나 성과 · 결과 중심의 성급함보다는, 학인의 본연의 자세로서 대단히 어렵고 난해하기로 악명이 높지만, 동시에 불안에 대한 임상적, 사회적, 문화적 통찰력을 제시해줄 수 있는 라캉 세미나 10권 <불안>의 의미와 이 텍스트가 오늘날 어떤 시의성을 가지는 지 살피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을 둔다.

라캉의 세미나 10권은 생트안(Sainte-Anne) 병원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세미나로서 1962년 11월 14일에서 1963년 7월 3일까지 행해졌다. 잘 알려져 있듯이 라캉은 이 강의 직후에 정신분석학회(the

International Psychoanalytic Association, IPA)에서 회원자격을 박탈당함으로써(1963년),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정신분석을 행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생트안 정신병원도 그만두게 된다. 그 후 알튀세와 레비스트로스의 주선으로 라캉은 병원이 아닌 파리의 고등사범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세미나를 재개하게 되지만, 라캉에게 정신분석학회의 회원자격 박탈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가 바로 다음의 세미나—라캉의 가장 유명하고 경전적 세미나인 11권: 정신분석학의 네 가지 근본개념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에서 직접 밝힌 바처럼 라캉 스스로가 “자신의 이론을 저주의 대상으로 삼은 IPA의 결정을 스피노자를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한 1956년의 파문”에 비유했을 정도다. 물론 1936년 그의 “거울단계” 논문이 정신분석학회의 반발로 발표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1963년의 라캉의 IPA에서 파문을 라캉의 이전의 논쟁적 자세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서 10번째 세미나인 불안의 강의 내용 때문 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라캉은 불안 세미나에서 기존의 학회의 반발을 불러올 정도로 대단히 독창적인 이론을 선보이며, 오늘날 정신분석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정신분석학의 네 가지 근본개념과 연결되는 라캉 정신분석의 근본원리를 정초한다. 라캉의 세미나는 난해하기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전체를 미리 요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의 이전의 이론적 정보와 불안 세미나의 차이점을 조금 엿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세미나는 라캉만의 독자적 이론이 탄생되는 교두보가 되는 강연이다. 초기 라캉은 “프로이트의 회귀”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해나갔지만, 세미나 10권에 이르면 프로이트 이론과 자신의 이론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을 그만둔다. 다시 말해서 프로이트의 “불안” 개념에 연연하거나 기존의 이론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오독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프로이트와는 다른 라캉 자신의 독창적인 이론을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프로이트의 ‘거세 불안’이나 나르시즘과 연결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프로이트의 분리 불안을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불안은 거의 폐기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¹⁾

라캉의 『세미나 10권: 불안은 정신분석적 맥락과 철학사적 맥락을 동시에 다루는 포괄적인 연구로서의 커다란 의미가 있다. 정신분석적 맥락에서는 프로이트의 불안 개념, 그리고 철학사적 맥락에서는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등 불안 개념에 대해 깊이 천착하고 창의적인 업적을 남겼던 뛰어난 연구들을 참조하면서 자신의 창의적인 불안 개념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라캉은 대상 a 개념 등을 창안했다. 그리고 당시까지 라캉이 욕망 개념을 중심으로 작업을 해왔다면 세미나 10권에서는 향유(jouissance)라는 개념을 부각시키면서 그것과 욕망과의 단절 속에 대상 a 개념을 위치시킨다. 그리하여 불안은 단절의 거부, 즉 결여의 결여라는 관점에서 파악된다.

라캉은 불안은 대상이 없는 공포라는 당시의 지배적 해석에 도전한다. 당시 대부분의 정신분석학자들은 공포는 대상이 있지만, 불안은 대상이 없는 공포로 정의했다. 즉 어둠이 두렵다거나, 개가 짖는 것이 두렵다는 식으로 공포는 대상을 가진다. 그러나 불안은 대상없는 공포의 상태로서 우리는 명확히 무엇이 우리는 불안하게 하는지 모르는 데서 생겨나는 정동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불안과 관련해서 프로이트의 논의를 살필 때²⁾ 초기 연구의 “불안”은 다분히 생물학적이다.³⁾ 즉 프로이트는 불안이 성적 에너지가 반복적으로 해소되지 못할 때 불안신경증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여성의 경우는 성적 흥분이 반복적으로 발산되지 못하면 불안에 시달리고, 남성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오르가즘을 성취하지 못하고 (질외사정 등으로 인해) 중간에 멈추게 되면 불안신경증에 시달린다고 보았다. 그러나 30년 후에 프로이트는 불안에 대한 그의 이론을 뒤집는다. 프로이트의 유명한 억제, 증상, 불안 (*Inhibitions, Symptoms and Anxiety*)에서 불안은 위험 자체라기보다는 위험에 대한 기대와 관계하고, 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적 예고에 있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시기에 따라 불안이 다르게 나타

1) 이 주장에 대해서는 Gilbert Diatkine의 “A review of Lacan’s seminar on anx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87 (2006): 1049-58 참고.

2) Sigmund Freud, ‘On the grounds for detaching a particular syndrome from neurasthenia under the description “anxiety neurosi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이하 SE), vol. 3.

3) 프로이트의 생물학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라캉의 움직임은 『불안』 세미나만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신병의 원인이 유전적 요인이나 신체기관의 이상에서 찾지 않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인격과 연결된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라캉의 국가박사학위 논문 “인격과 관련된 편집병적 정신병에 대하여”에서 이미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초하여 정신분석학자들은 불안은 대상이 없는 정동으로 주장했고, 철학자인 하이데거 역시 불안이 대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안 세미나에서 라캉은 “불안에는 대상이 없지 않다”(Not Without Having It)라고 “이중부정”을 행함으로써 어떤 대상이 인간의 욕망을 움직여서 정신분석의 주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혁명적 분석을 행한다. 따라서 이 세미나에서 라캉은 자신의 불안이론이 프로이트의 억제, 증상, 불안에서 전개되는 불안 이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분석가의 욕망이라는 문제를 탐구하면서 처음으로 입, 항문, 목소리, 시각의 가장 하에 등장하는 소대상 a를 등장시켜 이 개념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역-전이와 해석, 판타지와 판타지 프레임, 그리고 주이상스와 욕망 사이에 있는 불안과 같은 나중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주제들의 탐색으로 나아간다.

프로이트는 꼬마 한스의 사례에서, 한스가 말에 대한 공포증이 생겼을 때 이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한스에게 진짜 위협은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세 위협이다. 엄마에 대한 은밀한 성적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아버지의 존재는 불안을 야기한다. 그러나 불안을 야기하는 거세 위협을 현실에서 퇴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무엇이든 억압하고자 하고 이것이 공포증을 낳는다고 보았다.

프로이트의 불안에 대한 두 번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이 억압의 결과로서 간주되기를 멈추고 억압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주체는 불안을 신체적 흥분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불안을 방어하는 과정으로써 여러 증상을 드러내게 된다. 예를 들면 억제는 주체가 불안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며, 증상은 불안 정동을 대체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신경증자의 경우에 증상은 새로운 불안을 야기한다. 프로이트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왜 위협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경우에는 정상이고 다른 경우에는 병적인가? 혹은 현실적 불안과 병적인 불안의 차이는 무엇인가? 프로이트의 대답은 현실적 불안은 알려진 위협에 관한 것이고 신경증적 불안은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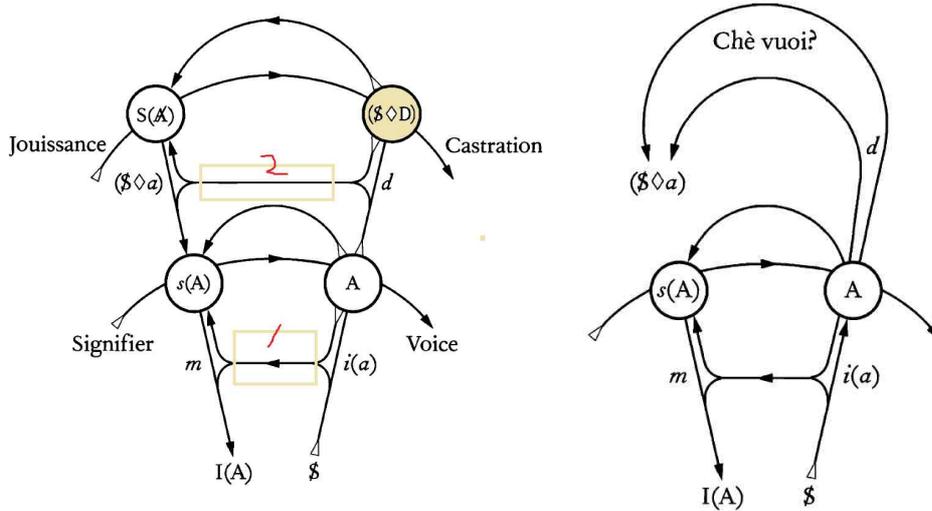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불안이 단지 대상없는 공포가 아니라 대상을 상실한 위협에 대한 특별한 반응이라는 데서 단서를 얻어야 한다. 처음에 불안이 대상을 결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프로이트는 공포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상실 그 자체라고 제시한다. 즉 프로이트는 불안은 항상 거세 위협과 관계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거세위협과 유사한 죽음의 공포와 관련된다고 결론내린다.

불안에 대한 이슈는 거세위협이 실제 거세가 아니라, 거세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관계한다는 점에서 좀 더 복잡해진다. 주체가 대상의 상실 가능성에 대해 느끼는 위협은 대상(만족의 리비도적 대상)이 언제나 이미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감춘다. 고통이 대상의 상실에 대한 실제 반응으로 보인다면, 불안은 그 상실이 수반하는 위협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이 가능한 위협에 대한 기대라고 말할 때 불안한 상태에서 주체는 대상의 상실이 그에게 가져올 바로 그 위협에 의해 공포에 질린다. 거세가 주체의 가장 큰 공포라는 프로이트의 이론은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주체가 가장 불안에 하는 상실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멜라니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해석에 반대하고 불안의 잠재적 근원은 삶 자체에 대한 공포라고 주장했다.

라캉이 프로이트의 불안에 개입했을 때, 대타자[상징적 네트워크]와 주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대타자는 우리 사회가 조직화되는 제도나 의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발화되는 존재로 표시되는 언어에 관심이 있다. 라캉은 주체가 대타자와 관련해서 특정한 불안을 느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주체가 대타자와 관련해서 거세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체는 대타자를 주체에게서 아주 소중한 어떤 것을 빼앗아가는 자로서 받아들인다. 즉 라캉은 신경증자가 거세하는 대타자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체 그 자체가 비어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라캉도 불안이 거세위협에서 온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불안은 주체 형성에 선행하는 것으로 간주. 주체가 말하는 존재가 될 때, 언어는 주체를 표시하고 주체에게 본질적인 주이상스를 빼앗아간다. 불안은 숙일 수 없기 때문에 해석될 수 없다. 세미나 x 이전의 불안과 세미나 X의 불안논의의 차이: 주로 상상적 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점차적으로 상상적 몸의 공식화에서 실재에 까지 이른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불안은 예고를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예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불안은 주체의 탄생과 관계한다. 정체성 형성에 관한 세미나 9권에서 정체성 형성이 주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10권에서 identification을 불안으로 접합시킨다. 분석가는 불안을 길들이는 자가 아니다. 불안의 치료하는 자도 아니다. 불안은 재현의 질서에 속하지 않는다. 재현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에서 오는 신호다.



선술했듯이, 라캉에게 “불안”은 무엇보다 상징계에 저항하는 “대상a”이 주체에게 보내는 신호(signal)이자 우리가 상징계로 진입함과 동시에 발생한 우리 존재에게서 잘려져 나온 어떤 것의 호소(appeal)와 관계한다. 호소는 알튀세르적 의미에서 호명(interpellation)과 다르다. 호명은 응답을 강제하며, 응답할 수 없는 존재를 삭제한다. 그러나 불안은 삭제할 수도 억압할 수도 없는 대상a의 존재를 전시한다. 그래서 불안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실재를 정의할 수도, 상징계와 상상계, 실재가 우리의 존재 속에서 어떻게 서로 묶이고 연결되는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라캉은 불안이 <세미나 10권> 이전까지 정확히 연결되지 않았던 세 차원, 즉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가 연결되는 만남의 지점이며(*Seminar X 3*), 불안은 인간 몸의 명치(solar plexus)와 같이 욕망의 그래프에서 나뉘어 있는 1단계와 2단계를 묶어주는 변증법적 운동으로 도입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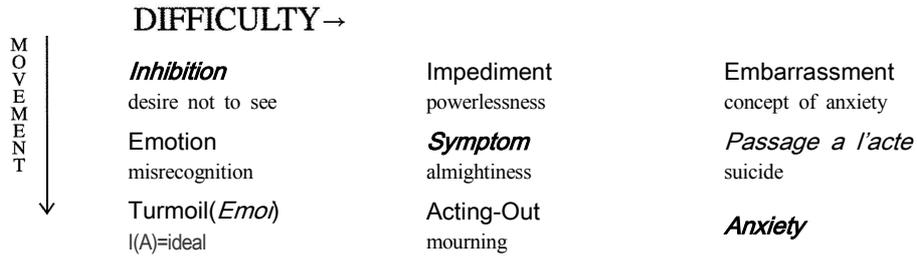
불안이 없다면, 위의 욕망의 그래프 $\$ \rightarrow I(A)$ 벡터에서, 주체($\$$)는 자아이상[I(A)]에 통합됨으로써 그의 자율성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불안이 작동함으로써 결여를 없애는 판타지($\$ \diamond a$)의 자리에서 대상a의 존재를 주체에게 전이(transference)함으로써 주체는 대타자에 결여가 있다는 것 [S(A)]을 발견하고, 불안은 주체로 하여금 상징질서의 꼭두각시 놀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론적 공백에 직면하고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로, 자유의 무게를 감내해야 하는 존재로 변화할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⁵⁾ 바로 이 지점에서 바디우는 라캉의 “불안”을 활용하여, 정신분석의 정치화를 향한다⁶⁾. 불안은 간극의 사유이며, 상징질서가 어긋나 있다는 표시[S(A)]에서 시작된다. 상징질서의 어긋남에서 연원하는 불안이 없다면 주체는 주체일 수 없다. 그러나 바디우에서 불안이 바로 사건의 주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불안 차트⁷⁾에서 보듯, 불안이 일단 발생하면 주체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방어진제를 발동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4) The question is held in abeyance between the two storeys and precisely between the **two return routes** that designate in each of them their characteristic effect.... We're going to see the function of anxiety being introduced into the play of the dialectic that knots these two levels so tightly together. (*Seminar X 6*)

5) 여기서 우리는 라캉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 이전의 라캉이 무의식을 큰타자의 담론(the discourse of the Other)으로 설명한 반면, 『세미나 10』을 전후하여 라캉이 빗금타자(A)라는 핵심적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끌어내는 순간, 무의식은 대타자의 간극과 실패를 등록하는 담론으로 바뀐다(The unconscious turns into the discourse that registers the gap and failures of the Other)는 점이다.

6) 바디우의 불안에 대한 논의는 *The Subject of Change*를 주로 참고하였다.

7) <세미나10권> 77쪽과 333쪽의 차트를 합친 것이다(Harari, 264쪽에서도 영어번역은 약간 다르지만 유사한 차트를 찾을 수 있다).



불안의 가장 왼쪽,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좌절(turmoil)이 상징계의 자아이상[I(A)]에 완전히 억눌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라면, 액팅-아웃(Acting-Out/행위의 무대화)은 대타자에게 승인받지 못하는 자신을 슬퍼하며 그것을 상징계에 전시한다. 그리고 행위로의 이행(*Passage a l'acte*)은 대타자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상징계의 무대에서 내려가 죽음을 향한다.

불안을 중심으로 해서 불안 차트를 살펴보면, 불안은 액팅-아웃과 행위로의 이행이라는 두 형태의 죽음충동에 에워 싸여있다. 우리가 "행위로의 이행"에 대한 지적의 재개념화에 경도되지 않고 라캉의 <세미나 10권>에서의 설명을 충실히 따른다면 두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액팅-아웃이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 액팅-아웃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노동자의 분신자살이나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가서 싸웠음에도 적절하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자살을 감행하는 전쟁제대군인의 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주로 유서를 작성한다. 이는 대타자로부터 반응을 요청하는 절망적 시도다.

반면, 행위로의 이행은 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로서 트라우마를 겪은 후 개인의 판타지 구조가 완전히 깨어진 후 대타자를 더 이상 믿지 않으며, 대타자로부터 반응을 야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주체의 자아 소멸행위다. 그러나 불안으로 인한 가장 극단적인 시도인 "행위로의 이행"조차도 "불안"과 대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불안을 회피하려는 궁극적 시도"(an ultimate attempt to avoid anxiety)(Harari 43)라는 라캉의 주장에서 바디우의 불안개념이 발아한다.

그러나 바디우와 라캉의 궁극적 차이는 바디우가 죽음충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바디우의 주체는 불안 앞에서 죽음충동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의 대면을 통해 가장 깊은 불확실성의 위치에서 결단하는 주체, 체계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주체, 즉 사건적 주체로 향한다. 그래서 바디우의 주체는 데카르트의 회의(doubt)의 주체와는 다르다. 데카르트적 사유에 의해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는 불만족스럽겠지만, 데카르트의 회의는 세계 속의 지식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지식을 의심하고 있다는 데 대한 확실성이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사유는 대상 a의 존재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대상과 직접 접촉하는 불안을 포착하지 못한다. 오히려, 지식의 불완전성을 의심하는 주체의 확실성을 주장함으로써 불안을 회피한다. 불안은 데카르트적 의심이 아니라, 그 의심의 원인이다(*Seminar X* 76).

따라서 바디우의 주체는 문제의 현상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단절을 선언하는 주체이며, 문제의 원인을 전시하는 몸의 불안은 주체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에게 불안이 없다면 주체도 없다. 불안이 주체를 주체적이게 하고, 상징질서의 좌표와 배치를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간극을 사유하게 하는 불안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바디우는 불안이 용기로서 대리보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기는 만용이 아니며, 보다 강한 자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 아니다. 용기는 마녀, 종북, 극우, 극좌 등의 교의화된 환상도 아니다. 용기없는 영웅주의는 일시적이며 애처로운 자살적 몸짓으로 그칠 뿐이다.

바디우에게 용기는 죽음충동과 같은 계열에 속하지 않는다. 용기는 불가능한 것 속에서의 인내의 미덕이며, 진리에 충실하며,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버티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는 불안을 배경으로만 해서 열리고, 부정(negation)의 공간 또한 불안을 배경으로 해서 열린다. 이렇게 불안의 주체에서 용기의 주체로 전환할 때, 세계의 낯은 것의 기능이 바뀔 수 있다.

Reactions from "a Swinish Multitude"

Im, Bora(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subsequent conflict, the French Revolutionary War led European countries to reconsider their own social and political state seriously. They came to re-examine the validity of monarchy and aristocracy. Among those nations, Britain saw extremely lively discussions about the legitimacy of the Revolution, monarchy and aristocracy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the radicals / moderates. Edmund Burke was in the middle of the political discourses. Burke's pamphlet titled,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with its conservative and anachronistic theories, led the radicals to compose various pamphlets.

Almost every sentence written in Burke's *Reflections* stimulated the radical philosophers. But we might say that a phrase in the *Reflections*, "a swinish multitude" particularly attracted attention from the radical theorists. I would like to examine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Burke's concept "a swinish multitude"; I will focus on the impact of the concept upon the contemporary political discourses. In the following discussion, I want to read John Aitken's poem, *The Swinish Multitude's Push for Reform: A Poem in Three Cantos* as a poetic response to Burke's idea, the "swinish multitude."

Edmund Burke coined a famous phrase in his conservative pamphlet,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which was published in 1790: "a swinish multitude" (76). Burke's *Reflections* triggered the pamphlet war: a lot of political pamphlets were composed for and against Burke's *Reflections*.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concept "a swinish multitude" as it shows the contemporary British conservatives' attitudes toward the lower orders or the British public.

Burke's phrase, "a swinish multitude" is indeed a passing remark: when he mentioned it his real interest was in other thing, that is,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the indissoluble union of the nobility, the clergy and learning. He was saying that learning must be the exclusive property of the nobility and the clergy and should not be enjoyed by "a swinish multitude":

Learning paid back what it received to nobility and to priesthood, and paid it with usury, by enlarging their ideas and by furnishing their minds. Happy if they had all continued to know their indissoluble union and their proper place! Happy if learning, not debauched by ambition, had been satisfied to continue the instructor, and not aspired to be the master! Along with its natural protectors and guardians, learning will be cast into the mire and trodden down under the hoofs of a swinish multitude. (*Reflections* 67)

The anger of the radicals / moderates who saw the phrase, "a swinish multitude" is understandable. The phrase shows the established prejudice entertained by the upper class against the lower orders.

After introducing the concept, "a swinish multitude," Burke did not discuss it any more; he did not even tell his readers whom he meant by the phrase. Thus whether Burke spoke of a supposed particular multitude or of the common people in a general sense was still a controversial issue in 1797 (Herzog 509). But the 'swinish multitude' itself seemed to know almost instinctively whom Burke was referring to and what he meant by the phrase. One of the "swinish multitude," Daniel Isaac Eaton, defined the meaning of the phrase in his pamphlet titled *The Remonstrance of the Swinish Multitude, to the Chief and Deputy Swineherds of Europe*, which was published on 26 October :

We are charged with rebellion, ingratitude, dissatisfaction, disobedience to our swineherds, and thirsting for innovation; in a word, we are represented as animals devoid of common sense; ripe to commit the blackest treasons. These are the reports which are cruelly raised, and industriously circulated, to stigmatize and blacken our general character. But when our conduct is considered, they must appear infamous forgeries, diabolical fabrications. (55)

In other words, as the anonymous writer admits, the "swinish multitude," was poor people who had or were thought to have all the heinous characteristics such as treasonable quality, "ingratitude," "dissatisfaction," "disobedience," brutishness and the lack of common sense.

I would like to examine a poem written in response to the concept, titled *The Swinish Multitude's Push for Reform: A Poem in Three Cantos* composed by John Aitken. The author, Aitken seems to have been a minor poet, as no record exists of him. But Aitken was possibly a productive poet: the title page of the poem, *The Swinish Multitude's Push*, tells that he is the author of *The Plebeian's Alarm* as well. The poem, *The Swinish Multitude's Push* was published in Glasgow in 1816.

As implied earlier in this essay, many authors responded to Burke's *Reflections* in the form of pamphlets or tracts. But poems were not written in response to the phrase "a swinish multitude." That is the reason why Aitken's poem, *The Swinish Multitude's Push*, is extremely important for our discourses. Aitken begins the poem:

Ye learned Lords and Nobles great,
That rule this sad ill-fated State,
On wha depend on an Empire's fate,
Haud for a wee.
This lang while back ye've gane a gate
That's vexed me.

Your conscience never count's a crime,
For spreading woe frae clime to clime,
Mair than a Bardie does to rhyme
A bletherin' sang;
Ye're sae accustomed tilt, by time,
Thought's lost the fang. (Aitken 2)

Aitken criticizes the "learned Lords and Nobles great / That rule this sad ill-fated" Britain. Aitken contrasts the "learned Lords and Nobles" with the lower orders or the "swinish multitude," who is not learned at all. But the poet implies that the "swinish multitude" has discontentment with the upper class, the "learned Lords and Nobles." Thus we might suppose that the word "great," modifying "learned Lords and Nobles" is used ironically, suggesting that they are not great.

Aitken describes Britain as a "sad ill-fated State." Indeed Britain in the 1800s was a "sad ill-fated State" as the life of the lower orders was miserable. Patricia Comitini argues as follows:

Alongside the upper class fears of depopulation, crime, and political discontent of the lower orders, there was also a fear of social and economic transgression by the poor which took form in common methods of revolt such as arson and rioting. (Comitini 97)

There was a serious decrease in population in the 1800s because of the ongoing French Revolutionary War and the Napoleonic War. Even though the two wars were fought on the Continent, Britain was deeply involved in the conflicts and lost many of its people in the battles. As Aitken writes, the lower orders of Britain were living in a "sad ill-fated State" as the government sent them to the battlefields to be killed; it also did not trust them and regarded them as potential criminals.

In the lines quoted above, Aitken laments that the "learned Lords and Nobles" spread "woe frae [i. e. from] clime to clime." The French Revolutionary War virtually initiated by the warmongering government of Britain aggravated economic woes of the country; and the victim of the economic crises was the poor people of Britain. Hilary Havens rightly observes:

The economic disparity between the few who dictated government policies and the masses that suffered from the consequences only exacerbated the resentment that erupted in street riots protesting the rising cost of bread and the nefarious practice of crimping. (Havens 102)

The war resulted in the food shortage, which in turn led to mass riots (Emsley 98). Aitken criticizes the "learned Lords and Nobles" and shows that the "swinish multitude" is ready to heighten its voices over a social barrier.

Aitken continues to criticize the present state of Britain and the wrongs done by the "learned Lords and Nobles":

For Lordsake, Sirs! then candid weigh
The wrangs that ding us sae aglee
Ne'er pledge your word, syne raise a plea,
An' mak' excuses,
That sinks the man, till oh! he's wee,
And truth abuses. (Aitken 6)

Aitken writes that the "learned Lords and Nobles" do not pledge their word at all and make excuses for their faults. Thus the plight of the poor does not get better and the truth is lost and abused. Even though the lower orders made a plea for their environment and bad condition, it was forgotten and discarded.

Burke must not have known that his phrase the "swinish multitude" could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contemporary radicals and/or moderates. As I mentioned earlier, the famous concept led the radicals to know the way the upper middle class thought of the lower orders; the radical philosophers publicly and ironically admitted that they were one of the "swinish multitude." Not all the radical philosophers were from the lower class, but calling themselves the "swinish multitude," they were willingly united with the poor people of Britain in order to improve their living conditions and realize the parliamentary reform.

Aitken's poem, *The Swinish Multitude's Push* needs t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political atmosphere of the 1800s. In the poem, Aitken attempted to announce the unfairness of Burke's phrasing and correct the socially and politically prejudiced attitude of the upper middle class towards the lower orders. Burke's *Reflections* and Aitken's *The Swinish Multitude's Push*, along with other pamphlets, enriched the political discourses in Britain in the 1800s.

Works Cited

- Aitken, John. *The Swinish Multitude's Push for Reform*. Glasgow: W. Lang, 1816. Print.
- Boulton, J. T. *The Language of Politics in the Age of Wilkes and Burke*. London: Routledge, 1963. Print.
- Bruyn, Frans. *The Literary Genres of Edmund Burke: The Political Uses of Literary Form*. Oxford: Oxford UP, 1996. Print.
- Burke, Edmund.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Origin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 London: Andrew and John M. Duncan, 1757. Print.
- ,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London: Longman, 1790. Print.
- Butler, Marilyn. Ed. *Burke, Paine, Godwin, and the Revolution Controversy*. Cambridge: Cambridge UP, 1984. Print.
- Comitini, Patricia. *Vocational Philanthropy and British Women's Writing, 1790-1810: Wollstonecraft, More, Edgeworth, Wordsworth*. London: Routledge, 2011. Print.
- Eaton, Daniel Isaac. *Remonstrance of the Swinish Multitude, to the Chief and Deputy Swineherds of Europe*. London: T. Cadell, 1793. Print.
- Emsley, Clive. "The Military and Popular Disorder in England, 1790-1801." *Journal of the Society for Army Historical Research* 61.1 (1983): 96-112. Print.
- Furniss, Tom. *Edmund Burke's Aesthetic Ideology: Language, Gender and Political Economy in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P, 2010. Print.
- Havens, Hilary. *Didactic Novels and British Women's Writing, 1790-1820*. London: Routledge, 2017. Print.

COLT를 활용한 EBS 우수 영어수업 동영상에 나타난 읽기 후 의사소통 활동 분석

신 은 솔 (한국교원대학교)

I. 서론

한국 사회에서 영어교육은 구어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면서 읽기 교육에 대한 비중은 다소 낮아지게 되었다(남은희, 2012). 의사소통 능력은 유창한 구어 발화 능력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 언어 및 문자 언어가 통합되어 문맥을 이해하고 이를 표출하는 능력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조정순, 선호승, 2007). 그러나 조기 영어교육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인 말하기 위주의 교육을 받아 온 학생들을 교수하게 되는 고등 교육현장에서는 영어읽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우수 영어 수업을 제공한 *EBS 최고의 영어교사 프로그램* (2012)의 수업 동영상 중 읽기 수업과 관련된 수업 내용을 선정해 COLT(Communicative Orientation of Language Teaching) 분석법을 활용해 그들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수·학습 방법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읽기 수업에서 성취되고 있는 의사소통적 측면을 알아보고자 하며 읽기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방법을 고안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들의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등학교 영어 읽기 수업에서 어떻게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 2) 읽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어떤 의사소통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COLT 수업 관찰 도구

COLT(Communicative Orientation of Language Teaching)는 와 Allen(1985) 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이중 언어 능력 개발(Development of Bilingual Proficiency, DBP)이라는 연구의 객관적 관찰 도구에 대한 필요성이 이러한 도구 개발의 동기가 되었다(Spada & Fröhlich, 1995). COLT는 1부와 2부 분석법으로 구성되며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모든 부분을 기술하고자 한다.

2. 의사소통 기능 함양을 돕는 읽기 수업

의사소통 기능 함양을 위해 단순하고 조작적인 학습 자료가 아닌 실질적이고 폭넓은 맥락에서 지식과 경험을 제시해 줄 학습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강문순 & 박은진, 2012). 그러므로 외국어 학습 상황에서 제공되는 읽기 자료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이해, 전인적 학습을 위한 풍부한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교실 수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단편 소설을 이용해 강문순과 박은진(2012)은 학생들과 작품을 읽어 나가며 읽기 전, 중, 후 과정의 세 단계 활동을 사용해 단계별로 학습자에게 맞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읽기 지도안을 고안했다. 후속 활동으로 제시된 내용으로는 작품 읽기와 듣기, 인물 탐구 및 어휘를 활용해 일기 쓰기 및 활동 후 토론, 작품 삽화 그리기, 대화문 만들기, 신문 기사 쓰기 등이 있다. 이는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증진시켜 문화적 지식과 경험이 제공되는 수업을 가능하게 했다.

읽기 교육과 효과적인 읽기 수업과 관련하여 남은희(2012)는 대학의 교양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 동기 및 영어 읽기 수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해 고찰했다. 학습자들의 읽기 호기심은 영어 텍스트 자체의 읽기를 통해 그 동기가 향상되며 후속적인 문법 지도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 문법 지도가 가지는 의사소통 맥락에서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효과적인 언어 발달을 위해 읽기 수업에서 적절한 문법 지도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등학교 영어 읽기 수업에서 어떻게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읽기 수업을 통해 고등학생들은 어떤 의사소통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또한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서 후 의사소통 활동의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 수업으로는 *EBS 최고의 영어교사* 프로그램 중 중등과 고등학교 영어 읽기 수업에 관련하여 의사소통 및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한 2개의 수업을 선택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EBS에서 제공하는 우수 영어 수업 동영상 중 독서 읽기와 관련된 수업 영상 2개를 분석하여, 이들 수업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영어 수업 구성과 활동 내용 및 학생들의 수업 내 영어 의사소통 방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도구

읽기 관련 수업을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교사들의 수업 활동과 언어의 네 가지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사용한 언어, 정보차, 발화 지속성, 발화 지속의 형태 등을 분석하고자 했다. 2편의 수업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고 교사와 학생의 발화 부분을 모두 전사했다. 전사한 내용을 문장 단위로 구분했고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은 하나로 간주했다. 이후 COLT 분석표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1부와 2부 분석을 진행했다.

3. 자료의 수집 및 처리

연구 도구에서 제시한 COLT 1부와 2부의 분석표를 도구로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독과 관련된 2개의 고등학교 영어 수업 자료의 분석 및 처리는 COLT 1부와 2부로 나누어 제시한다.

IV. 연구 결과

고등학교 다독 읽기 수업 두 편을 전사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수업 분석 사항들을 COLT 1부와 2부 분석 도구 및 처리방식으로 나누어 연구 결과로 제시한다.

1. COLT 1부 수업 내용 구성 분석

COLT 1부의 분석표에 따라 고등학교 다독 읽기 수업을 관찰한 결과는 참여자의 구성, 수업 내용, 수업 자료 및 학생들의 언어 사용 양상으로 나누어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1) 수업 자료

수업 1은 학생들이 도서를 읽고 난 후 해당 도서와 관련된 영화나 사진 자료를 보여주고 도서에서 추출한 어휘들을 시각자료로 제공해 학생들과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했고 수업 2의 경우도 도서와 관련하여 인물의 사진이나 내용을 연상시키는 그림 등의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여 말하기 활동을 이끌었고 교사가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제작한 자료를 그룹 및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교사가 제공한 학습지들은 확장 교재로 분류했고 교사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중심으로 수업 활동이 연결될 수 있게 했다.

2) 학생들의 언어 사용 양상

수업 1은 독서 이후의 말하기 수업 위주로 단어와, 특정 문법을 사용하여 문장 만들기, 본인의 생각 발표하기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직접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주로 사용했다. 영어 전용 교실로 옮겨서 수업을 하는 경우, 큰 스크린에 도서 내용과 관련 있는 영화를 선정해 특정한 장면을 틀어주고 학생들이 암기 및 낭독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듣기와 말하기 활동을 병행했다.

수업 2의 경우도 역시 말하기 비중이 66.6%로 높았는데 쓰기의 비중도 46.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룹 과제를 수행할 때 교사가 제공하는 학습지의 질문이 쓰기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이 많았고 이를 보거나 또는 보지 않고 학급 앞에서 발표하도록 하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활동도 있었기 때문에 학생의 발화를 상당히 많은 부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활동은 도서 판매 홍보를 위한 광고 만들기를 하는 그룹 과제에서 학생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제작한 포스터를 들고 영어 문장으로 된 문구를 낭독하며 이를 교사가 비디오 녹화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3) 수업 내용

각 수업에서 나타난 수업의 의사소통 내용들을 경영 및 언어와 기타 주제 항목으로 나누고 분석했다. '경영'의 경우, 활동에 앞서 순서와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 절차에 해당하고 학생들을 통제하고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내용은 규율에 포함된다. '언어' 항목을 보면 제공되는 내용이 문법, 어휘, 발음 등의 언어 형식 위주라면 형식, 의사소통에 집중되었다면 기능, 일관성 있는 문장 결합에 대한 내용이라면 담화, 특정한 상황을 주고 발화하게 했다면 사회언어학 항목으로 간주했다. '기타 주제'의 경우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교실 담화에서 주로 나타나는 언어 내용 위주라면 협의적 주제로 보고 교실 언어에서 벗어난 개인적 경험과 연관된 자유 주제는 제한적 주제로, 개인적 경험을 벗어나 사회 이슈나 아이디어, 재구조화된 정보들을 다뤘다면 광의적 주제로 나누어 간주했다.

4) 참여자의 구성

다독 읽기 수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참여자 조직의 유형을 관찰 해 보고자 교사가 학급 전체 구성원들과 하나의 활동을 주도하는 경우, 교사와 학생 개인 또는 학생들 전체와의 활동, 학생과 학생, 제시된 모델을 학생이 읽는 낭독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그룹의 경우 동일 과제는 모든 그룹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고 이질과제는 각각 다른 과제를 하게 된다. 혼합형에서 개별과제는 학생 개개인이 다른 과제를 하고 그룹/개별과제는 그룹 활동을 하는 몇몇 학생과 개인과제를 수행하는 나머지에 대한 구분을 나타낸다.

2. COLT 2부 학습자의 의사소통 활동 분석

1) 의사소통 요소

두 개의 수업에서 모두 침묵보다 비 과업, 과업을 포함한 의사소통 활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학생들은 교사와 조원 및 대화 상대의 의사에 반응하고 소통하는 발화 형태를 보여주었다. 교사가 제작한 학습지에서 도서 내용과 토론 주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제시한 영어 질문에 학생들이

대답하는 비 과업적인 요소들과 교사와 조원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빈번한 과업적 요소는 읽기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요소들을 수업의 구성에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사용 언어

수업 1과 2 모두 교사가 수업 중에 제 1언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목표 언어에의 노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학생들 역시 그룹 과제에서 모국어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2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습지 및 활동 자체가 영어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도록 구성되어있어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보차

전체적으로 예상 불가능한 정보를 담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황과 내용을 묻게 하는 질문이 예상 가능하고 확인에 응하게 하는 질문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가 의사소통을 위한 독후 활동을 개발할 때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정보차가 많은 주제일수록 유의미한 의사소통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수업을 구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4) 발화 지속 형태

다독 수업을 진행한 수업 1과 수업 2에서 나타난 발화 지속의 형태는 발화에 대한 반응이 없는 무시, 이전 발화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를 되풀이하는 반복, 이전 대화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말하는 바꿔 말하기, 이전 발화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피드백에 해당하는 첨언,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확장, 확장된 정보를 요구하는 상세화를 포함하여 총 6가지의 항목으로 나뉜다.

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은 EFL 학습 상황에서 교과서 위주의 읽기 수업을 진행할 때 나타나는 한계점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수업 현장의 영어 읽기 교육을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능력 확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찾기 위해 강문순과 박은진(2012)의 다독을 활용한 고등학교 영어 읽기 수업과 같은 맥락에서 의사소통 독후 활동을 적용하여 수업활동으로 고안한 고등학교 영어 다독 수업 두 편에 대하여 독후활동의 의사소통성을 COLT로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 교사의 다독을 활용한 의사소통 수업에서 교사는 독후 말하기 활동에서 등장한 단어와, 특정 문법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고 생각 발표하기 등의 의사소통 기능 향상을 위한 방법을 이용했다. 특히 학생들의 언어 항목이 의사소통의 내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활동 시 단어 맞추기 퀴즈나 그룹 과제 중 문장 생성 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법 수정 및 교사에게 독서 중 나타나는 특정한 장면을 교사에게 설명하고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양상 때문이었다. 교사와 학생에게 도서에서 나타난 특정한 장면을 묘사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과제에서 나타나는 정보 재구성을 의미하는 광의적 주제의 비율도 다음으로 높았다. 교사의 발화에서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첨언의 비율이 높았고 실물 자료를 사용해 정보의 차가 교류되는 상황에서의 발화를 통해 학생들의 확장된 의사소통의 양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두 개의 수업 모두 교사가 수업 중에 모국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목표 언어에 대한 노출을 위해 한국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학생들 역시 그룹 과제에서 꾸준히 제 2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사들의 외국어 사용 의지와 학습지 구성 및 활동 자체가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던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업 의사소통 요소가 80%를 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의 수학적 능력 시험 대비와 교과서 읽기 위주의 고등학교 영어 수업

상황에서 학생의 발화가 일반적인 수업에서 거의 없는 것을 상기하면 학생 발화 자체가 주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21세기 4C 능력 신장을 위한 표현 중심의 수업 사례

김지영(인천도담초등학교)

I. 미래 시대의 학교교육

얼마 전 세기의 대결이라 일컬어진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여러 바둑 전문가들이 대결 전 72%의 승률로 이세돌 9단의 승리를 예견했으며, 이세돌 9단 본인도 전승을 확신했던 대전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알파고가 4승을 올리며 마무리되었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현재 인류의 최정상 바둑기사를 이길 수 없으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이 대결은 인공지능에 대한 인류의 패배라는 부정적인 정서까지 안겨주었다. 이는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설 영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우리나라 400여개의 주요 직업 가운데 인공지능과 로봇기술(Robotics)등의 미래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가 향후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관한 뉴스를 보면(2016), 콘크리트공, 정육원 및 도축원,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조립원 등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자리는 상당 부분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손해사정인, 일반의사, 관제사와 같은 전문직종 또한 직무대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지적 업무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Frey와 Osborne(2014)에 의하면 컴퓨터의 빅 데이터(big data)의 수집과 처리능력으로 인해 전문변호사나 의사 처럼 고학력 전문직의 일까지도 컴퓨터가 수행 가능한 단계까지 진전되었으며, 이러한 실제 업무 사례를 제시하였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산업혁명을 살펴보면, 일명 블루 컬러(blue collar)라고 일컬어지던 생산직 노동자의 업무를 기계가 대신하였지만 앞으로의 산업혁명에서는 화이트 컬러(white collar)로 인식되는 지식 노동자도 실업자라는 이름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낮은 직업으로는 레크레이션 치료사, 사회복지사, 초등교사와 같은 직업들이 나열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사람을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떤 지식이나 자료로 데이터화할 수 없으며,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계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공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는 감성적 영역과 문화, 예술 등의 창의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해야 하며, 결국은 인간만이 가능한 '인간다움'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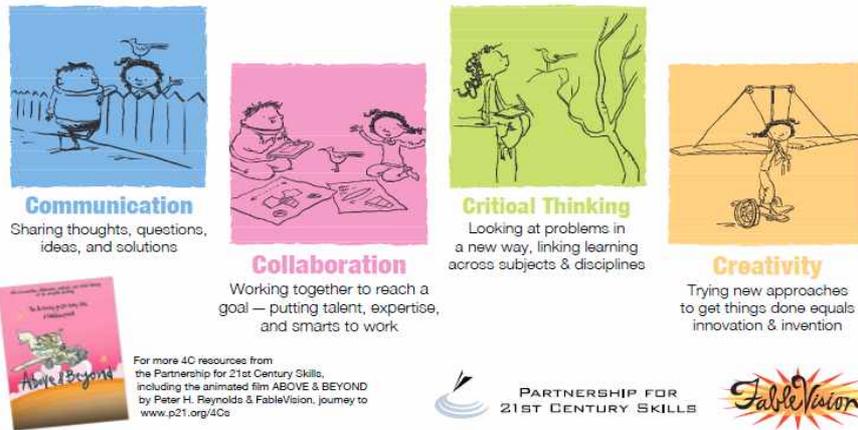
최근 세계 각국이 전통적으로 지식을 강조하던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교육에서의 핵심 역량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6가지를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박기화(2014)는 영어과에서 핵심역량 함양을 구체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과업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등 영어 수업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데 있어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II. 4C's Skills for 21st Century

전통적으로 미국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능력이 3R(Reading, wRiting, aRithmetic)에 관한 지식(knowledge) 위주의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역량 연구기관인 P21(Partnership for 21 Century)을 통해 21세기에 새롭게 필요한 능력(skill)에 해당하는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itical Thinking, Creativity의 4가지를 강조하면서 "Above & Beyond"를 교육 기조로 삼고 있다.

We're taking teaching and learning Above & Beyond

Today's students are moving beyond the basics
and embracing the 4C's — "super skills" for the 21st century!



[그림 1] 4Cs Poster (Partnership for 21 Century, 2011)

P21에서 제시한 21세기를 위한 초역량(super skills)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ommunication(의사소통): 생각, 의문점, 아이디어, 해결방안을 공유함
- Collaboration(협력): 재능, 전문성, 지성을 모아 목표 도달을 위해 함께 일함
-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력): 교과와 수업을 넘나들며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봄
- Creativity(창의성): 혁신과 발명과 같은 새로운 접근으로 과업을 수행함

사실 이러한 역량들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것들이 아니며, 기존의 교실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길러주기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해왔던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등교육에 있어 담임 교사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급 경영을 통해 학생 상담, 교사와 학생 및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형성 등, 교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을 통해 학생들이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힘써 왔다. 그러나 담임교사와는 달리 영어교과전담교사에게는 수업을 제외하고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Ⅲ. 4C's 능력과 표현 중심 영어 수업

3. 1 표현 중심 영어 수업

영어의 4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골고루 배양하는 것은 영어교육의 당연한 목표이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과거에 비해 의사소통을 위한 실용영어가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P21에서 제시한 4가지 핵심 역량은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중심의 수업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때의 '표현'은 교과서의 문답식 목표 어구를 단순 암기하여 말하고 쓰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말하고 쓰는 것을 가리킨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하고 쓸 거리' 즉 소재와 학습자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동기 있어야 한다. 그러한 소재와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고민과 함께 영어 수업에서 핵심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한 몇 가지 수업 재구성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단원	재구성 차시	주제	비고
2. How many clubs do you have at your school?	6/6	나만의 기발한 학용품 만들기	4월 과학의 달 관련 주제 통합
3. I have a runny nose	6/6	건강 홍보 포스터 만들기	교실, 복도 및 화장실 문에 게시

3. 2 재구성 방향 및 사례

1)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과내용의 재구성 - 다양한 주제의 창의적 글쓰기
 정해진 정답만을 찾기 위한 영어 수업이 아닌, 다양한 문제 상황 속에서 해결하고 학습자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하였다. 주제에 따라, 또는 학교의 일정이나 행사에 따라 영어 교과 외에도 교과 간 재구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 안에서 답이 일정한 단어 쓰기와 문장 쓰기에서 벗어나 여러 실제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글쓰기 활동이 일어나도록 매 수업의 4차시의 쓰기 수업과 6차시의 단원 복습 수업을 주로 재구성하였고,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과 관련지어 정답이 하나인 글쓰기가 아닌, 학습자마다 여러 가지의 글쓰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쓰기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 때 최대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 단원의 핵심 표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안내해 주었다. 학생들은 잘 모르는 표현은 모둠별 한영사전을 활용하여 찾아보거나, 교사와 모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고쳐 쓰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2) 의사소통 능력과 협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의 재구성 - 메모리 카드 활용 말하기 연습

영어 시간에 학생들끼리 짝, 모둠, 또는 전체로 의사소통을 시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엇을 말해야 할 지 몰라서 한국어로 말하거나 목표어와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게임을 활용한 말하기 연습에서도 목표어 연습 그 자체보다는 경쟁에 이기거나 보상을 받는 것이 활동의 주가 되는 경험도 적잖이 있었기에, 어떻게 해야 좀 더 진지하게 목표어를 사용한 대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학력 관련 연수에서 강사 선생님의 추천으로 읽은 학습 관련 도서(서상민, 정동민, 2016)에

서 언급한 메모리 카드를 수업에 도입하여 활용하게 되었다.

메모리 카드 활동의 첫 번째 목적은 목표어를 외우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는 목표어를 몇 번 들어서 말할 수 있는 소수의 우수한 학생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습자를 위하여 외워서 말하는 것을 통해 기본적인 표현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인 목표어 표현을 먼저 알고 있어야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발산적인 표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 기계적인 외워 말하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목표어에 자신감을 얻은 후에 학생들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어휘나 문장을 한영사전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활용한 메모리 카드를 학생 스스로 만들어 짝→모둠→학급과 함께 공유하여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표현을 안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워드 월(Word Wall)의 형태를 문장 카드로 대체하여 서로 다른 학급의 학생들이 만든 다양한 문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활용 방법에 있어서는, 메모리 카드는 간단한 낱말과 문장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직접 써서 활용하기도 하고, 정확한 표현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라벨지에 주요 문장을 출력하여 붙여서 제작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주로 단원의 도입이 되는 1차시와 6차시의 정리 단계에서는 짝 활동을 구성하여 학습자 개인의 말하기 기회를 늘려 배운 낱말과 표현을 익히고 복습 및 확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고, 2~4차시에서 언어의 각 기능별 학습을 하고 나서는 모둠별 게임 형식으로도 활용하였다. 필요에 따라 메모리카드의 색깔을 달리하여 수준별 말하기 및 쓰기 연습에 활용할 수도 있다.

IV. 미래의 학교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몇 해 전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이 사용했던 휴대용 통역기가 영화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화두가 된 적이 있다. 한국인 주인공이 통역기에 입을 대고 한국어로 말을 하면, 언어가 다른 대화 상대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자동 번역되는 기능을 가진 이 기계를 보며, 사람들은 이것이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외국어 공부의 압박감에서 해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어떤 형태로든 이 휴대용 통역기와 같은 기능을 가진 기계나 기술이 멀지 않은 미래에 상용화된다면 영어교육의 미래와 영어교사의 역할은 어찌 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교사들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시험지의 빈칸 채우기와 정답 고르기가 영어 공부의 전부가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새로운 미래에 성공적으로 준비하도록 돕는 영어교육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부터 그에 걸맞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롤 모델이 되어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